경북의사회지

2004 | 28호

특집좌담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

(의사 가족들이 보는 의사상)



경상북도의사회
www.kbkma.org

GlaxoSmithKline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http://www.gsk.co.kr

당뇨병과의 먼 여정을 시작할 때

Double Team Avandamet™



- 지속적인 혈당 조절을 합니다.[1]
- 당뇨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줄여줍니다.[2]
- 저혈당의 위험이 적습니다.[3]
- 체중 증가가 적습니다.[3]

아반다메트™

rosiglitazone maleate/metformin HCl

DURABLE POWER OF TWO

Reference

1. Jarivwala S, Mather R, Walker L, *et al.* Diabet Med 2003; 42(Suppl 1):P277
2. GlaxoSmithKline. Data on file. 2003
3. Fonseca V, Rosenstock J, Patwardhan R, *et a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0; 1695-17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국제센터빌딩 9층) TEL:02-709-4114 FAX:02-3785-2163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아반다메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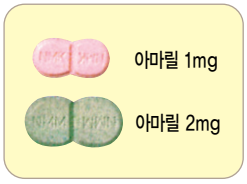
060 AVM-04.049-JA

가장 널리 선택되는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



아마릴® 정

주성분:글리메피리드



- 하루 한번 복용으로 매우 편리합니다.[1]
- 저혈당의 위험이 적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2]
- 심장/혈관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안전합니다.[3,4]

Product Information (전문의약품)

성분 · 함량 : 1정중 글리메피리드 1mg 또는 2mg 함유
효능 · 효과 : 인슐린-비의존형(Type II) 당뇨병. 인슐린과의 병용요법. 메트포민과의 병용요법
용법 · 용량 : 1일 1회, 1~8mg을 아침식사 또는 첫번째 식사전에 투여,
인슐린과 병용투여시는 아마릴 8mg을 경구투여하고 인슐린 투여량을 저용량부터 조절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 – 인슐린 의존형(제1형) 당뇨병, 당뇨병성 케톤혈증
2. 부작용 – 저혈당, 과민증 등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학술정보팀(Tel. 02-527-5304, Fax: 02-527-5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amaryl.co.kr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735번지(Tel:02-527-5114)

참고문헌
1. Sonnenberg G. et al. Ann Pharmacother. 1997; 31: 671-6
2. Dills D.G., et al. Horm. Metab. Res. 1996; 9: 426-9
3. Bijlstra P.J. et al. Diabetologia 1996; 39: 1083-90
4. Gelsen K., et al. Horm. Res. 1996; 28: 496-507

Aven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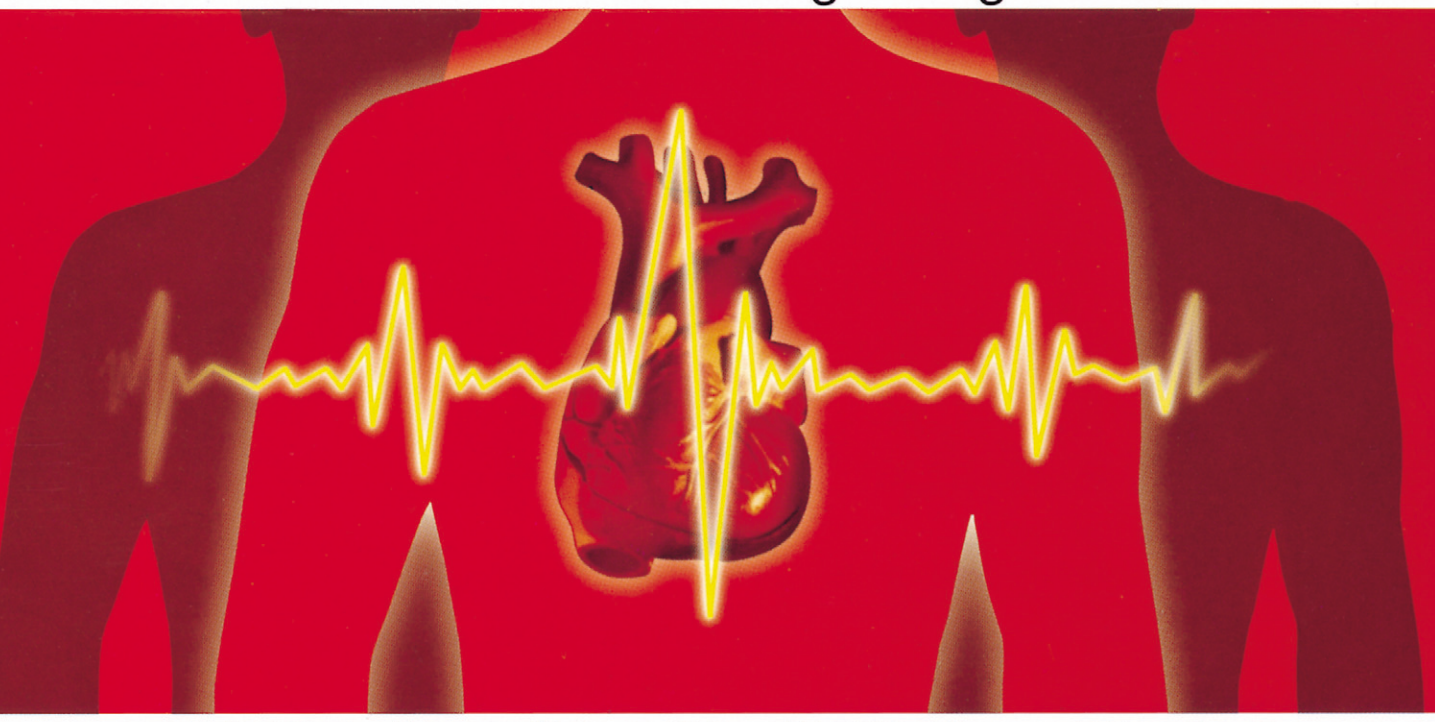
HANDOK

SINCE 1897
클수록 100년, 클수록 100년

고지혈증 치료의 새로운 선택기준

심바틴정

Simvastatin 20mg/40mg



고지혈증 치료의 1차 선택제 - 심바틴정



심바틴의 우수성

- Total-C, LDL-C, VLDL-C, TG 농도저하 및 HDL-C 농도상승 작용의 우수한 효과
-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총사망률 30%, 허혈성 발작 위험률 34%, 심근경색 발병 위험률 37% 감소
- NIDDM 환자의 혈중 콜레스테롤치 저하로 심장질환의 위험성 감소

심바틴의 광범위성

- 고지단백혈증, 고중성지방혈증에도 뛰어난 효과발현

심바틴의 인증된 효과

-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Ref) Am J Cardiol 2000 Aug 15:86(4): 406-11, Indian Heart J 2001 Mar-Apr:53(2):172-6, Metabolism 2001 Mar:50(3):355-9, Arch Intern Med 1999:159:2661-7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www.dong-wha.co.kr



표지설명

2003년 6월 8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제25회 경북의학제를 마치고 회원들 및 가족들과 함께...

경북의사회지 2004년 제28호

발행인 변 영 우
편집인 정만진 · 김광만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 (053)941-7785, 7781
FAX (053)941-5557
http://www.kbkma.org
인쇄처 선진애드
TEL (053)555-3336

CONTENTS

003 | 발간사
변영우

004 | 축 사
이원기

005 | 격려사
김재정

007 | 임원명단
7 경상북도의사회 임원명단
11 시 · 군의사회 회장명단
13 시군별 종합병원 · 병원장 명단

018 | 사 진
윤태권

019 | 시
19 빨간열매(사랑의 열매) / 손장락
20 山村에 산다 / 성기태
21 말들의 마을 · 2 / 김의홍
23 罪(죄) / 안길룡

024 | 수 필
24 고양이 오줌과 인골(人骨) 분말 / 추성수
26 사진속에 담긴 추억 / 전경홍
29 청백리(淸白吏) / 최유근
30 계류 낚시를 배워보자! / 윤융삼
31 산악회 그리고 회 / 전민
35 다시 5월의 교정을 꿈꾸며 / 권세홍
38 주식투자, 지금도 늦지 않다 / 박경철
42 정신과 의사, 그들은 '또라이' 인가. '족집게' 인가? / 사공정규

044 | 시 론
44 엘리트가 무엇인가? / 김두희
48 의료계 정치 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변영우

050 | 보고서
이라크 보고서 / 정만진

058 | 여행기
아버지와 아들 / 박창로

074 | 방문기
제18회 경북 · 전북의사회 자매결연 친선행사 / 최유근

076 | 산행기
한라산(漢拏山) 산행기 / 반재돈

080 | 추도사
춘강 빈남수 박사 영전에 / 신은식

082 | 특 집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

099 | 유 머

101 | 의학제 삼행시

103 | 화 보

111 | 회무소식 및 회원동정

142 | 결의문

147 | 편집후기



의사윤리 선언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의사 본연의 사명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동료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존중하고 협조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의 길을 구현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의료환경을 온 국민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드높인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켜 의업의 존재 의미와
의사의 존엄성을 확립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예리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물을 관조하여...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변 영 우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산뜻하고 알찬 2004년도 경북의사회지 제28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의료의 현실을 잊고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 경북의사회지는 경북의사회의 역사이자, 회원들의 문예 창작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활과 인생관이 표출된 작품들을 읽으면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애환에 공감하고, 꼼꼼히 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지난해를 반추(反芻)하고, 반성하며 보다 유익한 신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수년 간에 걸친 우리의 끊임없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계를 덮고 있는 먹구름은 걷히지 않고 더욱 더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의료 정책과, 붕어빵의 틀을 벗어나면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는 건강보험이 우리를 옭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우리 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의료계의 지도자로 앞장에 선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의료환경속에서도 많은 회원들은 예리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물을 관조하여 주옥같은 글을 쓰셨고, 그것을 우리 회지에 투고하여 주셨습니다.

시적(詩的) 진실을 향기 나는 함축된 어휘로 표현한 시는 물론이고, 다양한 경험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수필과 기행문, 그리고 학술 논문에 이르기까지 감칠맛 나는 다양한 글들이 경북의사회지를 수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가지고 시행한 특집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입니다.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사 가족들의 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대는 인쇄물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의사회지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록 유명 인사나 작가의 글이 아니지만 우리 경북의사들의 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읽어주시고, 다음에도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글이 실릴 수 있도록 투고 바랍니다.

끝으로 투고해 주신 회원 여러분, 기획하고 편집 정리하신 편집위원 여러분, 자료를 모으고 보관 정리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출판을 맡아주신 선진애드의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 원 기



갑신년 새 봄을 맞이하여, 경북 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제28호 경북의사회지' 발간을 기뻐합니다.

삼천리금수강산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활기찬 몸짓을 하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였건만, 이 나라는 "春來 不似春"이라고들 말합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는 2000년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전 국민이 불편하고 재정파탄이 나버린, 의료에 관한 모든 것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4월 투쟁이 시작되고 두달 반 만에, 대화의 중심인 의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시킨 정부가 바로 우리 정부입니다.

그러고는 태도를 돌변하여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의사를 부정청구를 일삼는 이익만 챙기는 집단으로 모는 나라,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모조리 의심의 눈으로 보게 하고 나아가 고발을 하면 포상을 주는 나라, 진료지침을 내어놓고 그대로 처방하지 않으면 법을 들이대며 삭감하고, 환자가 먹은 약값을 의사에게 물게 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의 숙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서글픈 우리의 처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입으로 한껏 부푼 조국의 젊은 에너지가 올바른 분출구를 잘못 찾아 들어가, 이어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가 엄청난 힘을 뿜어내더니, 드디어 '의약분업이 아주 성공적인 업적'이라고 공언한 정치인들이 대선에 승리하여 '참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제도에 관한 한 '이대로'가 최선이고, 영국식(?) 의료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세력들이 바야흐로 힘을 발휘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성분 명 처방'을 주요 정책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2일, 5만 명의 의사와 가족들이 비바람을 맞으며 진흙탕 속에 선 채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하였건만, 정부나 언론은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려 들지 않습니다.

당국은 우리들의 건전한 주의 주장을 무시하며, 우리들의 합리적인 제안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의사들마저 잘못된 의료를 고치려 애쓰지 않는다면, 그 누가 고치려 들겠습니까?

잘못된 의료제도의 피해는 결국에는 순진한 국민이 당하게 되고, 병마와 싸우는 불쌍한 환자가 당하게 되고, 나아가 그 책임을 우리들이 송두리째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사 여러분!

이제 이 나라 의사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의 신세가 되었으니, 바로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청년'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만 8만 의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마음이 되어 단결한다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길 이외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민주화를 향해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 재 정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2004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4분기가 흘러 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인 채, '대한민국호'가 과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정국에 놓여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계는 변함 없이 의료민주화를 향해 전진해야 하며, 또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천년의 고도, 자랑스런 화랑의 후예이신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30일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2004년도 새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의료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솔선수범하여 의권확립에 매진해 온 터라 올해 역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또 의료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지난해 5월 전국 8만 회원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고 탄생한 제33대 의협 집행부는 이제 출범 1년을 맞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협 집행부로서는 회원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제대로 숨 고를 겨를도 없이 앞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집행부는 특히, 의권투쟁 이후 정부의 무차별적인 탄압으로 인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회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의사회 풀뿌리 조직인 반모임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되살아 난 반모임을 통해 우리 의사 선후배들은 한자리에 모이게 됐으며, 여기서 의료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무기는 단결이요, 화합입니다.

의협 집행부는 여러분이 성원해주신 단결된 힘으로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물꼬인 DRG를 막아낼 수 있었으며, 규격화되고 획일화 된 붕어빵 진료의 표상인 감기 전산심사지침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일념으로 여러분의 지역 사령관인 시도 및 시군구

의료계가 힘들고 어려울때마다
솔선수범하여 의권확립에 매진해온
자랑스런 화랑의 후예들인 경북의사회원들과 함께
의료민주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아갑시다.

의사회장의 리더십을 단련하고 의료현안에 능통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장님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 회원의 단결력이 응집되어 마침내 2월 22일 여의도 결의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다시 한번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온 국민에게 의사의 강력한 파워를 과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통제하고 억압하여 의사를 일개 의료봉급쟁이로 만들고, 의사를 노예로 부려먹으려는 의료 사회주의적인 정책적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회원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존심을 철저히 깔아 뭉개고 있는 진료비 부당 삭감은 각 도처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행부가 앞장서서 땅바닥에 떨어진 여러분의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선 부당한 심사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야간진료시간대 조정 등 말도 안되는 현행 엉터리 고시와 법령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집행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의권으로 보답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료계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경북의사회가 2004년도 새해 사업과 관련하여, 선배들이 쌓아 온 훌륭한 전통과 노하우를 살려 집행부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변 영 우 회장


정 만 진 부회장


이 석 균 부회장


김 옥 배 부회장


이 영 현 부회장


이 미 숙 부회장


백 승 인 기획이사


이 봉 구 기획이사


이 경 섭 학술이사


천 종 욱 재무이사


김 장 희 법제이사


이 경 수 보험이사


조 성 범 보험이사


전 민 의무이사


김 광 만 공보이사


류 효 충 정보이사


김 용 탁 정책이사


김 대 환 정책이사


김 종 호 정책이사


송 재 영 정책이사


조 현 숙 정책이사


송 준 석 정책이사


하 상 호 감사


유 성 호 감사


정 능 수 감사



경상북도의사회 임원명단

임원명단(제39대)

(2003. 4. 1~2006.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회 장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경주시 사정동 101-27
부 회 장	정 만 진	정만진소아과의원	054	332-7755	영천시 완산동 987-41
	이 석 균	청십자의원	053	815-7077	경산시 중방동 538-3
	김 옥 배	김옥배정형외과의원	054	452-5665	구미시 원평1동 534-8
	이 영 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이 미 숙	이화산부인과의원	054	857-7659	안동시 남부동 169-20
기획이사	백 승 인	백승인소아과의원	054	746-0002	경주시 성건동 340-22
	이 봉 구	이피부과의원	054	742-1494	경주시 동부동 141
학술이사	이 경 섭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	770-8266	경주시 석장동 1090-1
재무이사	천 종 욱	천내과의원	054	771-0503	경주시 동부동 113-3
법제이사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보험이사	이 경 수	이경수내과의원	054	471-1674	구미시 황상동 280-9
	조 성 범	한빛연합소아과의원	054	742-5848	경주시 성동동 179-3
의무이사	전 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054	247-7861	포항시 북구 죽도1동 103-1
공보이사	김 광 만	김소아과권방사선과의원	054	221-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28B
정보이사	류 효 충	신라산부인과의원	054	744-9393	경주시 황성동 1053-2
보험이사	김 용 탁	김용탁산부인과의원	054	743-6688	경주시 성동동 143-8
	김 대 환	베드로내과의원	054	331-5522	영천시 금로동 584-3
	김 종 호	김종호신경정신과의원	054	282-7575	포항시 남구 대도동 19-18
	송 재 영	송재영외과의원	054	373-0111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78-60
	조 현 숙	계림내과의원	054	742-8931	경주시 성동동 72
	송 준 석	연세가정의원	054	775-5563	경주시 감포읍 감포3리 383-12
감 사	하 상 호	하상호 · 김남주산부인과의원	054	273-366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30
	유 성 호	평화산부인과의원	054	552-5959	문경시 점촌동 53-2
	정 능 수	동산연합의원	054	861-007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49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명단



이 원 기 의장



김 홍 조 부의장



김 교 성 부의장

● 의장단명단(제12대)

(2003. 4. 1~2006.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의 장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부 의 장	김 홍 조	김홍조외과의원	054	452-4239	구미시 원평2동 158-8
	김 교 성	김내과의원	054	632-0999	영주시 영주4동 531-4

● 중앙(의협)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의협부회장	변 영 우	선린의원	054	743-2645	경주시 사정동 101-27
중앙이사	이 석 균	청십자의원	053	815-7077	경산시 중방동 538-3

● 중앙(의협)대의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정대의원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054	272-1919	포항시 북구 죽도 1동 41-7
	정 만 진	정만진소아과의원	054	332-7755	영천시 완산동 987-41
	안 길 룡	안외과의원	054	432-9999	김천시 남산동 16-5
	장 의 현	장의현비뇨기과의원	054	453-5424	구미시 원평1동 371-4
	오 세 진	오세진비뇨기과의원	054	241-6969	포항시 북구 죽도2동 53-21
	권 세 홍	권방사선과의원	054	855-8444	안동시 서부동 72-2
교 체 대 의 원	전 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054	247-7861	포항시 북구 죽도1동 103-1
	송 재 영	송재영외과의원	054	373-0111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78-60
	조 영 호	조정형외과의원	054	634-3375	영주시 영주2동 536-2

윤리위원회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위 원 장	신 은 식	신정형외과의원	054	247-3397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부위원장	유 동 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054	859-6737	안동시 동부동 152
위 원	정 만 진	정만진소아과의원	054	332-7755	영천시 완산동 987-41
	안 길 룡	안외과의원	054	432-9999	김천시 남산동 16-5
	김 지 홍	김지홍정형외과의원	054	277-75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8-1
	김 종 국	경북정형외과의원	054	452-1985	구미시 원평1동 1064-4
	손 병 욱	손병욱내과의원	053	815-7900	경산시 중방동 862-3
	권 세 홍	권방사선과의원	054	855-8444	안동시 서부동 72-2
간 사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회지편집위원회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위 원 장	정 만 진	정만진소아과의원	054	332-7755	영천시 완산동 987-41
위 원	김 재 왕	김재왕내과의원	054	856-7111	안동시 동부동 74
	김 광 만	김소아과권방사선과의원	054	221-4950	포항시 남구 지곡동 28B
	이 경 수	이경수내과의원	054	471-1674	구미시 황상동 280-9
	이 덕 영	하양중앙내과의원	053	856-4567	경산시 하양읍 금락2리 1-10

법률고문 및 세무고문

구 분	성 명	근 무 처	DDD	전 화	주 소
법률고문	김 인 수	김인수법률사무소	053	742-3100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4-1 성광빌딩 401호
	김 상 윤	김상윤법률사무소	054	246-0300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8-4
	정 연 경	정연경법률사무소	054	742-9222	경주시 동부동 141
	서 한 규	서한규법률사무소	054	437-7447	김천시 삼락동 1243
	김 태 계	화산합동법률사무소	054	859-0634	안동시 정하동 244-3
세무고문	주 영 일	세무사주영일사무소	054	743-4560	경주시 성동동 417-1

경상북도의사회 시 · 군 의사회장


오 세 진 포항회장


김 장 희 경주회장


박 경 욱 김천회장


김 재 왕 안동회장


장 의 현 구미회장


이 기 훈 영주회장


이 지 욱 영천회장


김 범 진 상주회장


박 승 구 문경회장


장 기 호 경산회장


김 교 준 군위회장


이 봉 우 의성회장


정 철 청송회장


류 수 영 영양회장


강 래 균 영덕회장


이 재 동 청도회장


백 두 현 고령회장


방 종 경 성주회장


김 영 조 칠곡회장


백 승 기 예천회장


전 우 진 봉화회장


김 신 일 울진회장

시·군의사회 회장명단

(2004. 3. 현재)

시군별	성 명	의 원 명	DDD	전 화	주 소	비 고
포 항 시	오 세 진	오세진비뇨기과의원	054	241-6969	포항시 북구 죽도2동 53-21	
경 주 시	김 장 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054	749-4382	경주시 동부동 113-10	
김 천 시	박 경 욱	박경욱내과의원	054	439-4551	김천시 평화동 245-129	
안 동 시	김 재 왕	김재왕내과의원	054	856-7111	안동시 동부동 74	
구 미 시	장 의 현	장의현비뇨기과의원	054	453-5424	구미시 원평1동 371-4	
영 주 시	이 기 훈	이기훈정형외과의원	054	637-5251	영주시 영주1동 550-4	
영 천 시	이 지 욱	이내과의원	054	333-5203	영천시 완산동 1069-1	
상 주 시	김 범 진	인제의원	054	541-7575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85-1	
문 경 시	박 승 구	박승구소아과의원	054	555-3023	문경시 점촌동 265-11	
경 산 시	장 기 호	현대연합의원	053	814-8071	경산시 정평동 222-83	
군 위 군	김 교 준	성누가의원	054	382-9911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390-2	
의 성 군	이 봉 우	의성경북의원	054	832-2177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738	
청 송 군	정 철	대구의원	054	873-1407	청송군 청송읍 월막2리 357-3	
영 양 군	류 수 영	영남의원	054	683-3465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232-1	
영 덕 군	강 래 균	강구외과의원	054	733-9587	영덕군 강구면 강구2리 335-3	
청 도 군	이 재 동	제일의원	054	371-2930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54-49	
고 령 군	백 두 현	고령백의원	054	954-3669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성 주 군	방 종 경	덕산의원	054	933-0644	성주군 성주읍 경산8리 713-4	
칠 곡 군	김 영 조	김영조내과의원	054	973-7933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1	
예 천 군	백 승 기	성누가의원	054	653-5559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98-7	
봉 화 군	전 우 진	동산의원	054	673-6388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36-35	
울 진 군	김 신 일	경북의원	054	787-7775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167-18	
울 릉 군		울릉보건의료원	054	791-2110	울릉군 울릉읍 도동 2리 176	



시·군별 병원명단

(2004. 3. 현재)

시군별	의 원 명	원장명	DDD	전 화	주 소
포항시	동국대포항병원	박 용 석	054	273-81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
	한동대선린병원	이 건 오	054	245-5000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포항성모병원	장 석 범	054	272-0151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1
	포항세명기독병원	한 동 선	054	275-0005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5
	세명재활의학과내과병원	조 종 훈	054	283-0815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2-2
	포항의료원	변 승 렬	054	247-0551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15
	사랑병원	문 충 배	054	277-33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5
	늘열린동산병원	박 영 대	054	262-077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96-1
	여성아이병원	윤 원 희	054	255-5000	포항시 북구 우현동 7B 5L
	포항삼성병원	양 정 호	053	292-9264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1-35
	포항여성병원	윤 철 희	054	274-77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0-5
경주시	동국대경주병원	이 규 춘	054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계명대경주동산병원	편 영 식	054	770-9500	경주시 서부동 147-2
	안강중앙병원	정 수 기	054	763-800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84-4
	현대병원	김 종 원	054	745-8118	경주시 성건동 211-4
김천시	김천의료원	송 달 효	054	432-8901	김천시 모암동 85
	김천신경정신병원	정 근 재	054	432-5040	김천시 응명동 957
	김천제일병원	강 병 직	054	420-9300	김천시 신음동 462-14
	신애정신병원	-	054	435-6009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632-1
안동시	안동병원	이 윤 호	054	821-1101	안동시 용상동 1592-31
	안동성소병원	박 승 국	054	857-2321	안동시 금곡동 177
	안동의료원	신 현 수	054	858-8951	안동시 북문동 470
	안동여성병원	이 윤 호	054	820-3101	안동시 용상동 1445-1
	류병원	류 동 근	054	851-100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2
	안동노인전문병원	김 민 성	054	859-3020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64
구미시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이 길 노	054	463-7151	구미시 공단동 250
	포천중문의대구미차병원	이 현 우	054	450-9700	구미시 형곡동 855
	고려병원	신 재 학	054	453-7575	구미시 원평동 1036-9
영주시	성누가병원	박 시 균	054	633-6011	영주시 영주2동 536-4
	영주기독병원	서 익 제	054	635-6161	영주시 영주1동 547-2

시군별	의 원 명	원장명	DDD	전 화	주 소
영천시	영대영천병원	김용진	054	338-9000	영천시 오수동 307
	마야정신병원	김경승	054	336-3311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236-5
상주시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김원기	054	534-3501	상주시 남성동 33-27
	상주성모병원	황정한	054	532-5001	상주시 냉림동 350-5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윤임중	054	550-7700	문경시 모전동 188
경산시	경상병원	정다출	053	811-7711	경산시 백천동 4-2
	경산노인전문병원	정다출	053	819-0782	경산시 상방동 242-3
	경산신동산병원	유국선	053	819-7000	경산시 중방동 848-4
	영신병원	허영수	053	857-9114	경산시 옥산동 793
	하양삼성병원	금종명	053	819-8600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57-3
군위군	군위삼성병원	이종택	054	383-3531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111-2
의성군	공생병원	김선영	054	834-3881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475-3
	성심병원	이동일	054	834-1048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8-11
	영남제일병원	김인기	054	861-911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3
	제남병원	송오달	054	832-2036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90-21
청송군	진보병원	-	054	874-7717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 66
	청송보건의료원	남시현	054	870-7100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54
영양군	영양병원	김득수	054	682-0727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00-1
영덕군	영덕아산병원	김연수	054	730-0151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133-3
	영덕제일병원	-	054	732-7717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22-2
청도군	청도대남병원	김세현	054	373-0606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00-1
고령군	고령영생병원	-	054	955-2661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 201-6
성주군	성주세강병원	김징균	054	933-2064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5
칠곡군	시몬정신병원	박용진	054	976-0402	칠곡군 왜관읍 금남2리 315-1
	왜관병원	-	054	971-1002	칠곡군 왜관읍 왜관10동 174-54
	혜원성모병원	김의원	054	979-7114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910-12
예천군	예천권병원	권규호	054	654-6611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60
봉화군	봉화해성병원	-	054	679-1234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426-6
울진군	울진보건의료원	지청현	054	783-1250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63-5
	울진의료원	장세국	054	785-7000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818
	울진중앙병원	지용광	054	787-1212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530-48
울릉군	울릉보건의료원	-	054	791-2110	울릉군 울릉읍 도동2리 176



경상북도의사회 종합병원 · 병원장

대학병원
(병원가나다순)



편 영 식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이 규 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박 용 석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이 길 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김 용 진
영남대학교
(영대영천병원)



이 현 우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이 건 오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병 원
(지역병원)



장 석 범
포항성모병원(의무원장)



한 동 선
포항세명기독병원



조 종 훈
세명재활의학과내과의원병원



변 승 열
포항의료원



박 영 대
늘열린동산병원(포항)



문 충 배
사랑병원(포항)



윤 원 희
여성아이병원(포항)



양 정 호
포항삼성병원



윤 철 희
포항여성병원



정 수 기
안강중앙병원(경주)



김 종 원
현대병원(경주)



송 달 효
김천의료원



정 근 재
김천신경정신병원



강 병 직
김천제일병원



이 윤 호
안동병원



박 승 국
안동성소병원



신 현 수
안동의료원



류 동 근
류병원(안동)



김 민 성
안동노인전문병원



신 재 학
구미고려병원



박 시 균
성누가병원(영주)



서 익 제
영주기독병원



김 경 승
마야정신병원(영천)



김 원 기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황 정 한
상주성모병원



윤 임 중
문경제일병원



정 다 출
경상병원(경산)



유 국 선
경산신동산병원(의무원장)



허 영 수
영신병원(경산)



금 종 명
하양삼성병원



이 종 택
군위삼성병원



김 선 영
공생병원(의성)



이 동 일
성심병원(의성)



김 인 기
영남제일병원(의성)



송 오 달
제남병원(의성)



남 시 현
청송보건의료원



김 득 수
영양병원



김 연 수
영덕아산병원



김 세 현
청도대남병원



김 징 균
성주세강병원



김 의 원
혜원성모병원(칠곡)



박 용 진
시몬정신병원(칠곡)



권 규 호
예천권병원



지 청 현
울진보건의료원



장 세 국
울진의료원



지 용 광
울진중앙병원

경상북도의사회 사무직원



박 재 영
경상북도 사무국장



권 순 길
경상북도



김 태 희
경상북도



김 두 중
포항시 사무장



안 규 미
포항시



이 지 형
경주시



윤 진 영
안동시



박 민 희
구미시



김 명 숙
영천시



최 보 화
경산시

구 분	직 책	성 명	전 화	휴 대 폰	주 소
경상북도의사회	사무국장	박 재 영	(053)941-7785	011-512-043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대 리	권 순 길	(053)941-7785	011-9365-7268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대 리	김 태 희	(053)941-7785	016-520-8200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포항시의사회	사 무 장	김 두 중	(054)281-0990	016-502-9786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서 무	안 규 미	(054)281-0990	011-9568-4129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경주시의사회	간 사	이 지 형	(054)774-9991	017-530-9992	경주시 서부동 255-31
안동시의사회	간 사	윤 진 영	(054)857-6911	011-9578-6406	안동시 북문동 470(안동의료원 내)
구미시의사회	간 사	박 민 희	(054)457-7646	011-9589-2280	구미시 원평동 534-8
영천시의사회	간 사	김 명 숙	(054)337-8022	016-9833-4209	영천시 창구동 1(영천문화원 2층)
경산시의사회	간 사	최 보 화	(053)812-0030	016-519-7658	경산시 중방동 538-18(열린약국 2층)



주산지의 가을물결

청송 주왕산은 유명한 국립공원이다.
그러나 내주왕의 인공호인 주산지는 최근에야 그 이름값이 올라 갔다.
해(日)가 주산지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면 물결도 춤을 추기 시작한다.
2001년 가을 어느 일요일, 아침해를 맞이하며 셔터를 눌렀다.



윤태권
윤소아과의원 · 안동
TEL 054-857-6510
E-mail lennyyoon@hanmail.net

시 Po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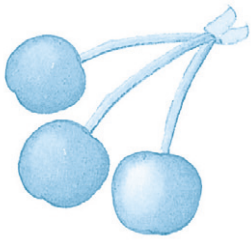
손장락
손의원 · 안동
TEL 054-859-6288

빨간열매 (사랑의 열매)

짙푸른 잎새 사이로
남몰래 아파하는 마음이 영글어
수줍게 내 비치니
쉬임없이 뛰는 가슴의 고동소리에
피보다 붉게 물 들어
산허리 외딴집
칠흙속 등불처럼 빛나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사랑을 찾아 날아 다니며
불을 지르는 끈 떨어진 초롱
내일이면 별똥별 되어
꽃불처럼 흩어져 사라질지라도
네 마음 불꽃이 되어 타오르니
저렇게도 붉게 빛나는가 보다

꿈을 찾아 가는 너를 그리고져
흰 종이에 찍은 붉은 점 하나
주위는 온통 검푸른 하늘이 된다.



시
Poem



성기태
성기태정형외과의원 · 구미
TEL 054-452-4080
E-mail ktsung4080
@yahoo.co.kr

山村에 산다

아침 저녁 밥 짓는 굴뚝 연기 보면서
나는 山村에 산다

봄여름 가을 피어나는 꽃들 보며
나는 山村에 산다

저녁엔 개 짖는 소리 새벽엔 닭 우는 소리 들으며
나는 山村에 산다

나뭇가지 오가며 지저귀는 산새소리 들으며
나는 山村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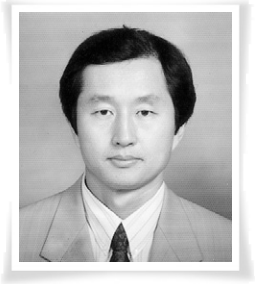
나를 줄이고 남을 위하는 베품의 美德 깨우치며
나는 山村에 산다

한없이 베푸는 자연에서 [줌]의 의미 깨달으며
나는 山村에 산다

이웃사랑 하는 奉仕의 心性 키우며
나는 山村에 산다.



시
Poem



김의홍
김의홍산부인과의원 · 구미
TEL 054-452-5388

말들의 마을 · 2

말썽꾸러기 말들이 집을 나갔다
말 많던 말들이 다 어디로 가 버렸다
말 없던 등 굽은 말들도
같이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하루 아침에 마을을 떠나 없어졌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갈 길은 멀고 해는 길지 않고
지금 이 곳은 다시 돌아 올 수 없고
서로서로를 뒤돌아 보지 않을텐데
달도 길지 않는데 그 많은 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그들은 아무 후회도 없이 떠나간 것일까
무심한 것들

마을 사람들은 선할 때도 악할 때도 있었다
말들은 아름다울 수도 더러울 수도 있었다
말들은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돌이켜 보면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말들이 그 때는 왜 그랬을까
그들은 그들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을까
고민하고 반성하고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꿈 속에서 왕자님이 타던 백마들
너도 나도 타던 못생긴 말들
그들은 기억상실이라는
세월의 약을 먹고 살았을까
그래, 말들의 삶에는 항상 죽음이 동반되었지
말들의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건 아니었을까

서로 사랑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어
펼쳐보니 그것은 회피였고 미움이었다
사랑의 탈을 쓴 서로의 증오였고 지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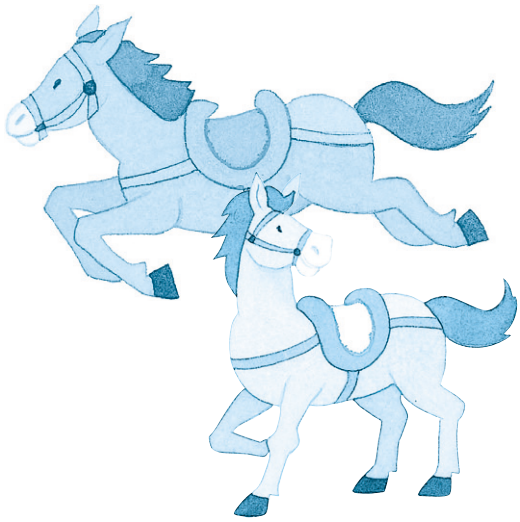
잃어버린 파랑새를 잡으러 떠난 말들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무엇을
찾으러 떠난 말들 불쌍한 말들
흐르는 강물처럼 허무한 물보라처럼
뜨고 지며 사라져간 것일까

되돌아 보니 밖에서 비친
그들은 말들이 아니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말이고 말이 곧 사람이었을까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 곳에 가는
예상 길목에서 열심히 살펴봐도
역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원래 있었던 마을로 되돌아 가봐도
이젠 아무 것도 없었다 이젠

자신만만해 하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렸다
그들도 떠난 말들을 따라간 것일까
한번 떠나간 말들도 사람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 우리 같이 있음은 길지않다
살아있을 때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시 Poem



안길룡
안외과의원 · 김천
TEL 054-432-9999
E-mail sj8211
@yahoo.co.kr

罪(죄 - 콜롬비아 화산폭발)

먼 이국의 화산이 폭발해서
한 도시를 묻어 버렸다.
그중 십삼세 한 소녀는
화산의 진흙재 속에서서
그것도
아버지와 오빠의 시체를 딛고서서
목까지 차오른 생사의 고비에서 서서
삼일간을 버티다 숨지며
엄마를 불렀다.
자신의 입장을 위해
남을 속이고 아부하고
자신의 안락을 위해
남에게 고통을 씌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슴속 깊은 양심을 팔고
얻은 致富(치부)로
짐승스런 탕아로 놀아나는
우리들의 더러운 죄로
그 진흙속에서
소녀는 죽었다.



고양이 오줌과 인골(人骨)분말



추성수
추이비인후과의원 · 포항
TEL 054-247-3709

어느새 45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다. 내가 이곳으로 전속되어 야간 개업을 시작한지도.

내가 개업하던 초창기에는 의료시설도 장비도 형편없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개원을 하려면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중고품을 사오거나 서울까지 가서 기구를 구입해야만 했다. 당시 국내에는 남북의료기가 유일한 의료기 제작 판매상이었는데, 여기서 만든 석션(suction)은 냉장고 모터를 이용하여 만들었기에 사용할 때면 마치 자동차소리 같이 요란하였고, 자동이라고 자랑하던 수술침대도 걸핏하면 피스톤이 빠져나가기 일 수였다.

내가 처음으로 개업하던 때에는 울진, 구룡포, 영천, 영덕 일대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한 의사는 나 혼자였었다. 그렇지만 환자 수는 하루에 20여 명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코성형이나 쌍꺼풀 수술비용이 5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에 몇 사람뿐이었고, 외래 진료비는 단돈 100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옛날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군대를 제대할 무렵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혼란한 사회상을 보면서 갈등도 있었고, 미국 유학의 기회도 있었으나 1962년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예편하여 본격적으로 개업에 몰두하였다. 환자수가 점점 늘어 하루에 300명까지 보았다. 이렇게 과로를 하다보니 탈진하여 종합병원에 입원까지 한 경험도 있다.

당시 겨울에는 법정 전염병인 디프테리아가 만연하였다. 특히 소아에게 많이 오는 후두 디프테리아는 위험한 병으로 비교적 가벼운 환자는 직접 치료하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심한 경우는 대구로 후송하였다. 이런 병으로 많은 어린이 환자들이 사망하는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는데 이제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사라진 병이 되어버렸다.

포항은 해안 도시라서 옛날에 만성 중이염 환자가 유난히 많았다. 바다에서 생업을 하는 바닷가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었다. 그래서 병이 나면 굿을 하기도 하고, 특히 만성 중이염에는 고양이 오줌이 특효라는 이상한 민간요법을 믿고 고양이 오줌을 귀에 넣고 오는 환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항생제의 발달로 그런 허무맹랑한 민간요법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만성 중이염 환자를 진료하려고 귀를 들여다보

니 외이도(外耳道)에 흰색 가루가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사람 뼈 즉 인골(人骨)가루라는 것이었다. 만성 중이염이 잘 치료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던 차에 어떤 사람이 인골 가루를 넣으면 치료가 잘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 하얀 가루가 인골이라는 말을 들으니 오싹한 공포감이 엄습하였다. 사체 보기를 애인 보듯 하면서 해부학을 공부한 의사인 내가 왜 그렇게 불길하고 기분이 나빠졌는지 알 수가 없다. 꿈에 그 백색 가루의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5일 정도 치료하고나니 환자 본인이 다 치료된 것 같다고 하여 더 이상 내원을 권하지 않고 치료를 끝내 버렸다.

옛날 40여 년 전 못 살고 못 배웠을 시절에 중이염을 고양이 오줌으로 치료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된다지만 21세기, 화성을 탐사하고, 심장을 이식하며, 귀속에 인공 달팽이관까지 이식하는 문명사회에 어인 일로 갑자기 사람의 뼈 가루 치료가 등장했단 말인가?

얼마나 중이염으로 고생했으면 그런 황당한 치료에 현혹되었을까 하는 한 가닥 동정심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골을 구했으며,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귀속에 넣을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양이 오줌은 고양이를 양철 통 같은 곳에 넣어두고, 밖에서 마구 두들기면 놀라서 오줌을 싼다지만, 인골은 어떻게 구했을까?

화장장에서 얻어왔을까? 아니면 무덤을 파헤쳤단 말인가? 아니면 뼈를 다루는 병원에서 얻어 왔을까? 자신의 뼈를 긁어서 가루를 만들었을 턱은 없지 않겠는가?

지금도 암을 비롯한 불치병을 앓는 마음 약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기꾼 같은 사이비 의료업자들이 횡행하고 있다.

고양이 오줌도, 인골도, 기상천외한 식이요법도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교육하는데 의료인들이 앞장서야겠다.



사진속에 담긴 추억



전경홍
동산가정의학과의원 · 문경
한국문인회회원
한국추천작가회원
TEL 054-553-0021
E-mail dongsanhome
@yahoo.co.kr

나이가 들어서인지 환자진료가 끝날 때쯤이면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온종일 환자들의 불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질병의 정도가 심하면 같이 고민하고 위로한다. 검사결과 및 예측 치료경과를 설명하며 의사의 사명을 다하자면 어느 날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뿐 아니라 다른 직업처럼 자유로운 시간이 없기에 오랜만에 걸려오는 친구의 전화는 반갑고 생기가 저절로 나는 것이다.

"원장님! 서울 친구분 전화가 왔습니다."

"나 중학교 동기 ○○○알지? 친구야! 나도 사업일선에서 물러섰네. 한가하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어. 의사는 정년이 없지 않는가? 자넨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더 수고하는 것이 값진 노년이겠지. 그런데 갑자기 체중이 6㎏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하는데 큰 병인가 걱정되어 병원에도 못 가봤어. 오랜만에 고향방문도 하고 친구에게 건강상담도 하려고 갈 것이니 만나주겠지. 참 ○○○알지. 평생 병원신세 안 진다던 친구가 일주일전에 갑자기 죽었어. 참 인생무상이야. 옛날 경주 수학여행 사진에서 원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네. 세월이 흘렀으니 많이 변했겠지. 나는 자네가 못 알아 볼 것 같네. 사진 좀 미리 봐 두게나. 친구."

전화를 끊고 서재로 올라가 사진첩을 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경주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 날은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오후 3시경에 국방색으로 포장을 한 군용트럭 두 대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운동장으로 달려들어왔다. 쌀, 보리, 알밤, 땅콩, 대추 등 간식보따리를 들고 오들오들 떨며 늦게 오는 친구들을 기다렸다.

교장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환송하는 눈꽃송이가 날리고 있으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시면서 처칠이 젊은이들에게 준 명언이니 명심하라며 강한 의지의 사람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늦기는 하였으나 추위를 두려워 말고 수학여행에서 잘 보고 배워라 하셨다. 이른봄부터 준비한 여행은 동계수학여행으로 실행되었다.

6 · 25사변, 휴전직후이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다 가지 못함을 선생님들은 안타까워 하셨다. 계속해서 눈발이 펄펄 날려도 우리들의 마음은 트럭보다 먼저 경주로 달려가고 있었다. 차는 포장에 완전히 싸여 우리의 시야를 가렸고 방향도 알 수 없었다. 바닥에는 가마니가 깔려 있었지만 보온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차안은 아이들의 소리로 시끄러웠다. 누군가가 시작하였는지 교가를 제창하였다.

선생님께서 "애들아, 이 추위에 여행을 가는데도 그렇게 좋으냐? 그래, 추위도 참는 연습이 필요하다. 수학여행은 말로 듣기만 하던 것을 눈으로 직접보고 배울 수가 있으니 유식한 말로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한단다."

우리들 모두 "예"라고 소리쳤다. 한참을 가는데 소란했던 포장 속은 조용해지면서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여기 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 왔다. 우리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면서 추위와 싸웠다.

얼마를 갔는지 트럭이 섰다. 포장이 열리면서 쉬어 가자고 방한복차림의 운전병이 소리쳤다. 캄캄한 들판인데 왜관철교 밑이라 했다. 눈보라는 어느새 그쳤지만 흰 눈은 강변을 뒤덮었다. 차 헤드라이트 빛을 이용해 나뭇가지, 풀잎들을 주워 불을 지폈다. 우리들은 얼어붙은 몸을 녹이며 한 줄로 서서 소변을 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그러나 열을 빼앗긴 우리 모두는 부들부들 떨었다.



미끄러운 심야운행은 위험하여 갈 수 없다면서 도중 길옆 여관에 들어갔다. 그러나 땔감이 없어 숙박 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냉방이라도 추운 바람을 피하게 해달라며 방 4개를 얻었다. 밤 9시경에 가져온 곡식을 모아 저녁을 지었다. 친구들의 반찬은 막 된장, 고추장, 콩조림, 멸치조림 등이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어머님은 그때 형편에는 잘먹지 못하는 삶은 달걀과 쇠고기 장조림을 작은 도시락에 싸주셨다. 쇠고기장조림은 선생님들 방에 갔다드렸다. 선생님들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네가 나보다 더 낫구나." 하며 칭찬해주셨다.

한방에 30여명씩 옷을 입은 채 누웠다. 얼음장같은 방바닥에서 찬바람이 새어 나왔다. 방울쌈지가 바짝 오므려들었다. 물론 모두의 얼굴도 닭살이 되었지만 돌아가면서 옛날이야기나 장기자랑, 노래를 부르면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그렇게도 원하던 경주에 가보니 산천에 눈이 산재해 있으며 쌀쌀한 찬바람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신라시대 때 별을 관찰했다는 첨성대에서 불국사까지 관광을 하였다.

사적지마다 추워서인지 관광객들이 거의 없었다. 군용트럭에 오르내리며 관광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이상하게 보는 듯 하였다. 국어, 역사, 미술 선생님들께서 추위를 무릎 쓰고 차례를 바꾸어가며 무영탑에 얽힌 이야기, 김유신 장군이 애마의 목을 자른 용단, 화랑오계, 처용 유례, 신라삼국통일의 위업 등 열정으로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여겼다. 하루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날 석굴암에 일찍 가기 위하여 토함산 중턱에 위치한 토함산 여관을 찾았다.

새벽 5시가 되어 눈 덮인 토함산의 미끄러운 언덕길을 올랐다.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에 얼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 힘겹게 석굴암에 도착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몸이 오싹해져 친구들끼리 서로 껴안고 동쪽을 바라보았다. 기다리던 태양이 수평선에 찬란하고 웅장하게 떠올랐다. 그 넓은 동해전부를 위엄 있게 물들이는 것이 장관이었다.

50년이 지난 사진이지만 우리들의 정신자세를 헤아릴 수 있었다. 출발 할 때는 방한복 차림이었지만 기념사진에는 모두가 교모, 교복차림으로 용모가 단정하다. 그 당시는 모두가 모범학생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학교에는 학생지도교사와 규율부가 역할을 다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실력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사랑을 받았고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특수반에서 보충교육을 하였다. 왕따가 없고 교내 폭력도 없으며 주먹을 휘두르면 학교교칙에 의해서 조치되었다. 우리의 학창시절은 열심히 공부하였고 선생님들은 전인교육자들이었다. 그래서 다복한 학생시절이었다. 경주수학여행은 신라 천년의 빛나는 문화역사의 배움의 장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의 값진 교육이었다.

놀 때는 짓궂은 친구 같고 성적통지표를 보면 꾸중하던 형이 라이카 카메라를 빌려주었다. 그래서 수학여행에서 유일한 학생카메라맨이라 사진사 아저씨가 바쁠 때는 친구들 사진을 내가 다 찍었다. 첨성대, 다보탑, 불국사 등은 잘 찍었는데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는 사진이 그 결과였다. 망신스러워 그 사진을 친구들에게 주지 못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달라는 친구들에게 궁색한 변명을 했다. 친구들이 "카메라는 고급품인데 기술이 백지로구나!" "미안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창피한 생각이 남아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 같은 기록사진을 가지지 말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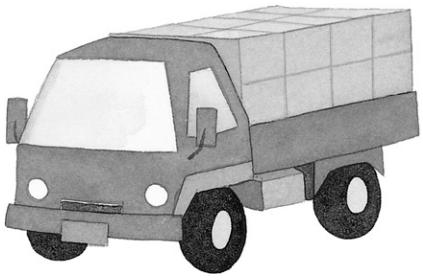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고생스러운 수학여행 때의 일들이 아름다운 활동사진으로 추억된다.

요사이 중 · 고등학교 수행여행은 봄, 가을로 고급 관광버스를 타고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를 이용하고, 비행기로 제주도까지 간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 어학연수까지 가지 않는가!

요즘 학생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가출하거나 투신자살을 한다. 과잉보호로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거친 눈보라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비교가 된다고 할까?

그때 인내심을 가졌던 사람들로 우리나라 근대화, 현대화의 주역들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나와 동대의 사람들은 보릿고개의 설음과 6 · 25동란 등 근대사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다.

옛 추억을 함께 가진 친구에게 예상되는 끔찍한 질병의 병명은 지워버리고 벗이 오면 반겨 줄 것이다. 건강의 적신호로 불안, 초조해하는 친구를 위로하며 의사로서 그의 건강회복을 위해 좋은 상담자가 되리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청백리(淸白吏)

인간의 욕심은 본능이기에 이성으로 자제하고 심성을 바르게 갖도록 교육을 해야만 한다. 공직자와 정치가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명예가 추락되고 정치생명이 종말이 되고 신체가 구금되는 현실에서 청백리(淸白吏)의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자기자신이 보호되지 않겠는가.

내가 속해 있는 서안동로타리클럽과 순천승평로타리클럽이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환하는 선물로 팔마도(八馬圖) 그림을 받았다.

고려 충렬왕(1275~1308) 때 이 곳 승평(昇平) 부사(府史) 최석(崔碩)이 선정을 베풀다가 내직(內職)으로 전임하게 되자 당시의 관례대로 순천부민들이 말 8마리를 헌납하였다.

최석은 이 같은 관례를 폐습이라 생각하고 서울(개성)에 도착하여 도중에 낳은 새끼 말 1마리까지 합해 9마리를 되돌려 보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때까지 내려오던 헌마(獻馬) 폐습이 없어지게 되었다.

부민들이 그 덕을 칭송하고 그의 청렴한 뜻을 기리고자 1308년(충렬왕34)에 비석을 세우고 팔마비(八馬碑)라 이름 붙였다. 이것이 오늘 날까지 순천지역에 널리 알려져 온 유래이다.

조선조 연산군때 대사간(大司諫), 대사성(大司成)을 지낸 김계행(金係行)(1431~1517) 경북 안동의 길안면 묵계리에서 87세에 운명하면서 "청백(淸白)을 가법으로 이어가고 공근(恭謹)을 대대로 지켜가며, 효우(孝友)와 돈목(敦睦)하라. 교만(驕慢)이나 경박(輕薄)으로 가성(家聲)을 떨어 뜨리지 말라." 하셨고 그 유훈으로 "오가무보물(吾家無寶物) 보물유청백(寶物唯淸白)" 우리집의 오직 보물은 청백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백당(寶白堂)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의 인물로 변영태(卞榮泰)(1892~1969) 이승만 대통령때 제3대 외무부장관(1951~1955), 제5대 국무총리(1954~1954)를 역임했는데 1954년 제네바 정치협상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대한민국 주권하의 통일 등 15개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조가 굳었고 외국에 나들이 할 때 여비를 남겨서 돌아와 국고에 반납했다는 인물이다. 1956년 관직에서 물러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수 등 후진 양성에 진력했다.

청백리 똥구멍은 송곳부리 같다고 했는데 노구를 이끌고 각 학교를 다니면서 아령운동 시범을 보이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때(1960년) 68세의 노인이 팬티만 입고 10파운드 아령으로 운동장에서 동작을 보이면서 건강관리에 아령이 자기에게는 정말 좋았다고, 외국에 나갈때도 아령을 갖고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였다.

당관지법(當官之法), 유유삼사(唯有三事), 일왈청(一曰淸), 일왈신(一曰愼), 일왈근(一曰勤), 지차삼자(知此三者), 지소이지신(知所而持身) 벼슬아치의 법도에는 오직 세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는 맑은 것이요, 하나는 삼가하는 것이요, 하나는 부지런한 것이다. 이 세가지를 알면 아는 바가 곧 자기 몸을 지탱하는 것이다.

정말로 죄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것이요, 남을 잘되게 하는 삶이다.



최유근
최유근안과의원 · 안동
TEL 054-854-5775
E-mail cyg4112@hanmail.net

계류 낚시를 배워보자!

계류 낚시란 강의 지류나 개울, 계곡의 비교적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른 하천에서 하는 낚시로 프라이낚시, 루어낚시, 베이트낚시 등이 있고 대상어종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요즈음 케이블 TV의 낚시 채널을 보면 프라이와 루어 낚시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 별로 생소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프라이 낚시는 전용대와 릴 그리고 라인이 필요하며 메이프라이등의 곤충모양의 인조미끼를 사용하여 주로 송어와 산천어를 대상어종으로 하며 낚시터가 한정되어 있다.

루어낚시는 릴대와 릴 그리고 스피너, 웜, 미노우등 벌레나 물고기 혹은 곤충모양의 인조미끼를 사용하며 꺽지, 쏘가리, 배스, 강준치 등이 주 대상 어종이다. 저수지에서는 가물치 낚시도 할 수 있다.

베이트 낚시는 생미끼를 사용하며 별다른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니 초보자에게 권할 만 하다.

대상어종은 주로 피리나 갈겨니등 흔히 볼 수 있는 어종으로 여름철에는 씨알이 커서 손맛도 좋고 흔인색을 띠고 있어 아름답기도 하다.

장소와 미끼에 따라 송어, 산천어, 꺽지등도 생미끼로 낚을 수 있다.

낚시 장비로는 2칸 반에서 3칸반 정도의 민물대에 1.5호 원줄을 매고 도래를 달고 길이 30㎝정도의 0.8호목줄에 3~4호 바늘과 도래 아래쪽에 좁쌀 봉돌하나를 매단다.

찌는 조그만 자립찌(밑둥에 편납을 감아 현장에서 만든다), 수심은 30~100㎝ 정도로 하고 장소에 따라 조정한다.

낚시 방법은 계류의 상류 쪽으로 낚시를 던지고 물의 흐름에 따라 찌가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찌가 물속으로 사라 질때 가볍게 챔질을 하면된다.

미끼로는 지렁이, 새우살, 물벌레(강도래 유충), 다슬기 속살등을 쓸 수 있지만 지렁이가 구하기 쉽고 편하다.

피리나 갈겨니는 낙동강 수계에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고 형산강과 오십천지류에도 많다.

초여름부터 초겨울까지 언제나 낚시가 가능하며 잡은 고기로는 라면을 끓인 때 몇 마리 넣거나 튀김을 하여 소주 한잔 걸치면 그 맛이 요즈음 말로 죽인다.

휴가철 가족과 함께 강가나 계곡에 피서를 가면 시원한 계류에 발을 담그고 낚시를 즐길 수도 있고 한가한 일요일이나 공휴일엔 친구 한두명과 버너, 코펠, 라면, 튀김 기름과 소주 한두병 준비하여 계류낚시를 떠나보자.



윤융삼
윤내과의원 · 포항
TEL 054-273-8788
E-mail dryoong@hitel.net

산악회 그리고 회



전 민
전민신경정신과의원 · 포항
TEL 054-247-7861
E-mail med828@hotmail.com

산악회 그리고 회? 제목이 좀 알송달송한데, 그 사연을 보면 멍청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2002년 9월경인가 포항에 사는 의사들 중에 산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서 산악회를 만든다기에 평소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의사회 일이기도 하여 이원기 의사회 회장님을 모시고 참석을 하였다. 그 자리에는 최호섭 선배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저녁을 겸하여 소주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포항시의사산악회가 만들어지고 나는 졸지에 또 총무자리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포항시 등산학교 교장 선생님인 최호섭 선배께서 회장이 되신 것은 물론이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날 정기산행을 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당장 산행을 하기로 했다. 박주성 선배(등산 9단)의 증언에 따르면 10여년 전에 산악회를 만들어서 몇 차례 등산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적게 나와 흐지부지 된 적이 있단다. 골프 치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일요일 산에 올라 갈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가고는 싶어도 혹시 뒤쳐져서 헤메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 못 가는 하체가 부실한 사람들도 있으니, 매번 버스를 대절해서 가야하는 의사산악회 운영이 만만치가 않을게 뻔하다.

어쨌든 첫 창립산행을 하기로 한 2002년 10월 20일, 17명(가족포함)이라는 제법 그럴듯한 인원이 충북 단양에 있는 월악산의 제비봉(710m)을 올랐다. 산행 후 소주를 곁들인 돼지갈비로 첫 산행을 모두들 자축하였으니 이렇게 하여 시작 된 포항시의사산악회는 이럭저럭 매월 한번씩 산에 올라가던 중, 지난(2003년) 5월에 첫 번째 회 사건이 터졌다.

첫 번째 회 사건

전국의사산악대회, 이 날은 1년에 한번씩 산에 올라가는 전국의 의사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등산을 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도 이제 산악회가 있으니 단체로 참가를 하기로 했다. 거기다가 참가비 일체를 경북의사회에서 부담을 하니, 한 달 정기산행 경비가 고스란히 굳어지게 생겼으니, 그게 어딘가? 산행지는 경북 영주 소백산(1421m), 만만찮은 높이라서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면밀한 공작을 벌여 여러 사람들을 꼬드겨 놓았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산행당일 아침부터 억수

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전에 공들인 보람도 없이 참석인원이 대폭 줄어 들까봐 아침부터 휴대폰에 열이 화끈 화끈 날 정도로 전화를 돌려 재꼈다. 예상보다는 줄어들었으나 그래도 평소보다 많은 26명이라는 인원이 버스를 타고 소백산을 향해 출발을 했다.

아침부터 사람 불러모으느라고 허둥대다 보니, 내 배낭을 승용차에 두고 그냥 왔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아 차렸다.

소백산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의사들이 모여 있었다. 웬만한 비는 산행에 별로 지장을 주지 않지만 억수같이 계속 퍼붓는 빗줄기 속에서 국망봉 등산은 도저히 무리였다. 모두들 대충 산행을 마치고 풍기읍 내의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뒤죽박죽 덜덜 떨면서 식사를 하고, 뒤죽박죽 개판이 된 총회를 마치는 둥 마는 둥, 포항에서 준비해 온 회를 서울팀, 대구팀, 버스에 실어주고 포항으로 출발을 하려는데, 포항 가면서 먹으려고 소주 안주 감으로 따로 버스 밑바닥에 숨겨둔 회 한 박스가 온데 간 데가 없어진 것이었다. 온 버스 안을 뒤져보아도 회 박스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들 오징어 땅콩 안주로 소주를 먹으면서 계속 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이 궁금증은 포항에 도착해서야 풀렸다. 내 차 뒤 트렁크를 여는 순간 버스 안에 있어야 할 회 한 박스가 거기에 얌전히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아침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승용차 뒷자리에 실린 회 박스들은 다 내렸는데, 차 트렁



2004년 3월 28일. 포항시의사산악회에서 팔공산 등반.

크에 실려 있던 회 한 박스를 배낭과 함께 감쪽 같이 잊어버린 것이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아이구 이제 총무도 못해 먹겠다. 이 일을 어쩐다"

나는 그 뒤 1주일간 그 회 다 먹어 치우느라고 매일 소주를 마셔야 했다.

그 뒤 대구에서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을 만났는데, 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때 서울 올라가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고마워했다.

"우리 회원들은 회 구경도 못했는데...."

두 번째 회 사건

때는 단풍이 무르익기 시작한 작년(2003년) 10월 넷째 일요일, 이 날은 대전 근교에 있는 계룡산에서 대한의사산악회 신구 집행부 인수인계가 있는 날이어서 12차 정기산행을 계룡산에서 개최하여, 최호섭 회장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로 했다. 그래서 또 회를 준비했다. 거기다가 이 날은 특별히 포항에 있는 신세계산부인과의원에서 단체로 직원들(간호조무사)이 참가를 하였다. 출발부터 버스 안은 생기 발랄한 아가씨들의 웃음소리와 노래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이윽고 도착한 계룡산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어서 등산로는 마치 명절 고속도로를 연상케 할만큼 정체가 심했다.

산 중턱에 있는 오누이탑에서 서울팀과 만나기로 사전 약속이 되었지만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서로가 뭔가가 끌리는 것이 있는 듯이 우리는 오누이탑 근처에서 서울팀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점심 도시락을 펼쳤다. 가지고 온 회 한 박스를 허물어서 안주 삼아 소주 한잔씩 나누면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팀과 신세계산부인과 직원들은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고, 우리들은 정상을 거쳐서 하산을 했다.

동학사 입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집행부 인수인계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섭섭한 마음에 버스 안에 남겨 둔 회 한 박스를 서울팀에게 주기로 하고 서울팀 회장, 총무와 함께 우리 버스로 돌아와 보니 버스 안에서는 이미 잔치가 벌어져 있었다. 어떻게 찾았는지 회 한 박스가 허물어져서 아가씨들 입 속으로 정신없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거 서울팀 줘야 하는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기다. 어떻게 하겠는가? 서울 회장님에게 백배 사죄를 하고 내년 산행에 꼭 맛있는 회를 대접하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수밖에.....

그러나 돌아오는 버스길, 이 회를 안주 삼아 마신 소주에 흥이 오른 아가씨들의 발랄한 재롱에 우리는 포항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왔다. 누구 입에 들어간들 어떤가.....그저 즐거우면 되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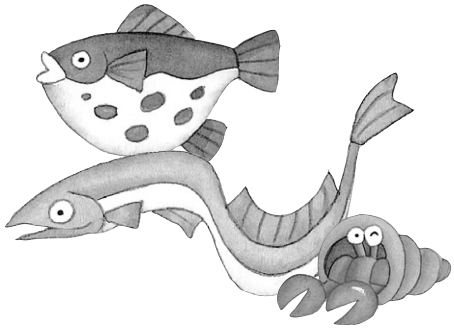
작년(2003년) 12월로 14차 산행을 마치고 갑신년 새해 들어서 다시 산행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회를 몇 차례 산에 가져 가야할 일이 생길 것이다. 가져 갈 때마다 말썽(?)을 일으킨 회.....

올해는 어떤 말썽을 또 일으킬지 모르지만 동해 바닷가의 싱싱한 회를 산을 찾은 다른 지

역의 회원들에게 맛을 보인 것, 이 또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건강도 챙기고, 회도 먹고, 산악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2003년 포항시의산악회 산행일지 및 2004년 산행계획

●2003년 산행일지

차수	일 시	산 행 지	비 고
1	2002. 10. 20(일)	충북 단양 제비봉(710m)	비/흐림, 버스, 창립기념등반, 임원선출, 년회비제, 석식
2	2002. 11. 24(일)	경남 거창 월여산(862m)	맑음, 버스, 호세비산악회와 합동산행, 가조온천 목욕
3	2002. 12. 22(일)	울진 백암산(1,004m)	비/눈, 버스, 눈산행, 백암온천 목욕
4	2003. 1. 26(일)	청하 천령산(775m)	흐림/비, 봉고, 눈산행, 석식(찬조)
5	2003. 2. 23(일)	봉화 청량산(870m)	비/눈, 버스, 도립공원, 눈산행, 청량정사 전통찻집
6	2003. 3. 23(일)	경남 합천 미숭산(757m)	맑음, 버스, 진달래꽃, 이원기회장 고향
7	2003. 5. 25(일)	영주 소백산 국망봉(1,421m)	비, 버스, 대한의사산악회, 경북의사가족산악회
8	2003. 6. 22(일)	거창 위천 금원산(1,352m)	맑음, 버스, 일일회원모집, 목욕, 석식(찬조)
9	2003. 7. 27(일)	포항 두마 면봉산(1,113m)	맑음, 승용차, 휴가철
10	2003. 8. 24(일)	청송 주왕산 가메봉(822m)	맑음, 버스, 포항시의사회원산악회,야유회, 석식
11	2003. 9. 28(일)	창도 운문 운문산(1,188m)	맑음, 버스, 하산주, 가지산온천 목욕, 석식
12	2003. 10. 26(일)	충남 계룡산(845m)	맑음, 버스, 단풍, 대한의사산악회인수인계, 목욕,석식(대의)
13	2003. 11. 23(일)	경남 안의 황석산(1,190m)	맑음, 버스, 억새, 석식(최호섭회장 근무지이전)
14	2003. 12. 28(일)	울진 백암산(1,004m)	맑음, 버스, 총회 및 송년회

●2004년 산행계획

차수	일 시	산 행 지	비 고
15	2004. 1. 18(일)	영덕 칠보산(810m)	시산제
16	2004. 2. 29(일)	울진 응봉산(998.5m)	호세비 산악회와 합동산행, 덕구온천-정상-벽산콘도
17	2004. 3. 28(일)	대구 · 영천 팔공산(1,193m)	경북의사회 합동산행 예정
18	2004. 4. 25(일)	대구 · 청도 비슬산(1,083m)	호세비 산악회와 합동산행, 진달래
19	2004. 5. 16(일)	김천 · 영동 황악산(1,111m)	대한의사산악회 합동산행 예정
20	2004. 6. 27(일)	경남 거창 의상봉(1,045m)	호세비 산악회와 합동산행
21	2004. 7. 25(일)	문경 가은 대야산(930m)	계곡, 왕건
22	2004. 8. 22(일)	충북 단양 옥순봉 · 구담봉(330m)	호세비 산악회와 합동산행
23	2004. 9. 19(일)	보은 · 상주 속리산(1,058m)	국립공원
24	2004. 10. 24(일)	충북 제천 동산(896m)	호세비산악회와 합동산행
25	2004. 11. 28(일)	경남 밀양 사자평(1,189m)	호세비산악회와 합동산행
26	2004. 12. 26(일)	울진 백암산(1,004m)	설경, 온천

다시 5월의 교정을 꿈꾸며

2004 홈커밍 행사를 앞두고



권세홍
권방사선과의원 · 안동
TEL 054-855-8444
E-mail 3hong@hanmir.com

금년으로 대학을 졸업한 지 25년이 되었다. 모교의 오랜 전통에 따라 졸업 25주년을 맞은 우리 동기들은 오는 5월에 모교를 찾아 홈커밍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이젠 듬성듬성한 반백의 머리칼과 굵어진 허리를 추스르며 다들 5월에 있을 잔치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들떠 있을테고,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동기들은 이제부터 몸과 마음이 분주해질 때이다.

그런데 왜 하필 25주년일까? 이는 서구식 시간주기 개념이 분명한 듯한데 생각해볼수록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듯 하다. 우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5년이면 어느새 '지천명'이라는 50의 나이가 되어있고,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난날을 돌아보노라면 그 절반의 시점에 지난 학창시절의 끝자락이 보일 것이다. 또한 이때쯤 되면 당시 본인들의 나이만한 2세들이 한 둘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세대간인 25년을 주기로 옛 학우들과 재상봉하고 모교의 은혜를 되새기는 홈커밍행사를 가지는가 보다.

필자 동기들은 '10월 유신'이 선포되고(1972. 10. 17) 그 이듬해인 1973년 봄에 대학에 입학하여 공교롭게도 박대통령이 궁정동에서 비명에 간 1979년 2월에 졸업하였다. 이 시기는 폭력적이고 왜곡된 '유신체제'하의 정치적 암흑기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산업화를 이루어가던 시기였다. 100억불 수출달성, 1000불 소득, 마이카 시대라는 분홍빛 청사진의 그늘에서 젊은이들은 이유 있는 방황과 좌절의 한 때를 보내기도 했다.

가업을 잇거나, 분명한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진 소수를 제외하고는 당시 대다수의 의과대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적인 꿈이나 직업적 소양과 적성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부모나 주위의 권유에 따라 덜컥 의사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 열차에 올라 탄 순간부터 우리들의 청춘은 고귀한 이상과 목표로 포장된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 스무 살 언저리의 꿈과 낭만, 뜨거운 가슴을 잠시 선반 위에 올려놓아야 했다.

근엄하나 열정적인 우리의 스승들로부터 마치 L-tube를 통해 음식을 투입하듯 대량의 의학지식을 배우는 동안, 작은 골편 하나에도 많은 구멍과 돌기가 있으며 그 낯선 라틴어식 이름들은 우리들의 말랑말랑한 뇌신경에 무조건적 암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 날부터 조금씩 지쳐갔으며 잠깐씩 심한 회의에 빠지기도 하면서 학년 말에는 한 명 두 명 교실에서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생겨났다.



의예과 수료기념사진(1975.2.26, 산격동 경북대캠퍼스 교양과정부 건물 앞)
앞줄에 당시 김영희 총장을 비롯한 교양과정부 교수들을 모시고 그 다음줄에 필자를 비롯한 권기영(계명의대 내과), 정성광(모교 비뇨기과) 동기의 모습이 보이고, 맨 뒷쪽에 김장희(경주시의사회장), 유영구(대구 동구의사회장), 박경욱(김천시의사회장) 동기의 모습도 보인다.

그 와중에도 더러는 바깥 사회의 정치상황과 적극적인 정서적 교통을 하면서 시대와 역사의 아픔을 삭이기도 하고, 더러는 나름대로 독서를 통해 자의식에 찬 관념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 대다수는 외풍이 차단된 의과대학이라는 탈이념적 공간에 유폐되어 의식은 차츰 포르말린 용액 속의 표본처럼 굳어져 갔다.

그렇다 해서 장발, 청바지, 통기타로 표상되던 70년대의 청년문화가 의과대학이라고 비껴가지는 않았다. 시험과 시험 사이 삼삼오오 향촌동에서 남산동, 국세청 뒤 학사주점 골목을 헤매 다니면서 명정의 세계에서 비틀거리다 통금위반으로 대명동 즉결재판소 신세를 지기도 하고, 더러는 자폐적이고 몽환적인 음악세계에 빠져 「하이마트」, 「녹향」등 어두컴컴한 음악감상실에 죽치기도 하였다. 개중에 형편이 좀 낫고 끼가 충만한 친구들은 한달거리로 옆의 파트너를 바꿔가며 돈환식 행각을 벌이면서 그 힘들고 지루했던 청춘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눈 아래 시퍼렇게 소용돌이 치던 '유급의 물살', 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감행했던 용감한 청춘들이여, 그대들 지금 다 무사한가? 그동안 무얼 얻었고 무얼 잃으며 살아왔는가?

이제 곧 개나리와 진달래에 이어 벚꽃이 구름처럼 피었다 지고나서, 바람결에 아카시아 진한 향내가 코 끝에 묻어오는 5월이면 우리는 모교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집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삐죽이 사립문을 열어둔 늙은 어버이처럼, 이젠 노쇠한 지방대학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의 모교가 사방 담장도 허물어버린 채 우릴 기다리고 있다.

5월의 교정이 깔아놓은 초록의 카펫 위로 마누라를 앞세워 지난 추억을 밟고, 교문을 들어선 우리는 잠시 히포 정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는 70년 세월을 견딘 붉은 벽돌 건물을 마음 든든하게 올려다 보다가 문득 한분 두분 우리 곁을 떠나신 스승들과 먼저 간 동기들을 떠올리고는 가슴 한 켠이 아릿해질 것이다.

그 옛날 해부실습을 마치고 어스름에 붉은 벽돌 건물을 돌아 나오면 따사로운 저녁햇살과 함께 길게 누운 나무 그림자가 우리 힘들고 지친 청춘들과 동행해주던 5월의 교정, 그곳에는 더욱 키가 크고 무성해진 나무들이 멀찍멀찍 떨어져 있어도 변치않고 수십 년 세월을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자신이 모교를 비추는 햇살이요, 그를 감싸주는 그늘이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과 졸업여행사진(1978.6. 남해대교에서)
당시 윤석하 교수님(신경정신과)을 모시고 남해대교에서 촬영.
이젠 만나볼 수 없는 얼굴들도 보인다. 가만히 허공에 불러보는 이름들. 본수야, 봉환아...

주식투자, 지금도 늦지 않다.



박경철
신세계연합의원 · 안동
TEL 054-853-5990

현 매일경제신문, MBN 전문위원
현 (주) 크레듀 펀드매니져 양성부분 교수
현 대우, 대신, 현대, 서울증권, 한국, 현대투자신탁 연수원 교수
현 (주) 팍스넷 고문, (주) 씽크풀 이사
현-파생상품 거래위원회 증권부분 자문위원

앞으로 당분간 주식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즉 지금 주식투자가 부동산이나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유용한 재테크 수단일까? 그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대개 재테크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외람되지만 특히, 보통 사람들의 재테크는 지극히 편협하다. 주식투자자는 오르던 내리던 죽어라고 주식투자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고, 부동산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상가, 주택, 토지를 넘나들며 재테크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채권을 하는 사람들은 투기채부터 초우량 국채까지 온종일 채권투자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큰손, 약간 우아하게 말하면 마켓 리더들은 좀 다르다.

그들은 경기가 바닥을 두드릴 때 주식을 생각하고, 경기가 고점을 찍고 금리가 하락반전할 가능성이 커지면 채권에 투자한다. 또 이들은 싱가포르 투자청이 파이낸스 센터를 사들이고 미국계 금융사들이 서울시내 도심빌딩을 사들이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달러가 약세기미를 보이면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즉, 부(富)란 95%의 보통사람과 5%의 특별한 사람간의 머니게임 전쟁의 결과물이며, 그 전쟁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단 한번도 95%가 5%를 이긴 적이 없는 일방적인 싸움이기도 하다. 때문에 95%의 보통사람이 부를 축척하기 위해서는 5%의 생각으로 움직여야하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머리는 5%를 따라가더라도 몸이 95%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도심의 빌딩이 오를 것으로 보이더라도 95%는 빌딩을 매입할 수가 없다.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때 5%는 자금을 묻어두고 시장에 배팅하지만, 95%는 시기를 자로 잰 듯이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면 비록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 하더라도 당장의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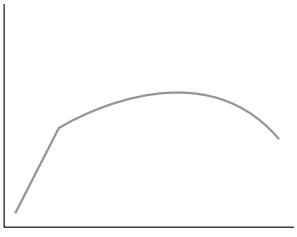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투자를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에 앞서, 지금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다른 투자에 비해 효율적인가를 먼저 질문하고, 주식투자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역량을 체크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식투자는 때를 사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 때가 언제인지 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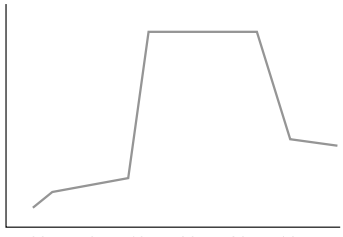
찾아보자.

먼저, 지금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 수단인가? 비록 부동산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 불패가 아닌가? 부동산은 과연 끝났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먼저 말하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아파트는 올해 말부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 향후 10년간 아파트가의 상승과 맞물린 토지시장의 강세도 예상된다.

이유는 이렇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정상적인 종형구조가 아니다. 지금 인구구조는 실크햇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그림) 이제 모자의 좌측 가장자리가 40~30대의 인구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자의 우측 가장자리가 30대의 중심을 통과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선진국형 초입의 정상 분포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인구 분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향후 10년 이상은 최소 80~90만 가구 수준의 독립가정이 계속 탄생한다는 뜻이고, 현재 좌측 가장자리에 속하는 지금의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의 인구는 앞으로 15~20년은 지나야 서서히 자연사로 인한 인구감소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즉, 최소 한해 70~9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주택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15~20년 후부터는 급격한 신규세대수의 감소와 기존 세대의 인구감소로 인해 급격한 위축을 겪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은 최소 10년간 공급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상승 압력이 있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은 약 10년 후부터는 서서히 매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향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었지만, 향후 산업구조나 사회적 발전의 전개과정이 이것에 바탕하게 될 것임을 고려해 보아야한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주식투자자는 그렇다면 부동산과 주식은 상극이라는데 부동산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대답은 이번에도 "그렇지 않다." 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가격전쟁이 아니라 수급에 의한 점진적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유는 바로 모기지 금리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기지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재테크 시장의 혁명적 상황 변화이다. 모기지론의 발달은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내어 잠재적인 수급불안을 실재화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모기지의 도입으로 장롱에서 잠자고 있던 (적금을 붓고 있는) 엄청난 가계자금이 부동산 마련을 위해 시장에 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 투기적인 능력이 없는, 단순히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동산

투기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 그럴 용기나 자금도 없다. (앞서 설명한 5%의 논리를 생각해보라)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가구마다 수천만원씩 잠자던 자금이 모기지라는 제도를 만나면서 알음알음의 적당한 투자처를 찾게 될 뿐만 아니라, 모기지든 자기자금이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한국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이란 목표의 달성은 스스로의 자만심을 일깨워 주기에는 금상첨화인 셈이다. 다시 말해, 내 집 가진 사람들은 모기지라는 주택자금을 거의 시혜로 받아들이면서 주택자금에 대한 압박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금 시대의 중심에는 30~40대가 서있고, 그 뒤를 20대가 받치고 있다. 물론 이 실크햇 형의 구조를 국민연금이라는 구조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끔찍하지만 (지금의 10대는 아마 번 돈의 반은 지금의 30~40대를 먹여살리기 위해 부어야 할지 모른다), 이 구조의 중심 연령대들은 이미 인터넷에 익숙해져 있고, 유가증권투자를 굳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주식투자하다가 5층에서 뛰어내린 가장의 이야기보다는, 500만원으로 수억을 벌었다는 신화나 전설이 더 현실감 있게 들린다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일단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정도로 생략하지만, 사실 경제의 펀드멘털이나, 좀 복잡한 이야기(주가수익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평균보다 30% 낮다거나, EPS 증가율이 역대 최대라는 식의...)나 소위 전문적인 기술적 분석이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어쨌거나 이쯤하면 주식투자를 할만 한 이유는 설명한 셈인데, 이제부터는 어떤 주식에 어떻게 투자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인가라는 점쟁이 속곳을 입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가지수는 향후 3년 내에 30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원래 주가전망을 하지 않으며, 특히 2003년까지는 철저한 비관론자였으므로 다소 의외의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3년, 3000포인트를 주장하는 필자의 생각이 맞고 맞지 않고는 3년이나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필자는 한발 더 나아가서 향후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종목군은 먹고 사는 업종과 국가대표주식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공동화로 조만간 뭐 하나 만들어 내기도 벅찬 나라가 되고, 고임금에 노사분규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나라에 수출로 인한 달러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업자는 넘쳐 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10년 전 일본이 이미 경험한 현상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글로벌 기업이란 무엇일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포항제철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기업이며, 향후 삼성전자의 성장이 다른 부분의 퇴보를 커버 할 것이라고 본다면,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매력도는 무궁무진하다.

두 번째 포항제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찌감치 중국진출에 성공하여 단가전쟁에서 승리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지는 이미 오래다.

세 번째 현대차와 기아차를 들 수 있다. 다만 현대 차는 지금현재로서는 도박성이 다소 있다. 역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각지에 분산된 공장을 건립하고 망하지 않은 경우가 없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대우 차인데, 현대 차가 어쩌면 그 전철을 밟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현대 차가 도요타의 성공과정처럼 미국공장의 안착에 성공한다면, 이미 안착한 인도, 중국 시장에 이어, 드디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때문에 사안의 폭발력을 본다면 성공 할 경우 현대 차는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실패 할 경우 리스크를 안게 되는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업으로는 삼성 SDI, LG 화학, LG 전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는 덩치가 가벼운 종목들인데,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아이템은 먹고사는 업종이라는 점을 주목해보자. 다시 말해 컴퓨터 없이는 살아도 안먹고 살지는 못하듯이, 의식주 기업은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안목 있는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준다.

대표적인 종목이 신세계, 태평양, CJ, 한섬, 동원F&B, 동서와 같은 종목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식시장도 결국 눈치 빠른 사람에게 유리한 곳이다. 이마트의 지속적 개점과, 설화수 화장품 등 고급기능성 화장품이 어느새 외제 화장품을 밀어내고 있고, 웰-빙 열풍으로 라면대신 가쓰오 우동을 사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아울러 커피는 이제 젊은 사람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기호 식품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점점 강화될 것이고, 심지어 이런 불황에도 열풍을 불러일으킨 웰-빙이 만약 경기회복기에 맞물린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다음으로는 금융주를 매수해 둘만하다. 원래 새벽이 오기전이 가장 어두운 법인데, 지난 삼년간의 내수악화와, 신용불량자의 증가, 카드사태 등으로 억눌린 은행주들이 이제 서서히 개선될 징후를 보이고 있고, 만약 신용불량 문제가 경기회복과 맞물리면서 회복의 기미를 보인다면 금융주의 성장은 폭발적일 수 있다.

이 때 혜택은 기업금융으로 그나마 유리했던 은행보다는 가계비중이 커서 악재가 컸던 국민은행이 일차적 수혜를 입고, 부산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의 수혜가 클 전망인데, 특히 부산은행은 부산출신정권의 지방분권화 정책과도 맞물려 유심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혹시 성격이 느긋하고 여유자금이 많은 분들에게 위험이 적고 의외의 시세를 기대 할만한 종목을 추천한다면 KT, 하나로통신, KTF, 등의 통신주를 추천해보고 싶다. 이들 종목은 일단 업계의 성장성이 단점으로 시장에서 냉대를 받고 있지만, 필자의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한차례 상당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만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굳이 필자가 추천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느긋하고 여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다.



정신과 의사, 그들은 '또라이'인가? '족집게'인가?



사공정규
동국대포항병원 정신과교수
TEL 054-288-2139
E-mail skjk40@hanmail.net

사람들은 정신과나 정신과 의사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화랑정신'처럼 정신이 뒤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정신과'처럼 정신이 앞에 나오고 그것도 '정신' 뒤에 '과'가 붙으면 굉장한 왜곡이 일어난다. 일반인들은 나에게 묻는다. "왜 정신과를 선택했어요?" 정신과를 택한 나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기대하거나, '오죽하면 정신과를 택했을까' 하는 위로와 동정심(?)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의사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가, 정신과 의사는 매일 정신과 환자들만 상대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정신상태도 올바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정신과 의사 역시 '또라이'일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직업병처럼….

반대로 정신과의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족집게' 점쟁이나 역술인 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황혼 이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몇 년 전 일이다. 어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대답이 없다. 귀가 어두워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나 싶어 큰 소리로 다시 물어 보아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생각하던 할머니가 던진 한마디는 "선생님, 그걸 말하면 됩니까? 치료비를 받으려면 묻지 말고 맞추어야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혼에 대해 고민하다가 점을 보러 가는 대신 정신과로 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상담 후에는 결국 "가슴에 얹혀있던 돌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다"며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던 그 할머니, 몇 달 후 영감님과 잘 지내고 있다는 전화를 해 왔던 것으로 보아 점쟁이 대신 병원을 찾은 점만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정신과 의사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초능력자로 보는 이런 에피소드는 그리 드물지 않게 겪는 일이다. 일상의 만남에서 대화를 잘 나누다가도 내가 정신과 의사인줄 알고 나면 자신의 속마음을 들킬까봐 입을 굳게 다무는 분도 있다. 또, 정신과 의사를 완전한 정신건강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초능력자도 아니고 완전한 정신건강의 소유자도 아니다. 나는 환자를 만나면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의 미숙함을 본다. 나의 건강하지 못한 점을 본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 할 뿐이다.

그러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스스로 반문해보기도 한

다. 그러나 이 질문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정신과 의사인 나조차도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굳이 말하자면,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부처나 예수, 공자와 같은 성인들은 완전한 정신건강을 가진 분들이겠지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란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

완전한 인격 성숙. 부처, 예수, 공자.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인격 성숙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 환자이다.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진다지 않던가. 정신건강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재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정신이 건강해 질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 또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완벽한 인격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정신건강이다. 건강을 찾고 지키려는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 보인다는 뜻이다. 누가 잘난 것도 없고 누가 못난 것도 없다. 기껏해야 오십보백보(五十步 百步)이다. 남을 욕하고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자. 노력하고 있는 한,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의 인격은 이미 성숙한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나면 인생의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시론



엘리트가 무엇인가?

김두희
대우전자부속의원 · 구미
경북대 의대 명예교수
TEL 054-467-7176
E-mail dohie@hanmail.net

1. 엘리트들의 수난

"사회가 특히 정가에서 매우 시끄럽지요? 요즘 학생들이 왜 법대나 의대로 몰려드는가요? 정가를 시끄럽게 하는 그분들이 다 국가에서 치르는 어려운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일어선 엘리트들 아니겠어요?"

"허! 참!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한목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라에는 치고 받고 터지고 지지고 볶아서 심신이 아픈 자가 많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은 법조계로 몸쓰고 가려하고 자연계 학생은 몸쓰고 의대(특히 한의대)를 선호하는 이유가 됩니다.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법조인이 필요 없고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겠지요. 다시 말하면 변호사와 검사는 백성들 간에 싸움거리가 많아야 명승부 판정으로 명예와 부를 동시에 얻게되고, 의사들은 환자가 많아야 명료한 진료로 역시 명예와 부를 동시에 얻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다른 전공분야는 상대적으로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지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순수한 인문사회나 순수 과학분야가 강해야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어떠합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고등고시 제도는 일본에만 있습니다. 심지어는 22살짜리 애송이 법관들이 기용되기도 하지요. 미국은 law school을 졸업하고 변호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오랜 변호사 경험을 쌓게 한 다음 덕망이 있는 분을 판관으로 발탁합니다."고 한다.

이상은 어느 날 아침 출근 길 차안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교통방송기자와 어느 시사해설 가와의 대담이다. 단순한 풍자로만 들으려 하였더니 외국과 비교하는 말을 듣고 풍자가 아니고 진솔하게 꼬집는 말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럴듯한 해설 같았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흥' 하며 코웃음이 나왔다. 참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또 무슨 까닭일까! 과연 누가 이 사회의 중추적인 사람들 the elite of society 인가! 그 중심이 어긋나있다는 것을 질타하는 말이 아닌가! 아마도 우리 나라의 학제개혁이라며 최근 수년간 찬반 양론이 승강이하던 법학과 의학 두 분야를 위한 소위 대학원대학육성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듯한 말 같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직종이 나라의 기둥이라 하기 보다 나라의 중추 역이 썩지 아니하도록 다독거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단순한 봉사직종임을 명심하라는 뜻으로도 들린다. 암담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보장 책도 몽롱하다. 의학의 경우, 과정을 마치고 국방의무와 전문의과정을 마치면 30대 중반으로 접어든다.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나 짧다. 미국과 한국은 의식 차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으로 막연한 모방과 기대는 금물이라 하겠다.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 못하였을 줄 믿으나 미국의 변호사는 그 수가 넘쳐 살아남기 위해서 억

지로 일거리를 만들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소문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애송이 판관이 때묻지 않아 명쾌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의 정서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장단점을 결코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암행어사 박문수를 모르거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를 모르는지, 즉 부지이면(不知裏面)을 지적하기보다 원만한 가르침을 강조하고자하는 말로 듣고싶다.

그러나 면허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단순한 밥벌이싸움이나 하는 부류로 폄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면 대의(大醫)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중의(中醫)이며 병을 잘 다스리면 소의(小醫)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다스리는 원칙은 유사함으로 그 방법이 신통치 않으면 믿고 따르고 바라만 보던 정의로운 선비들이 일제히 일어나 제 각자의 목청을 돋우며 한마디씩 거들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를 빗대어 백가쟁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 현상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유사한 전철이 있었다. 의(醫)와 법(法)은 단순한 이기주의자로 폄하할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국내외에서의 이타행(利他行)을 칭찬하여 국태민안을 유도하는 도구로도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소위 대의를 자칭하는 위정자들의 자세가 과연 옳았던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2. 자라온 배경 100년

두서의 대화 내용은 몇 날 며칠이 가도 도무지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의문은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부터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나 신통한 답은 나오지 않고 그 누구에겐가에 대한 원망만 쌓여간다. 1910년에는 왜 조선이라는 국호에 종지부를, 1945년 광복은 어떻게, 1950년의 동란, 1960년의 4 · 19 학생의거에 이어 그 이듬해의 5 · 16 군사혁명 등이 왜 일어났어야만 했을까. 1965년 월남전에 전투병 파견과 1970년의 새마을 운동[1]을 왜 했어야 했는가? 이러한 몸부림치는 역사를 필자는 조선말의 상황을 제외하고 다 몸과 마음으로 겪고 느껴본 사람으로서의 그 답을 얻어보려 한다. 강력한 의지의 영웅들을 다 쓰러트리고! 항상 남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위인들의 소행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행위는 오늘날까지 통념적 관습처럼 된 느낌이다.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38선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흩어졌다가 큰 배경을 업고 다시 모여든 독립투사들의 좌우의 이념싸움으로 점철하면서 그 감정은 극으로 달려가 남북의 전쟁까지 치렀다. 그래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겨우 휴전으로써 경계선만 더욱 강화되었을 뿐이었다. 많은 희생을 당하고 또 치렀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부모와 형제들을 잃는 슬픔을 안아야했으며 공포와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수단강구에 급급해야만했다. 자기의 영달이 곧 나라의 영달로 착각한 정치 권력자들의 손에 놀아나기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해방 후의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라는 가르침과 당시의 일민주의는 왜의 학정에서 벗어난 지 15년 만에 의기투합하는 순수한 학생들과 군인들에게 정의감과 애국심을 살려놓은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나라를 잃은 지 꼭 반백 년이 흘러가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콩 한쪽도 나눠 먹자' 라는 구호를 앞세워 경제계획을 세우고, 국위선양을 앞세운 월남전참전과 더불어 외화를 벌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정서를 '느릿느릿' 에서 '빨리빨리' 로 바꿔 부지런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아름다운 자연이 과도하게 파괴되는가 하면 금수강산은 오염 강산으로 변하고 위정자가 변을 당하는가 하면 또 바뀌고 바뀌면서 정책이 달라지더니 아시안 깨임이나 올림피

아드 등으로 국력을 과시하기도 하며 한때는 모두 기뻐했다. 그런데 그 밝은 불빛의 이면은 말이 아니었던가! 흥청대는 웃음소리가 거치기도 전에 IMF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그들의 지원조건에 응하다보니 그 정책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꼴이 되었다. 나라의 빚을 갚는다며 유수한 기업을 매도하던가 합작의 과정을 유도하며 이전에는 듣지도 보도 못하던 '워크아웃'이다 '정리해고'다 하며 기업을 살린다고 야단법석을 떨다가 인정은 말라갔으며, 이제는 극도로 경쟁심만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 구처(求處)없는 노숙자가 물밀 듯 지하도 같은 빈터로 밀려나오고 사회를 사납게 만들고 말았다.

거기에는 또 조기 명태 황태 북어라는 고기이름[2]이 등장하며 백수가 된 자신들이 처한 황당한 사회를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보다 더 큰 외국의 낯선 손의 장난이란 말도 가로 늦게 들려왔다. 겨우 어둠을 헤치며 월드컵 경기 등으로 또 한번 기뻐하기도 했으나 와중정(蛙中井)격이란 빈말이 아니었던가보다.

생존을 위한 투쟁을, 평화를 위한 전쟁을, 아니면 남에게 부채를 떠 안기는 사기수법 등, 나라 안팎에서 달갑지 않은 모순된 일이 연속으로 보도된다.

능력별 인선을 한다는 것이 곧 신 자본주의 개념인 것처럼 연봉 기 십억 원을 호가하며 자랑하는 것은 결코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과는 전혀 다른 별나라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면 소비자의 호기심과 수요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일 게다. 이리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한편 좌절감에 빠진 가장들이 일가족 동반 자살을 한다거나 그와는 반대로 은행을 튼다던가 살인 강도로 돌변하는 보도가 결코 적지 않다. 경쟁에서 승리한 신입사원들은 안도의 숨을 쉬는가 했더니 대기업의 월급쟁이들 사이에는 어언간 38선에 45정 56도 그리고 체온퇴직이라는 신조어[3]가 나오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단다. 퇴직자는 갈곳이 없어 알량한 연금[4]이나 퇴직금으로 버티는지 모르지만 산으로 들로 내쫓기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도 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그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거기에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해인지 모르지만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소위 엘리트 급이라는 학생들이 법조계와 의약계로 몰려든다는 것은 근시안적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희망이 보인다는 의미일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특히 요량 없이 양산해놓은 의료계의 기성인사들은 오늘에 자멸의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아우성이며, 별 보장도 없는 짧은 운명의 하루살이를 방불케 하는 대학원대학 제도 도입은 현 실정에 미루어 볼 때 엉뚱하다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보도가 연신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그럼 의약인들 만 인색하다는 말인가!

사회의 모순은 이런 경우뿐 만은 아니리라. 밥그릇을 잘 챙기는 사람이 엘리트인가! 요즘 그들은 일단 정의로운 것 같은 검찰들의 활동으로 나타난 사회상은 어떤가. 남의 것을 지능적으로 잘 빼앗아 먹는 사람이 엘리트(?)였던가. 이리저리 챙긴 기업들의 비자금으로 정치인들과 선업(善業)을 말아먹는다는 인상을 탈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비자금의 형성과정은 또 다른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정국은 마치 춘추전국시대나 조선조 사색정당과도 그 양상이 서로 어색할 뿐 다름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보니 6년 후면 2010년, 또 반 백년에 이른다.

3. 바라는 국태민안(國泰民安)

싯다르타는 29세에 출가하여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는 무엇인가 이루어 져야 할 터인데. 긴 터널에서 바라보는 창구가 열려야한다. 그 창구밖에는 국태민안이 기다린다 고나 할까! 다만 우리는 이처럼 모순을 해결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진정한 엘리트 위정자를 원할 뿐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의로운 인간사회, 창조적인

문화, 그런 길로 가는 방법을 다 함께 찾아봅시다.

12월 23일 조계종 종정 법정스님의 갑신년 기원문[5] 일구가 귓전을 두드린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덕과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며, 집집마다 순금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아자(啞者 · 벙어리)는 만류군생(萬類群生 · 중생)을 깨우치는 법음(法音)을 설하고 농자(聾子 · 귀머거리)는 성전일구(聲前一句 · 진리)를 전합니다 라는 말은 결국 요즘 헛소리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도꾸가와이에야스의 3 사루(さる)[6]가 연상되나 오늘의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조금 더 생각하고 다듬어서 말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주(註)

1) 1970년 정부의 주동으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케치프레이즈 catch-praise를 내걸고 콩 한쪽도 나누어 먹자며 가난한 이웃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쳐나가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들은 쌍수를 들고 호응한 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IMF때는 생선이름이 샐러리맨의 이름을 대신했다. 조기 퇴직을 의미하는 '조기', 명예 퇴직을 가리키던 '명태'. '황태'는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하게 직장에서 쫓겨난 경우를 일컫는 말이었고, 잘리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애쓰고 눈치보다 퇴직 위로금도 못 받고 내몰린 것이 '북어'였다.

3)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 : 올해는 직장인을 언급하는 단어에 글자수가 한 자 더 많아진 것이 특징. 56세에도 퇴사 안 하면 도둑이라는 뜻의 '오륙도',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 38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선방했다는 의미의 '삼팔선'은 올해 등장한 대표적인 신조어에 속한단다. 또 많은 직장인들이 체감 정년을 36.5세로 보고 있다는 결과치는 사람의 체온 36.5도를 빗대 '체온 퇴직'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4) 최근의 한 MBC방송은 2004년이면 그 것도 바닥이 난다고 하여 불안감을 가속시킨다.

5)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덕과 화합을 이룰 수 있으며, 집집마다 순금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또 허언이 난무하는 정치권을 빗댄 듯, 말에 얽매인 사람은 재주를 팔아 어리석음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법어 전문이다. 시방좌단(十方坐斷 · 앉아서 번뇌를 끊음)하고 천안돈개(天眼頓開 · 깨달음을 얻음)하니 두두물물(頭頭物物 · 세상만물)이 본분을 드러내어 곳곳에서 활로를 이룹니다. 아자(啞者 · 벙어리)는 만류군생(萬類群生 · 중생)을 깨우치는 법음(法音)을 설하고 농자(聾子 · 귀머거리)는 성전일구(聲前一句 · 진리)를 전합니다. 이것이 새해 아침에 광명이 가득하고 영롱한 빛이 시방을 머금은 소식입니다. 하늘은 이것 하나를 얻어 청정하고 대지는 이것 하나를 얻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이것 하나를 손아귀에 쥐고 천하를 태평케 하였고 불조(佛祖)는 이것 하나를 깨달아 일체를 텅 비우고 나고 죽음에 자유로웠습니다. 당시 일간지에 발표된 해설이다.

6) 3さる : 해서는 아니 되는 것 세 가지, 즉 (見さる, 言さる, 耳さる)를 앞세워 나라를 통일하였다는 일화를 연상케 한다. 미사루 – 볼 게 아니거든 보지말고, 이와사루 –말할게 아니거든 말하지 말라, 기까사루 들을 게 아니거든 듣지를 말라 라는 뜻이다. 이런 가르침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德川家康의 묘소 앞 신사 정문의 윗문턱에 원숭이 목각을 새겨 붙여놓고 있다. 원숭이를 일본말로 사루이니까 의역을 해서 예술로 승화시켜 조형화 해놓았다.

시론

의료계 정치 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외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건의료정책평가단장
TEL 054-743-2645
E-mail woo1801@hotmail.com



편집자주

의협신문 창간 37주년 특집(2004. 3. 22. 월) "의료계 정치 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하로 의협 대외기획특별위원회 변영우 위원장과 의협신문 이석영기자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의협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될 이번 총선을 맞아 의협 대외기획특별위원회(보건의료정책평가단)를 이끄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의협의 정치참여선언과 총선 활동이 의료계 내부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 의협의 정치활동은 비공개적으로, 주로 인맥을 통한 로비 중심의 정치활동과, 궐기대회 등 투쟁 방식으로 주로 전개돼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요. 의협의 정치참여는 국민들이 인정하는 제도 속에서, 자유경쟁과 공개적인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세력화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 전문가 단체의 정치 ·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성숙하면서 이뤄지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단체가 국민들이 인정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단체가 국민들이 인정하는 제도속에서 공평한 룰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하고, 공개적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이익을 구하고 나누고 양보하는 질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의협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주로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평가받을 일이고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은 기우라고 봅니다. 의사단체의 윤리성을 폄하하는 것이기도 하고.

의협 산하 대외기획특별위원회가 오는 총선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의료정책평가단'으로 운영되고, 실무조직인 '총선기획팀'이 구성됐습니다. 각 지역에는 시도 · 시군구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크게 정책 · 홍보 · 교육 세분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정책활동에서는 각 정당 및 출마 후보자들에게 의협의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와 공개질의서를 보내, 그들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평가 · 분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일선 회원들이 정당 ·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지요. 홍보는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거법 · 정치자금법 · 정당법 등이 개정돼서 회원들이 바뀐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주요 신문에 광

고를 게재하고, 각 지역의 언론인 · 행정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홍보자료를 계속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인터넷의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전국 의협 산화조직 공보이사 등으로 구성된 의협 사이버홍보팀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난 3월 13~14일 무주에서 지역보건의료정책평가단 워크샵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6일과 4월 9일 전국 의사 반모임을 통해 총선 대비 행동지침 등을 집중 교육할 것입니다. 지역평가단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을 알리는 일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정치세력화, 자신 있으십니까?

– 우리 의사 숫자가 8만명입니다. 가족까지 치면 20~30만명은 족히 넘지요. 인적 · 물적자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상도 아직까지는 높은 편입니다. 모든 점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느냐만 남아있는 것이죠. 회원 대부분이 정치세력화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관심 · 냉소 벗고 선진의료 구현 우리손으로”

총선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 우선 내부적으로는 의사 회원들의 정치적 각성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냉소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가시적인 것으로는 당연히 잘못된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법 · 약사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국회 밖에서의 투쟁이었지만, 총선 이후에는 국회 안에서의 투쟁이 될 것입니다.

총선 이후의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 정치세력화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권에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국회의원들을 평가 분석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도 대외사업추진본부, 의정회, 담당 상임이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이같은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우리 의사들은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 익숙해져 있지도 않고, 선거운동하는 것도 어색하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정치참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국민건강의 보장, 진료권의 자율성 확보, 선진의료의 달성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과는 다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 의사의 장래는 없습니다.



포화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바그다드 전신전화국 건물. 이 때문에 바그다드에는 전화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황 파악과 지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이라크 의료봉사단 |

이라크 보고서

정만진
정만진소아과의원 · 영천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TEL 054-332-7755
E-mail jmj31@hitel.net

편집자 주

본회 부회장인 정만진 원장은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를 포함한 범 의료계 이라크 봉사단의 선발대 단장으로 2003년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전쟁 직후의 이라크 바그다드 일원에서 의료 봉사를 겸한 현지의 의료 실상을 돌아보고 왔다.

귀국 후 공식보고서는 물론 의협 신문에 상, 중, 하 3회에 걸쳐 이라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래 글은 의협 신문에 발표한 글을 수정 편집하여 다시 싣는 것이다.

보고서를 시작하면서

앗살라무 알라이쿰(아랍어 인사말). 전쟁의 포화가 멎었지만 아직도 밤에는 총소리가 들리고, 고속도로에는 알리바바(도둑)가 출몰하고, 24년 철권 독재가 무너지면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열사의 나라 이라크 !

우리 선발대 일행(의사 2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보건산업 진흥원 연구원 1명)은 전후의 이라크 의료 현황을 관찰하고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이라크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라크는 지금 일부의 위성 전화를 제외하고, 전화와 팩스 그리고 인터넷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라크는 마치 거대한 코끼리 같아서 어디를 만져보고, 어디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 의견과 판단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라크 보건성에서부터, 이라크에서 가장 큰 의료원에 해당하는 Medical City, UAE가 지원하고 있는 알 쉐

크 자이드 병원, 알 무사얍 지방의 중소병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그리고 포르투칼 NGO가 운영하는 진료소까지 거의 모든 이라크의 의료기관을 종류별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정확하게 이라크의 Medical System을 파악할 수 있었고, 효과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감을 잡고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는 가는 데만 거의 3일이 걸리는 머나먼 곳이며, 쉽게 가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임무에 관한 것은 물론 그곳의 풍습과 에피소드까지 가고 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공식적인 보고서의 틀을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께 진솔하게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소문(Rumor)이 실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필자의 경우 출발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발대로 확정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라크와 아랍에 관한 기초지식도 쌓아야 했고, 아랍어 회화책도 한 권 구해서 아랍어 알파벳과 아랍어 인사말을 익히는 만용까지 부렸습니다. "앗 살라무 알라이 쿰(만났을 때 인사말)", "마앗 살라마(Good bye)", "슈크란(Thank you)"등의 말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생소하여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NGO 팀의 일원으로 이라크를 다녀온 사람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이라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라크에 간 인도네시아 기자 3명이 약탈자를 만나 두 명은 죽고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 심지어 5월 19일에는 우리 나라 봉사단이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알리바바(도둑)를 만나서 다 털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스런 표정으로 조심해서 갔다오라고하니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하였지만 이제 여섯 명의 단원을 책임지는 단장의 임무까지 주어졌으니 더욱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행되지 않았지만, 봉사단 준비 위원장에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미군이 지켜주는 팔레스타인 호텔에 투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으며, 만일에 길을 잃고 헤맬 때를 대비하여 "아나 똬비분 민 꾸리야 자누비아…(저는 한국에서 온 의사입니다…)"라는 아랍어 메모지까지 휴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종교는 없으나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살고 있기에, 이번 일에 따르는 위험에 대하여 걱정은 되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 산소도 다녀오고, 평소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했던 것처럼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컴퓨터 디스켓에 담아두었습니다.

인천에서 암만까지

필자는 대구공항에서, 어떤 공연을 준비하다 이제 무대에 올리는 기분이라는 아내와 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5월 23일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여, 김포공항을 거쳐 오후 5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



인천 공항에서 출발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

습니다. 거기에서 기자들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한 후 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 임원들과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오후 9시 30분 아랍에미레이트(UAE)의 두바이행 대한항공 KE951편에 탑승하였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두바이 산 원유가 어떻고, 북

해산 부렌트 유가 어떻고, …"하던 그 두바이까지 가는 비행시간에 옆에 앉은 중국인 엔지니어와 이야기도 하고, 화장실 앞에서 만난 시리아 사람으로부터 책에서만 배운 몇 마디의 아랍어 실습도 하고, 자는 둥 마는 둥 자세를 바꾸면서 새우잠을 잤으나 economic class의 10시간 30분은 괴롭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바이 공항, 참으로 깨끗하고 편리하며 내부 전체가 카펫이 깔린 잘 지어진 허브(hub)공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오전 3시에 도착하여 여섯 시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 동안 금으로 유명한 면세점도 둘러보고, 여섯 시의 이른 새벽부터 맥주도 마셔보았으나 할 일없이 6시간을 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요르단에서 바그다드로 가는 고속도로.
고속도로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만행 비행기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승객 중에 동양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우리 여섯 사람뿐이었습니다. 10시간 30분에 비하면 3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기내식 먹고, 바다와 모래가 어우러지는 바깥 세상 몇 번 쳐다보고 나니 금방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 암만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처럼 이라크를 탐험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게 제한 때문에 한국에서 휴대물품(Hand Carry)으로 갖고 올 수 없었던 많은 양의 약품도 구입하고, 쌀과 생수는 물론 이라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시리아 사막(Syrian desert) 925km.

어제 저녁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기분으로 암만의 식당에서 양고기로 만든 '케밥'이라는 토속음식을 먹고, 오래 만에 샤워도 하고 침대라는 곳에서 단잠을 잤습니다.

이라크로 가는 하이라이트가 될 셋째 날 아침, 암만의 Gardener Hotel(우리 나라 장급 여관 정도) 앞에는 GMC(우리 나라 7인승 지프형 차보다 조금 더 큼) 2대와 BMW 1대(우리 코디네이터의 차)가 서 있고, 짐을 확인하고, 출발 준비를 하느라 한바탕 부산을 떨었습니다. 7시 20분, 드디어 세대의 차가 힘차게 시동을 걸며 시리아 사막 925km의 대장정(caravan)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가로지르는 2차선 포장길을 고속으로 질주하여 암만에서 이라크 국경까지 375km를, 알 르웨이시라는 작은 도시에서 30분을 쉬고도 4시간만에 주파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요르단에서 이라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르단 출입국 관리소의 수속 절차 외에 요르단 쪽에서 2번, 이라크 쪽 미군으로부터 두 번의 검색과 여권 검사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라크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기름을 넣는 등 재정비 한 후 우리 나라 현대가 건설해준 잘 다듬어진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옛날에 호랑이나 산적이 나타나는 재를 넘을 때는 혼자서 가지 않고,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넘나들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고속도로가 그러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말로만 듣던 그 알리바바가 출몰한다는 바그다드행 고속도로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단원은 세 대가 같이 가더라도 제일 뒤에 가는 차가 약탈을 당하기 쉽다고 하며 은근히 자신이 탄 차가 중간에 달리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를 태운 GMC는 미국 서부의 사막 같은 시리

아 사막길을 시속 150km로 달려나갔습니다. 앞 뒤 좌 우 어디에도 지평선만 보이는 사막 위에 놓여진 6차선 고속도로, 가는 차도 오는 차도 띄엄띄엄 한 대씩 보일 뿐 교통경찰도 Speed Gun도 없으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서진 두 개의 다리와 몇 개의 움푹 파인 구덩이 그리고 불타 버려진 몇 대의 차들이 이번 이라크 전쟁의 상흔을 대변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속 150km가 넘어도 전혀 속도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차 기사는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 손은 계속 코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도로 곳곳에 타이어가 터지면서 찢어진 타이어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급제동으로 생긴 스키드 마크가 많이 보였습니다. 150km의 속도라면 엄청난 속도인데 우리가 탄 5년이 넘은 이 고물차가 펑크라도 난다면 어찌되겠는가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리바바(Alibaba)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야기로 잘 알려진 "알리바바"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도둑을 말하며, 지금 이라크에는 패잔병이나 감옥에서 탈출한 3만여 명의 죄수들이 주로 알리바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현금을 많이 가진 적당한 외국인 먹이 감이 있으면 위성전화로 연락하여 차 뒤를 부딪쳐서 사고를 위장하여 턴다는 설(說)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일에 알리바바를 만나서 털리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암만에서 Subnex(우리를 안내하는 장연 대표의 회사이름) 암만 지사에 현금을 모두 맡기고, 바그다드에서 쓸 비용은 Subnex이라크 지사에서 받아서 쓰고 정산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생명에 지장을 줄까 봐 150 달러 정도의 현금을 지참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알리바바를 피하기 위하여 휴게소에도 들리지 못하고, 미리 준비해간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고 생수를 마시면서 계속 달렸습니다. 중간에 뒤차를 기다리느라 다리 아래에서 10분 정도 쉬고 계속 달린 덕분에 국경에서 바그다드까지 550km를 4시간 30분만에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즐겁게, 좀 더 참으면서, 좀 더 봉사하며 살걸!

처음에는 사막의 풍광이 신기하기도 하였으나 똑같은 지형이 끊임없이 계속되니 지겹고 피곤해 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병원 문을 닫아가면서까지 이라크에 왔는가?'

'나는 55년 5개월 동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갑자기 가장 평범하나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화두(話頭)를 떠올리게 된 것이 단순히 갱년기의 정신적 변화만은 아니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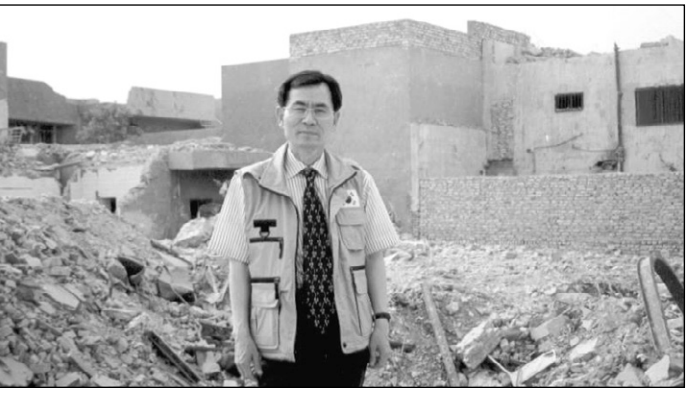
원칙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면 손해보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왔고, 습관이 되어버려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며 우둔(愚鈍)하게 살아갈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안타까운지를 물어보았더니,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좀 더 참으면서, 좀 더 봉사하며 살걸'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참고 살려고 노력하였고, 그런 대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왔습니다. 대학시절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복조리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불우시설을 찾아다녔고, 지금도 사회 봉사 단체의 일원으로 봉사의 대열에 끼여 청소도 하고, 나무도 심고, 장학금도 주면서 나름대로 봉사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봉사는 자기 만족이자, 자신을 enjoy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체를 빙자한 또 다른 이기심의 발로일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의사(意思)에 따른 혼자만의 봉사에 참여해보고 싶어서 이라크 의료 봉사단에 지원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신문에 보도되어 더욱 더 떠벌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따르더라도 언젠가 외국에 나가는 직업봉사를 해봤으면 하던 희망을, 요것 조것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덜덜떤 바그다드의 첫날밤

SARS 때문에 무조건 1주일 이상 붙잡아두는 쿠웨이트를 통하여 이라크로 들어가기는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암만을 통하여 가게되었으며, 가는데만 3일이나 걸렸습니다.



미사일 오폭으로 파괴된 민가의 처참한 모습

우리는 암만을 출발한지 거의 10시간만에(올 때는 13시간) 바그다드의 Swan Lake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호텔은 20여 개의 콘도형 방이 있고, 자주 꺼지지만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도 들어오고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으나, 호텔 주위 어디에도 우리를 지켜줄 미군도 장갑차도 경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짐을 옮기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오후 7시가 넘으면 밖에 나갈 수 없었으므로 준비해간 라면과 햇반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이따금 들려오는 총소리에 덜덜 떨면서 문고리를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열린 듯 닫힌 문으로 자꾸만 눈동자가 돌아 갔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피로하여 쉽게 잠들고 말았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hepatomegaly가 생기면서 이러한 공포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그다드 4박 5일의 행보

우리는 40도가 넘는 더위를 무릎쓰고 조금이라도 더 보겠다는 욕심으로 쉴틈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장관도 차관도 없었으나, 돗떼기 시장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라크 보건성을 방문하여 먼지가 자욱한 책상 앞에서 International Aid Committee의 Dr.Naira(女)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났고, 이어서 우리 나라 식약청 비슷한 기관인 Kimadia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제일 큰 의료원 급에 해당되는 Medical City의 부원장을 만났고 흉부 및 호흡기 질환 연구소를 방문하여, 가기 전부터 관심을 두었던 결핵에 대한 현황 청취와 자료를 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400만 인구에 결핵 환자가 11,900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자세한 조사를 하면 좀 더 많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25의 참상을 상상하며 둘러본 바그다드 시가지는 비교적 멀쩡하게 보였으나, 전신전화국, 사담 후세인 궁, 경찰청 등의 폭격맞은 중요 시설들은 앙상하고 처참한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 만슈르 아동 병원을 방문하여 원장인 Dr. Nizar로부터 골수 이식이 지난해 처음 이루어 졌다는 이야기와 예방접종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뇌막염 환자와 풍토병인 Leishimaniasis환자도 보았습니다. UAE가 약과 재료는 물론 25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동원하여 전적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는 알 쉐크 자이드 병원(10개과)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병원은 우리 나라가 이라크를 긴급 지원 할 경우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약탈을 당하여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내고 있는 대사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박웅철 서기관으로부터 이라크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도 들었고, 이태리 적십자사가 텐트를 치고 운영

하는 Cross Rossa Italiano (Tents) Hospital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바그다드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알 무사얍(Al Mussayab)이라는 인구 5만 정도의 소도시의 중소병원(의사 7명), health center(보건소), 보건지소(비슷), 그리고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서있는 포르투칼 의사 두 명이 운영하는 Assistance Medical International 이라는 NGO의 진료소까지 돌아보았으니, 결국 이라크의 거의 모든 의료 System을 다 둘러 본 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을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NGO의 활동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다드 마지막 날에는 Kimadia에서 지정해준 알 이스칸 소아병원에 약품을 전달하였으며, certification(인증)문제로 직접 전달하지 못한 한국산 약은 Subnex 장대표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웬 certification?, 한국산 약 이라크에서 못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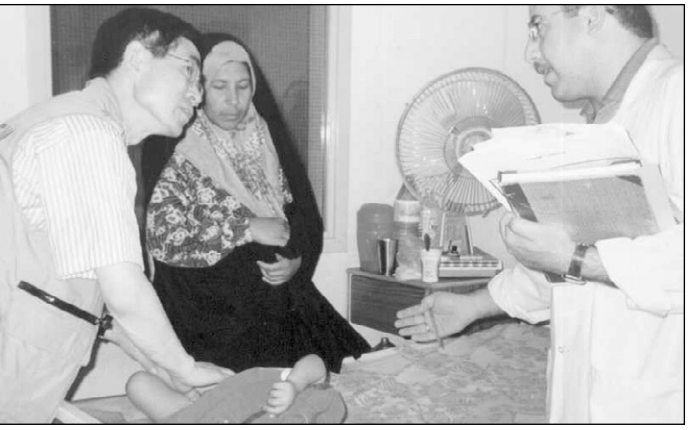
우리 선발대는 이미 이라크를 다녀온 사람들이 갖고 온 정보에 의하여 한국에서 구입한 17종의 약품과 이라크의 의료계를 잘 아는 요르단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암만에서 구입한 39종의 약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라크 보건성을 방문하여 약품 목록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런 약들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자, IAC(international Aid Committee)의 Dr. Naira(女) 위원장은 별로 고마워하는 표정도 없이 단호하게 한국산 약은 Certification(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고, 암만에서 구입한 약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복지부 인증서를 보내오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쟁 후에 긴급하고 곤궁한 사람들이 웬 certification ?", 이렇게 귀한 약을 갖고 와 줘서 대단히 고맙다라는 인사말이 나올 줄 알았던 우리는 이런 이외의 반응에 놀랍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에서 따져 보면 그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후의 이라크를 우리 나라 6.25후의 참상과 무질서를 상상하며 우리의 관점으로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산 약을, NGO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이라크 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는 지금 그런 것을 통제하고 제재(制裁)할 기관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나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협의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에는 지금 근본적으로 약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배가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곳에는 넘치고, 부족한 곳에는 대단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의약분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우리 나라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내성 문제로 잘 쓰지 않는 Ampicillin 같은 항생제도 잘 듣고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라크를 상대로 선진국에서 잘 만들지 않는 이런 약품 수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어 잘 통하고, 아랍어 보기보다 쉽더라.

아랍계 사람들 우리보다 영어를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활동 중에 언어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기분이었습니다. 필자는 이라크 가기 전 약 1주일간 하루에 한 두 시간씩 아랍어를 익혔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랍어를 공부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아랍어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랍어 알파벳을 쓸 수 있고, 간단한 인사말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50여 개의 단어를 알고, 아랍어 숫자를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해도 얼마나 큰 소득인가? 대한 민국 의사 중에 저보다 아랍어 잘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이전에는 아랍어가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사실도, 『 · 』이

"0"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TV에서 보았듯이 아랍어는 글자라기 보다 그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상하게 생겼기에 오히려 기억이 잘 되고 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도 약간 공부해 보았는데, 일본어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외우기보다 아랍어 알파벳 외우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필자가 아랍어로 인사를 했을 때 그들은 언제나 웃으면서 호감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심



알 만슈르 소아병원에서
풍토병인 Leishmaniasis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지어 잘 못 말했을 때도 정겨워 하는 눈치였습니다.

알 무샤얍이라는 시골의 병원에 갔을 때, 원장이 병실을 보여 주겠다고 하여 그를 따라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앗 살라마(안녕히 계십시오)"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는 순간, 병실의 환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고, 나는 말이 잘못 나왔음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계면쩍은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 주고 나와서, 만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병실로 들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을 가다듬고 "앗 살라무 알라이 쿰(안녕하세요 비슷한 만났을 때의 인사말)"하며 크게 인사를 하자, 환자들이 "와 알라이 쿠뭇 살람(인사에 대한 답인사 말)"하며 즐겁게 답하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 병실에서는 만나면서 "안녕히 계세요"했으니 얼마나 우스웠겠는가?

암만과 두바이의 색다른 풍경들

바그다드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하여 사막의 폭풍(windstorm)에 붙잡히는 드문 경험을 하면서 암만에 도착하니 새벽 2시였습니다. 13시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이제 위험지역 이라크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피로가 겹쳐 깊은 잠에 빠졌고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비행 시간 관계로 암만에서 약 18시간이나 머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느긋한 마음으로 요르단 수도 암만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석조 야외무대와 조그만 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목민들의 생활상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약 100만의 암만 시내는 PC cafe(방)도 많이 있었고, 시장도 분비고 있었습니다. 왕궁도 둘러보고 우리 나라 통합 병원 같은 종합 병원도 둘러보았습니다. 암만에서 하나 밖에 없는 9홀 짜리 골프장을 구경하였는데 우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린(green)은 그린이 아니라 검은 색깔이 나는 모래가 깔려진 black sand였고(아마도 기름을 먹인 듯), 페어웨이(fair way)는 바위가 많고 풀이 무성한 러프(rough) 같아서 조그만 메트(mat)를 들고 다니면서 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라운드를 하든 간에 우리 돈으로 약 3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구경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두바이에서도 약 15시간 머물게 되어 잠도 자고, 차를 타고 시내도 한번 돌아 보았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신흥 도시였습니다. 해변에 돛대를 닮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 있었는데 세계에서 유일한 칠성급의 버즈알아랍 호텔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호텔은 마치 공원처럼 우리 돈으로 약 7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였는데, 입장을 하면 식음료를 제공한다고 하

였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물(?) 흐리지 말라는 경영 방침이 아니겠는가?

효율적인 이라크 의료 지원 방법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라크는 지금 상층부의 정부 조직이 갖추어 지고 있는 과정이라 갈등과 혼돈의 무정부 상태에 있고,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잘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협회나 정부 차원의 의료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선 목마른 사람에게 한 그릇의 물을 주어 갈증을 없애주는 것과 같은 NGO 스타일의 긴급 의료 지원이 효과적이고 급선무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우물을 파주거나 정수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협의는 이라크 정부가 제자리를 잡은 후에나 할 일 입니다. 의협이 정부나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10개 과에 하루에 1,200명의 외래 환자를 본다는 아랍에미레이트(UAE)가 지원하고 있는 알 쉐크 자이드 병원처럼 이라크의 어느 중소 병원과 연계하여 약, 재료, 의료기구 그리고 의료인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운영해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지역도 바그다드 중심지보다는 외곽이나 시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라크 사람은 모두가 선남선녀, 그러나 거리는 고물차의 전시장

이라크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이라크 남자들은 참으로 잘 생기고 덩치도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여자들도 하나같이 미인이었습니다.

이라크 남자들은 능력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4명까지 부인을 갖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없는 사람은 한 사람의 부인도 없었습니다.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려면 경제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스태미너도 출중해야 합니다. 이슬람 율법에는 외도가 절대적으로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스태미너 강화법이 있다고 들었으나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이라크에 간다고 하니 어느 짓궂은 친구가 "이라크에 가서 부인 한명 만들어 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이래저래 죽습니다. 그 부인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거기서 죽고, 데리고 오면 여기서 만누라에게 맞아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라크 시내에는 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폐차 직전의 고물차들 이었습니다. 물론 최고급의 새차도 보였지만 대부분의 차들은 페인트가 벗겨져서 너덜거리고 범퍼가 없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심지어 본네트가 없는 것도 굴러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차종만은 벤츠나 BMW 등 세계적인 명차를 비롯하여, 많은 일본의 Toyota와 한국차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차는 상당히 새차의 범주에 드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에어콘도 안되는 고물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마음만은 비교적 느긋하고 양보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마치면서.

뜻하지 않게 선발대의 일원으로 그것도 단장의 임무까지 부여받고 10일간 이라크를 돌아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6월 5일 의협에서 공식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 수첩을 참고하여 A4 용지 12장 짜리 공식보고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 중, 하, 3회에 걸쳐 의협신보 독자들을 위한 리포트(report)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라크 방문이 의협의 위상과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하고, 절망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라크 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

슈크란.(Thank you의 아랍어)



오르골 매장

아버지와 아들

홋카이도 기행



박창로
박소아과의원 · 안동
TEL 054-853-3777
E-mail addam98@hitel.net

글머리에

시골 영감이 난생 처음으로 박람회를 다녀왔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랑이다.

"고것 참 희한하데, 별의별 신기한 게 다 있어."

"우리 아들며늘네가 효자지. 암, 구경 실컷하고 왔어."

막걸리를 한 잔 걸치니 재방송이 자꾸 이어져서 아무래도 듣기 싫은 꽃노래가 되어버렸다. 미처 여건이 안 돼서 박람회를 못 가 본 친구들도 처음엔 재미있게 얘기를 들어주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응답해 주었으나 듣기 좋은 꽃노래가 오토리버스로 계속되니 그 영감을 만나는게 귀찮고 부딪칠까 슬슬 피하게 되었다.

해외여행도 그런 것같다. 당사자야 재미있어서 깨가 쏟아지고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래지고 와 벌어진 입을 다물 여가가 없어서 턱 관절이 뻣뻣했겠지만 실제 가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장황하고 두서없는 얘기를 들어주기란 여간 고역이 아니다. 마치 골프를 처음 입문했을 때 몇명 모이면 온통 공치는 얘기라 문외한인 경우 얼마나 동석하기 힘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것이다.

필드에 나가서 직접 뒷땅을 쳐봐야 알 터인 즉 자꾸 뒷땅치는 얘기를 해봐야 무슨 실감이 나겠는가. 남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 하다간 밉살스럽게 보이기 딱 맞다.

더군다나 시간과 여유가 없이 다들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언젠가 실행에 옮겨봐야지 하고 미루던 차에 어떤 녀석이 기세좋게 빵빠레를 울리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는 것이다.

행여 '그 자식 잘나가네, 돈 좀 벌었는가. 여행 했으면 했지 잘 난 척 하기는.' 이런 생각을 과거에 나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마추어가 말하기엔 좀 건방진 얘기가 되겠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쓰는 그 순간이 행복해서인데(프로들의 창작의 고통 운운은 차원 높은 다른 세계의 일이지만) 막상 다 쓰고난 뒤에는 나르시즘적 요소가 강하여 생각을 드러내서 쓴다는 행위보다 훨씬 더하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또 얼마나 강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어떤 글을 아무리 사소한 곳에라도 발표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글 읽어봤어?"하고 묻고 다닌다면 그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는가?

요즘도 가끔 그런 노인이 있다. 자신이 쓴 붓글씨를 들고 다니며 "한 번 봐주게, 글이 어떤가?" 하면서 동년배의 찬사 정도를 구걸하러 다니는 못난이 말이다.

인터넷도 그렇지 않은가? 리플없는 글을 올렸을 때의 그 쓸쓸함.

그러나 뭐든 처음이고 서툴 때 남을 의식하는 정도가 더 할 것이다.

장황하게 이렇게 내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런 저런 생각들지 않게 뭐든 열심이면 부질없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박람회도 자주가고 큰 맘먹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열심히 글을 써보고 필력이 자꾸 늘면 리플은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또 쓸쓸하지 않게 리플도 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솔하게 토로하는 각기 다른 생각들 그 모두가 소중하며 그것이 다 모이면 진짜 살아있는 경험의 공유이며 내가 앞으로 실천할 것에 대한 자료의 보고가 되는것이다.

꼭 돈이 많아야 여행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더러는 다소 무모하게 대책없어 보이는 일도 꾸밀 수 있을 것이다.

희한하게도 거의 고희를 앞둔 나의 아버지와 둘이서 이른바 배낭여행을, 사실 나 역시 경영수지를 생각하면 즐겁게 휴가갈 마음이 나질 않았지만 일본 홋카이도로 다녀왔다.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흐릿해지기도 하고 부자간의 추억에 대한 기록이며 혹 북해도로 여행가게 될 분들에게 나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는 않을까해서 글을 올려본다.

내가 아직 박람회 갔다온 영감은 아니며 붓글씨를 들고 다닐 나이도 아니지만 혹 앞서 기술한대로 오해는 없길 바라며 언젠가 모든 면에 좀 더 경험이 쌓이면 이런 부질없는 나의 글도 나중에 읽어보면 가소롭지 않겠는가.

출발전 우여곡절

19개월짜리 꼬맹이가 있는데, 이녀석을 맡기고 여행을 갈 만한 처지가 되질 않았다.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마눌께서 스스로 해외여행을 포기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남편 수입을 생각하건데 소비행태가 과하다는 둥 아픈 데를 건드리기까지 했다. 난 속으로 답답했다. 올 여름이 되기까지 일년을 기다렸는데.

사실 부부가 일본에 가기로하고 KAL에 문의해서 성수기를 피해 마일리지 공제로 공짜 비행기를 예약해 둔 상태였다. 사탕 하나를 손에 쥐었다가 놓친 아이처럼 난 점점 조급해졌다.

그럼 어떻하지 이제 와서 내가 어디에 예약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휴가를 보낼거냔 말이야 마치 윽박지르는 듯한 어조로 마눌에게 다그치듯이 질문을 해대곤 했다.

그 와중에 결국 마눌이 마음을 먹기를, 자기는 애기 때문에 어치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일년을 기다려 좁은 진료실에서 오지않은 환자를 기다리며 용을 쓰고 앉아있던 당신도 기분전환을 해야할 터이니 가능하다면 아버님(그녀의 시아버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길래 처음엔 당황했다.

아! 위기다, 온 몸으로 느꼈다. 결국 결정을 강요받는 순간이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내가 뜨신 밥을 계속 얻어 먹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표정은 또 어떡하고 다녀와야 하는가.

"허허, 노인하고 무슨 여행을..."

일단 이정도로 말을 받아놓고 밤새 고민했으나 정답을 몰랐다.

일단 그녀의 생각으론 가족 합산 마일리지로 어차피 공짜 비행기 혜택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를 지목한 것이리라. 흔히 예상되는 어머니(그녀의 시어머니)의 질투심 같은 것은 애초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 어머니는 멀미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못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의 생각으론 좀 남들과 다르다면 다르다할 독특한 부자관계를 익히 알고있는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처럼 그저 부자(父子)가 가끔 만나면

"어, 왔나? 씻고 밥무라."

이러시면 그걸로 부자지간에 대화가 소멸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같이 야구장도 가고 영화도 보며 메이저리그에서 최희섭이가 홈런이라도 치면 시외전화를 해서 TV 보고 있냐고 통화를 하고 이번에 신간소설을 누가 먼저 샀으니 더 사지말것을 서로 일러 주기도 하는 아무튼 그런 사이이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오케이 사인을 보내셨다. 과연 꼬맹이 핑계로 처자를 두고 일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그녀에게는 시아버지인 나의 아버지와 내가 함께 동행해도 부작용이 없을런지 고민이 되었다.

좀 더 더워져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면 그녀의 순수했다할 마음도 폭염 앞에 맥없이 오염되어 그시간 시원한 북해도에서 산천경계를 유람할 남편을 생각해내곤 이를 부드득 갈지도 모를 일이다.

지역의사회에서 연배가 높으며 화류계를 평정했다할 유력인사를 만나서 차돌박이를 굽고 소주를 마시며 자문을 구해보았다.

기름이 알맞게 타들어가며 익은 차돌박이를 뒤집다가 깜짝 놀란다. 절대로 그렇게 여행을 하는 법이 애초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된다며 가만히 두고 보면 도시락을 싸들고 나를 따라다니며 말릴 기세였다.

그래서 그날밤 술이 적당히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마눌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여행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국내 승용차 여행을 제안하면서 전라도 맛기행이 어떻냐고 했다.

국내에선 시원한 곳은 이미 예약마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녀의 기억속의 전라도. 아마 몇 해 전이던가 전라도 진도 어느 여관에서 무지막지한 폭염 때문에 다시 오지말자던 그 전라도. 나는 은근히 그 뇌관을 건드려 본것이다.

다음날 아침, 전라도 여행도 좋지만 이왕 마음먹은것 다녀오고 휴가 끝나고 제발 그만 놀 궁리하고 돈 좀 벌 궁리를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최종 퍼미션이 난 것이다.

사실 놀고싶고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부자지간의 배낭여행일테고 이미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하게 된 것이다.

같이 늙어간다고 할 수 있는 부자의 배낭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삿뽀로 시내에서 택시를 탔을 때 우리가 부자지간임을 밝히자 그 나이든 택시기사가 했던 일본식 영어는 이랬다. "그레이또 빠밀리"

출발 준비

1. 비자

비자는 여행사에 의뢰하면 금방 나온다.

2. KAL 마일리지

KAL 마일리지 공제 건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공제 포인트가 많이 차이가 난다. 비행기 탑승 시점 기준인데 가령 비수기 출국, 성수기 귀국이면(역으로 성수기 출국, 비수기 귀국인 경우에도) 각각 해당되는 포인트 대로 공제된다. 물론 성수기에 출입국이면 가장 포인트가 많이 들고, 비수기에 출입국이면 적은 포인트로 다녀올 수 있다.

또 한가지, 도꾜를 가나 북해도를 가나 마일리지 공제 포인트는 똑 같다.

가족합산 마일리지일 경우 미리 공제 위탁신청서(말이 맞는지 모르겠네)를 제출해야 한다(여행가지 않는 가족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빌린다는 뜻). 반드시 여행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마일리지 신청을 해야한다(마일리지 비행기 좌석은 한정되어있다).

역시 공짜는 힘들다. 마일리지 공제신청도 아무 여행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KAL 지점에서 한다(이곳은 촌이라서 부득이 대구의 아버지를 파견 보냈었다). 그것을 다시 변경하자니(마눌→아버지) 사람만 변경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신청된 마눌 건은 무효화 됨으로써(다른 후보군이 이미 대기중) 다시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8월 22~25일 일정으로 미루어졌으며 그것도 겨우 가능했다. 일정이 미루어진 덕분에 비수기 출입국 마일리지로 산정되어 포인트를 아껴둘 수는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공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3. 환전

환전은 병원 옆 외환은행 지점장실에서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으며 편하게 했다.

만엔, 천엔, 백엔, 오십엔 등으로 골고루 바꿨는데 우리돈으로 150만원 정도 바꿨으나 귀국해서 보니 돈이 많이 남았다.

호텔 등은 카드결재로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근검절약 정신 때문에 알뜰한 여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로 천엔(우리의 만원 짜리에 해당) 짜리를 사용했었다.

4. 여행일정

노인과의 동행이라 일정을 대폭 줄이고(원래 짜놓은 계획은 강행군) 느슨하게 잡았다.

인터넷으로 각 여행사의 북해도 팩키지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인천공항 출발 북해도 신치토세 공항 도착 노보리벳츠(온천지구) 1박 삿뽀로 2박(오타루 관광 포함) 귀국의 일정을 잡았다.

도야(호수가 있는 도시)와 하코다테는 다음 번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몇 권의 여행 안내 서적도 사서 보았는데 시공사의 'JUST GO' 시리즈가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었다.

5. 호텔

젊은 사람들끼리라면 유스호스텔, 비즈니스 급의 좀 저렴한 호텔, 심지어 캡슐호텔 등에서 숙박하면 되겠지만 좀 무리해서 특급호텔로 잡았다.

삿뽀로에서는 게이자 플라자 삿뽀로 호텔을 인터넷 대행 사이트를 통해 예약했다(조식포함 기준이다).

먼저 조건을 맞추어 예약신청하고 돈을 입금하니 '바우처' 라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그것을 인쇄해서 현지 호텔에 제출하면 되었다. 물론 현지 호텔에서 따로 방값을 낼 필요가 없다.

노보리벳츠에선 '다이이치 다키모토칸' 이라는 호텔을 예약했는데 직접 인터넷으로(영문판 사이트로 들어가서) 예약을 마쳤다(예약 대행하는 여행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호텔에서는 체크아웃시에 카드로 결재했다.

다이이치 다키모토칸 호텔에선 좀 비싸지만 Japanese style room(다다미 방)으로 신청했다(석식, 조식 포함 기준). 알다시피 호텔 방값은 팩키지로 갔을 때가 가장 싸고 그 다음은 대행사를 통한 경우이고 개인으로 예약하면 가장 비싸다.

6. 핸드폰 로밍 서비스

미리 011에 연락하여 팩스로 로밍신청을 해두었다. 출발당일 인천공항 011 센타에서 서류를 보이고 핸드폰까지 빌렸다(삼성 애니콜 기종 중 딱 한가지만 로밍가능하다해서 기종이 틀린 관계로 기계까지 빌리는 값을 치루었다).

7. 배낭꾸리기

가장 간편하게, 가장 가볍게 갔다 오기로했다.

디카는 메모리를 좀 증량하여 총 300MB를 준비했다. 캠코더는 가져가지 않았다.

북해도는 한여름에도 선선하다 하여(그 당시 온도가 22도 정도) 잠바를 하나 따로 챙겼다.

서울에서의 1박

삿뽀로행 비행기가 아침 9시 출발인지라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1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남의 그랜드 인터콘티넨탈을 숙소로 잡았다. 왜냐하면 호텔 바로 옆 건물이 도심공항 터미널인 관계로 미리 탑승에 필요한 출국수속을 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새마을을 타고 대구에서 출발했다. 각자 배낭을 하나씩 등에 지고.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으셨다. 출발 며칠 전부터 감기기운이 있었고 워낙 소심한 성격이신지라 가이드 여행이 아닌 자유여행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했다. 늙은 부모가 그저 장성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따라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은 나의 오산이었다. 80 먹은 노인이 60 아들 걱정하고 간섭한다더니 아버진 오히려 나를 보호할 작정이셨으니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듯했다. 장소를 옮길 때나 차량으로 이동할 때마다 소위 소지품 검사에 해당되는 행위를 반복 확인 당해야했다. 여권, 지갑, 핸드폰, 비행기표, 노인이 일일이 강박적으로 간섭하셨다. 좀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예상 못한 현상이었다. 전직 교사이신지라 마치 수학여행 때 학생 인솔하시듯이. 일어 공부도 많이 하신 듯했다. 조그마한 수첩에 가나다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생활일어를 적어 오셨다. 아주 어릴때 식민치하에서 일어를 사용했지만 도무지 일어방송을 보니 알아듣지를 못하겠다면서 자신감을 잃고 계셨다. 나야 뭐 일어든 영어든 잘 못하지만 그냥 대충 개긴다는 생각으로 나섰는데 말이다. 새마을이 서울역에 서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호텔로 왔다. 날씨가 많이 더웠다. 아버지는 출발도 하기전에 기진맥진이시다. 아, 노인이 이거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서울을 포함해서 4박5일의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잠깐 쉬었다가 코엑스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구경하러 갔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재미있었다. 촌놈이 서울 구경을 오니 온통 신기하질 않겠나. 아버지는 역시 예상대로 천정형 대형 수족관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하셨다. 무엇이든 부실공사에서 인재로 이어지는 사고소식을 늘 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 이기에 걱정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싶었다. 순두부찌개로 저녁을 해결하고 호텔에 들어 샤워하고 9시 뉴스를 보면서 취침하기로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 저녁 9시 부터 왠 잠이 오겠나 싶었으나 먼저 잠든 것은 나였고 정신없이 잤던 모양이다. 인기척이 있어 깨니까 아버지께서 불도 켜질 않고 가방을 뒤지고 계셨다. 수면제를 찾으신다는데 내가 깰까봐 불도 켜질 않고 어둠속에서 허둥대고 계셨던 모양이다. 내가 일어나 불을 켜고 수면제를 찾아드렸다. "네가 코를 많이 고는구나. 늘 그런건가?" "아뇨 ...가끔 코를 곤다고는 하지요, 근데 아버진 여태 못 주무신 겁니까? 요즘도 불면증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이 몇시지. 새벽 2시라." 부자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숨죽이며 한참을 관찰해 보았다. 음...이제 주무시는 듯. 나는 그시간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코를 골면 아버지 숙면에 방해가 될 것같아서다. 부자는 마치 릴레이 보초 서듯이 그 특급호텔에서 각자 반토막씩의 시간만 잠들 수 있었던 셈이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내가 들으며 아침이 올때 까지 전전반측. 출국 첫날, 찌부둥한 몸상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본땅을 밟다

쪽발이, 왜구, 제국주의, 사무라이, 일본순사, ECONOMIC ANIMAL 등등이 아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일본에 관한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 것이다.

우린 항상 그들을 지칭할 때 항상 일본인이 아닌 일본놈으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항상 일본놈은 밉고 얍삽한 족속이며 우리가 언젠가 응징해야할 타도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었다.

축구경기를 비롯 스포츠 경기가 국가대항으로 벌어질 때도 일본만은 이겨야된다고 생각하고 정기 한일전은 월드컵 못지않게 온국민이 비장한 마음으로 숨죽이며 경기를 관전하곤 한다.

우리가 이기고 싶은 일본놈들. 백전백승을 할려면 지피지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알고있는 일본이 위에 나열한 단어가 내뿜는 이미지에 한정된다면 무얼 그리 배울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소유한 그들의 포텐셜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으며 그런 의문이 늘 일본을 한 번 가 봤으면 하는 이유였다.

6시 핸드폰 알람소리에 부자가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잠을 좀 잤느냐고 물었다. 서로 바라보는 얼굴은 둘 다 부시시. 나는 젊으니까 괜찮지만 노인이 걱정이었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체크아웃, 잠만 자고 호텔에서 나오자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세상에나... 새벽 6시 체크아웃이라.

호텔 뒷문을 타고 돌아나오니 바로 도심공항 터미널이었다. 출국수속을 마치고 리무진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아버지, 눈 좀 부치이소. 한 시간 쯤 걸립니다."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다. 여행은 행복한 고통이라고 한다지만 체력이 딸리니까 억지로 웃기도 싫으신 것 같았다. 어찌하겠나. 이제 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배낭을 다시 정리했다. 거의 대부분의 짐을 나의 배낭으로 옮겼다. 소화제와 진통제를 투약하기로 결정했고 일본 여행 일정도 대폭 줄여서 수정하기로 혼자 작정했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지 않지만 인천공항은 규모나 시설 면에서 국제공항으로서 손색이 없다. 공항 청사로 들어서니 비로소 여행하는 기분이 들고 마음도 조금씩 설레이기 시작했다. 핸드폰 로밍 서비스 신청을 했고 식사를 하러 지하로 내려갔다.

한식코너, 손님이 많았고 다소 비싸지만 만원짜리 우거지 해장국을 맛있게 먹었다. 음식은 정갈했다. 아버지도 예상을 깨고 한 그릇 다 비우시고 이제 좀 여유를 찾으신 듯했다.

공항 면세점, 절대로 선물을 사오지 말라던 마눌의 엄명이 있었지만 본시 여자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는지라 루즈 한개를 샀다. 잘못 사면 돈쓰고 욕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각자 다른 신문을 하나씩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이륙 후 잠시, 아침식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까우면 당장 먹지를 않고 내릴 때쯤 달라고 할까 하다가 아버지께서 그냥 대충 먹자 하셔서 또 먹게 되었다. 조금 남기긴 하였지만 포만감때문인지 어젯밤 잠을 설치고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닌 탓인지 졸음이 쏟아져서 다행히도 두사람 다 한참을 잘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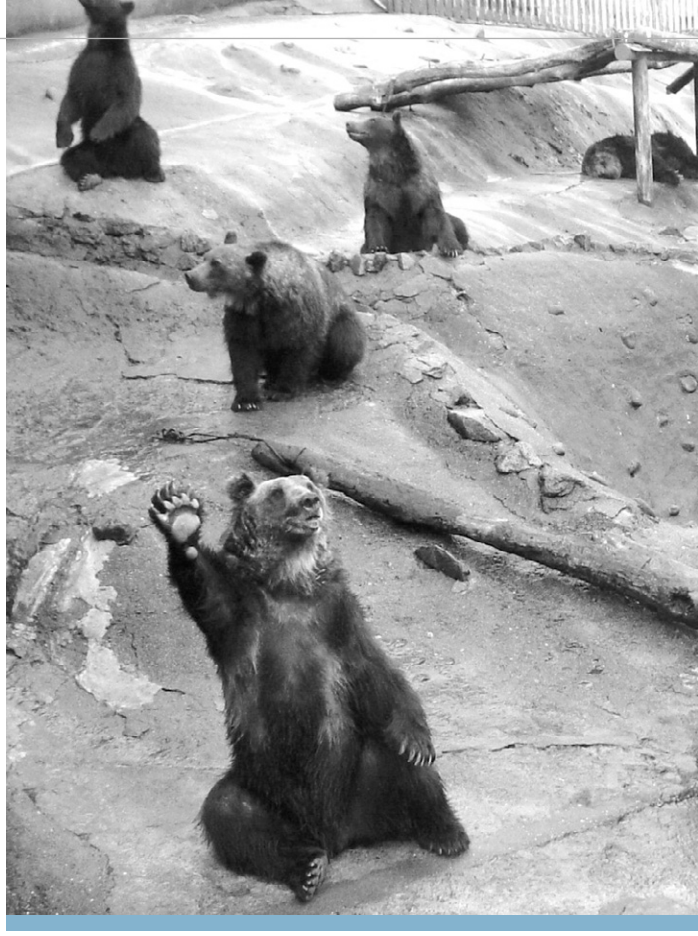
비행시간 2시간 반쯤. 우리가 내린 곳은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이었다.

공항 규모는 작은 편이었고 우리와 외모로는 거의 구분이 안되는 사람들이 안내하고 이리저리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아무 말이 없었고 우린 짐이 전부 등에 있으니 가방 찾는다고 길게 서서 트레이를 돌아나오는 각양각색의 가방을 무료하게 쳐다보는 수고도 필요치 않았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다. 공항청사. 이제부턴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헤딩'이다.

일단 기차를 타야했으니 관광안내소를 들렀다. 여자 안내인이 두 사람 있길래 그중에서 좀 친절해 보이는 아가씨에게 내가 영어로 하다가 일어로 하다가 막 섞어서 마구잡이 의사소통을 시도했는데 그 아가씨가 아무래도 영어가 서툴고 나의 일어 역시 서툴었으니 제대로 될리가 없다.

짠.....갑자기 유창한 일어실력을 뽐내며 구원군이 나섰으니 그는 다름아닌 일어에 자신이 없다는 아버지셨다. 거의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하셨다. 사람을 막상 대하고 그들의 입과 손짓을 보니 대화가 가능하셨다고 했다. 아무래도 관광객한테는 천천히 쉽게 설명해 줄려는 것도 이유가 되리라. 어찌했든 이제는 든든한 통역이 생겼다. 실제로 아버지는 여행 내내 거의 자유로이 의사소통을 하셨고 가끔 한문으로 적어서 보여주면 일본인들이 알아 보기도



했다. 일본사람들은 정말 한자를 많이 아는 듯했다.

할일이 없어진 내가 아가씨에게 간고꾸 마프(KOREAN MAP)를 하나 얻고 한국인 가이드는 없냐고 물으니 아 글쎄 바로 옆에 있던 여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네.

무슨 코메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나 원 참. 그 한국인 여자는 왜 그리 무표정하던지.

교통 특히 관광 인프라라고 해야 하나, 공항 청사 바로 지하로 에스컬레이타를 타면 바로 기차로 연결된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 노보리벳츠로 가는 기차가 바로 5분후에 출발이라 하네. 수면부족과 과식으로 지친 부자가 이번엔 기차시각에 맞춰서 공항청사를 뛰어 갈 수밖에 없었다. 자꾸 처지는 아버지를 자꾸 닥달해서 지하로 가니 역무원이 상황을 짐작한 듯 내가 노보리벳츠 후다리(2명)를 외치기 무섭게 표를 끊어주고 일반 기차인데도 지하철 입장하듯이 바를 무릎으로 치고 들어서니 이젠 또 계단을 타고 올라야하네. 젊은이는 닥달하고 노인은 허겁지겁.

겨우 기차에 올라타니 자유석인데 기차 내부는 거의 자리가 찼는데도 너무 조용해서 마치 빈 기차에 올라 탄 느낌이었다.

각자 따로 일본인 옆 자리에 좀 떨어져 앉아서 숨을 몰아쉬다가 황망간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웃기지도 않아서 아버지와 나는 서로 부지불식간에 마주보고서 둘만이 씩 한참을 그렇게 웃었다.

기차는 40분 정도 걸렸고 아버지는 오히려 기력을 회복하신 듯 옆자리의 일본인 젊은이와 영화 러브레타에 관한 대화를 나누셨다.

기차는 정말이지 일분의 오차도 없이 목적지 노보리벳츠역에 정시에 도착했다.

만약 어디에 내리는지 잘 몰라도 그냥 그 예정 도착시각에 그냥 안 보고 내려도 바로 그 목적지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노보리벳츠라는 온천관광지는 시골이었다.

기차는 그렇고....자 이제는 호텔이 있는 온천장까지 버스를 타야한다.

어디서 어떻게 할것인가. 기차역 대합실을 빠져나왔다.

햇살이 비치는데 별로 덥지않다. 지금 한국은 35도 정도의 폭염이라는데 여긴 약간 따뜻한 느낌만 들 뿐이었다. 배낭을 맨 두사람 모습이 쾌적하다.

과연 부자지간의 배낭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있을까.

드디어 출국직전의 어두운 마음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노보리벳츠에서

노보리벳츠 역에서 나와서 버스 승강장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처럼 노선버스 번호에 따라 기다리는 곳이 정해져있는 듯했다. 표를 어디서 끊는지, 그냥 타고서 돈을 주면 되는지를 몰라서 앞에 서있는 사람들을 기웃거려 보았다. 내가 황당한 일어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아...도꼬니 티켓또와.....오네가이 시마스..." 어쩌고 하며 뒤에 서 계시는 아버지를 쳐다보니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 웃고만 계셨다.

그런데 대충 통하는 모양이다. 어떤 노부부가 버스를 타고 내릴때 돈을 주며 자기네도 온천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잠시후 버스가 왔다. 좌석이 20개쯤이나 될까. 작고 오래되어 낡아보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올라갈때 무슨 번호표같은 것을 각자 떼어서 챙기고 있었다. 마치 은행에서 대기표를 받는 것처럼. 가만히 들여다 보니 진짜 번호가 적혀있었다.

한적한 시골길이다. 녹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 차창밖은 광활한 수풀림이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 차도로 달리니 잠깐 순간 아찔한 느낌이 들었다. 혹 이거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마주 오는 차가 오른쪽으로 비켜갈 때마다 갑자기 방향감각을 잃은 듯 어리벙해지기도 했다.

자. 이 번호표는 뭘까. 돈은 내릴때 준다고 했는데 요금은 얼마인지? 번호만 있을뿐 금액은 적혀있지 않은데. 일단 가면서 생각해보자.

고개를 들어 버스 전면 차창을 보며 여전히 오른쪽으로 비켜가는 차들을 바라보다가 요금에 관한 의문은 풀렸다. 다름아니라 운전석 위 쪽으로 일종의 전광판이 걸려있는데 거기엔 1부터 50까지의 숫자가 적혀있고 그 숫자 옆으로 200, 300, 400 이런식으로 수시로 변하는 숫자들도 또 보였다. 마치 증권객장에서 숫자가 변하듯이.

아! 구간별로 오래 타는 만큼 돈을 내는구나. 자기가 받은 번호에 해당하는 요금이 내릴때 정해지고 우리처럼 운전사 옆 돈통에 먼저 번호표를 넣고 해당 현금을 넣으니 잔돈이 쏟아져 나왔다.

노보리벳츠 온천장까지 10분 정도 걸렸을까. 요금은 아마 1인당 3000원쯤 낸 것같다.

일본의 3대 온천지구라는 이곳은 사람들로 붐비지는 않았으며 오랜 역사의 시골마을이나 특급호텔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지도를 펴고 슬슬 걸으면서 좌우에 들어선 식당과 상가를 기웃거리는데 역시 우동집과 게를 비롯한 해산물 파는 곳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소리를 내지르는 호객행위는 없었다.

그저 조용하다. 내가 인터넷으로 예약한 다이이치 다키모토칸 이라는 호텔은 최신식 건물은 아니나 역사가 100년 쯤 된다는, 흔히 들어온 말로 치면 온천수 원탕을 확보한 원조 온천 호텔이라고 보면 된다.

호텔로비에 들어서니 전통 일본여성 복장을 한 여인들이 20명 쯤 일렬횡대로 도열해 있다가 일제히 90도로 인사를 해서 잠시 멈칫했다.

이번엔 내가 영어로 프론트에서 말을 하는데 그네들은 역시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일식영어는 아니었다. 일식영어란 맥도날드를 맥구르도나르도.... 이런식으로 발음하는 것 아니겠나.

예약한 japanese-style room, 이른바 다다미 방은 별로 시설이 좋지는 않았다.

방으로 올때까지 기어코 두사람 배낭을 혼자 들고 온 키작고 못생겼으나 정말 친절한 서빙담당의 나이 든 일본 여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에게 일본 옷(유카타)를 내어 놓으며 편하게 입으라고 했다. 이후 전통차를 한 잔 타주고 나갔다.

노보리벳츠 곰목장을 향했다. 걸어서 5분정도. 입구에 닿으니 나이든 남자가 뭐라고 하는데 케이블카 입구까지 걸어가든지 아니면 리프트를 이용하라해서 리프트를 이용했는데 애들 장난감처럼 기구는



유카타를 입은 필자

조잡했고 타고 올라가는 시간도 거의 10초 밖에 되질 않았다. 케이블카는 작은 것이었고 산을 하나 탈 정도로 높게 올라가기에 도대체 이런 꼭대기에 어디에 곰이 있는지 의심이 되었다.

산꼭대기에 오르니 바람은 시원한데 케케한 냄새가 났다. 곰이 쇼를 하는 주위로 애들이 모여있고 기념품 가게마다 곰인형이 있었다. 곰목장에 이르자 수십마리의 곰들이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날렵하게 가로채고 있었다. 글쎄 '곰이 많다.' 이런 생각 뿐. 케이블카에다가 입장료까지 너무 비싸게 준 것 같아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 아무생각없이 하나 사 먹은 아이스크림 맛이 너무 좋아서 이후 나는 거의 매일 서너개의 아이스크림을 사먹게 된다.

화산분화구인데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지오쿠타니' 를 향했다.

역시 걸어서 5분정도. 거대한 분화구였다. 사진을 몇 장 찍고. 가만히 보니 지오쿠타니 바로 밑에 우리가 묵을 호텔이 위치해서 원조 원탕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왜 원조에 집착할까? 우리나라에선 원조가 너무 많아서 진짜원조가 어느것인지도 모르면서.

예약된 7시 식사시간에 맞춰서 15분 전 쯤 방으로 돌아왔다. 방 밖에선 5분 전부터 그릇을 옮기는 소리가 아주 조용히 들렸는데 언제나 밥이 올까 오히려 기다리는 쪽이 괜히 하릴없이 조마조마한데 역시 놀랍게도 7시 정각에 노크를 하질 않은가.

아마 방 밖에서 시계를 보고 카운트했음이 분명했다. 기차시각에 이어 밥시간까지 정확하다. 너무나 정확하다. 식사는 정갈하다. 순서대로 나오며 가지수도 많았고 초밥, 회, 튀김, 조림, 생선, 신선로 비슷한 것 등 종류는 많으나 양은 찔끔찔끔 다행히 밥은 여분으로 많이 주길래 안심이 된다 싶었다.

어쨌든 방안에서 밥을 먹고 창문을 여니 밖에선 어느새 비가 오고 있었다. 전통복장(유카타)를 입고 거리를 우산들고 다니는 사람도 보였다. 날씨는 서늘하다. 모기도 없고 에어콘도 필요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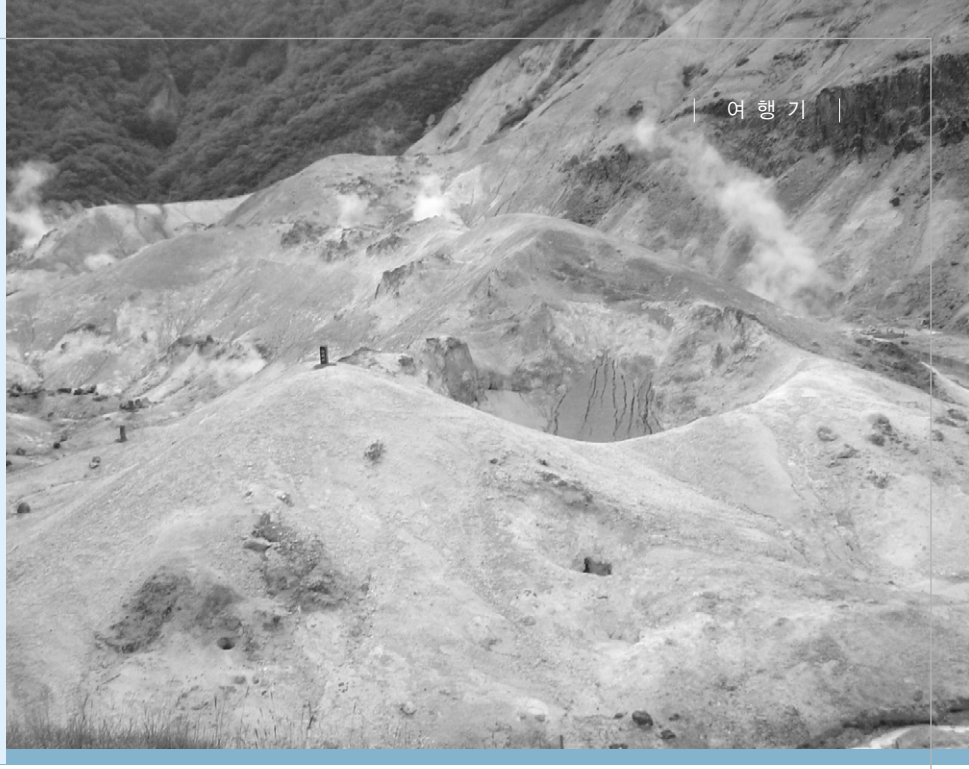
어두운 하늘에 수십마리의 검은 비행체가 나타나서 섬뜩한 소리를 내지른다.

"가악 까악, 가악 가악...." 윽, 까마귀다. 기분이 나쁘다. 호텔주위를 빙빙돈다.

문화적 차이겠지. 일본에선 길조라고 한다. 난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와 난 유카타로 갈아입고 온천장으로 향했다. 슬리퍼를 신고 안에 팬티는 입고.

어색한 옷이었고 남들이 전부 나만 쳐다 보는 것 같고 이거 완전히 쪽발이가 된듯한 느낌이고 걷다가 가랭이 사이로 옷이 겹쳐서 뒤뚱거리기까지 했으나 조금 적응되니 오히려 편하고 사타구니로 바람이 실실 들어오는 것이 말하자면 기능성 옷이랄



까 외양보다는 실속을 추구한 것이 분명했다.

온천은 투숙객에게 무료이며 24시간 개장이다. 유카타를 질끈 동여맨 허리띠에 호텔 룸 넘버가 찍혀있었다. 그것으로 입장할 때 식별하는 듯했다.

탈의실에는 락카가 없고 그냥 바구니만 있었다. 간단한 음료코너 카운터엔 놀랍게도 나이 든 여자가 물끄러미 앉아있었다. 말하자면 그 나이든 여자는 남자의 벗은 몸을 마음껏 본다는 얘기가 된다.

온천 크기는 아마 부곡온천의 대온천탕 크기의 3~4배 정도 될 것이다.

노천탕도 있고, 물론 샴푸와 비누도 비치되어 있었다. 우린 들어가자마자 탕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여행은 행복한 고통이라.....여독이 풀리는 듯. 그렇게 큰 온천탕에 입장객을 세어보니 20명 쯤 될라나.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대부분 입장해서 탕 밖으로 돌아다닐 때 수건으로 중요 부분을 가리고 다니는 게 이상했다. 나는 자랑스럽게 내놓고 다녔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입장해서 들어와보면 조그만한 세면대 비슷한 곳에 물이 졸졸 흐르고 바가지가 놓여있던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몸을 씻고 탕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남을 배려하는 뜻인가 보다.

뭐 바로 좀 들어온들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더 들었다. 노천탕에서도 이웃 여탕이 더 높게 설계되어있었고 그쪽에선 남탕을 볼 수 있으나 역으로는 불가능했다. 아닌게 아니라 노천탕에 들어앉아 있는데 여탕쪽에서 상체 일부와 눈만 내놓고 이쪽을 보는 여인들이 있었다.

온천욕을 끝내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니 잠시후 식사 서빙하던 여자와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불을 깔아주고 잘 자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다 나갈 때까지 인사를했다.

이불은 크고 깨끗했다. 잘 잤다. 아침에 나혼자 본전 생각이 나서 온천을 한 번 더했다.

아침식사는 부페식이었다. 음식이 훌륭했다. 스프인지 알고 떠온 요쿠르트가 정말 맛이 있었다.

식당이 조용하다. 사람은 많은데. 모두가 식사를 끝내고 일어날 때에 의자를 안으로 밀어넣고 음식은 전혀 남기질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제법 음식을 남겼다. 욕심이겠지. 억지로 먹을 수는 없었다. 대신에 의자를 싹 밀어넣고 식당을 나왔다.

체크아웃. 이제 삿포로로 향한다. 버스로 두시간. 기차가 빠르지만 호텔에서 내주는 무료 셔틀이라기에 출국하기 전에 예약했었다. 버스에 오른 사람은 십여명.

호텔 담당자가 올라오더니 일일이 출석을 부른다. 차창 밖엔 호텔 직원이 이미 대여섯명 일렬횡대로 서서 거듭 인사를하고 손을 들어 배웅하고 있다. 아무리 경영이고 장사라지만 정말 친절하고 고객의 마음에 와닿도록 열심이다.



북해도대학

그들의 배웅을 뒤로 하며 버스가 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에 다시 한 번 오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그리 볼만한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숙박비가 싼 것도 아닌데 말이다.

떠나는 자의 뒤통수에다 대고 끊임없이 인사하고 손을 흔들며 잘가라고 미소짓는 뒷마무리야말로 숙박과정의 다소 불편한 심기와 순간적으로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 심리를 그들이 잘 이용하는 것일까?

어쨌든 기분좋게 삿포로로 향했다.

삿포로에서

호텔 셔틀 버스가 두시간을 달려서 삿포로 시내로 들어섰다. 화려하지 않고 깨끗한 도로가 반듯하게 이어져있다. 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무작정 길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는데, 회사원 모양새의 그 일본인은 자기가 오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약 100 미터쯤 우리 일행을 안내하고는 자기가 오히려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각본대로 드라마를 찍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그들의 친절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기차역 근처 게이오 프라자 삿포로 호텔. 출국전 예약 대행한 여행사로부터 미리받은 바우처를 제시하고 여장을 풀었다. 이제 여기서 2박을 묵게 된다.

사실 나는 어떤 리조트에서 푹 쉬는 스타일의 여행보단 수학여행 체질이라 좀 더 일정을 빡빡하게 했으면 좋았지만 아버지의 연세와 아니 그것보단 컨디션을 고려해서 똑같은 호텔에서 묵기로 했다.

기차역으로 갔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쇼핑매장이 다양하고 화려했다.

지하로 내려가 지하철 자판기에서 티켓을 구입했고 라멘을 먹기 위해 두 정거장 거리의 스즈키노 역에서 내렸다. 역시 지하철 안에서도 분위기가 조용했다.

특이한 것은 지하철 내부에 전광판으로 열차의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해 주고 있고 다음 정차할 역이름도 한문으로 전광판에서 반짝거리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다음역에 대한 안내방송과 지도에 의존해야 하질 않은가.

라멘 요코초. 대구의 교동시장 좁은 길과 흡사하다. 라멘 전문거리이다. 좌우로 수십개의 라멘집이 있는데 유독 한 집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기다리기가 귀찮아서 아무 데서나 먹을까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자고 하셨다.

30분쯤 기다려서 미소라멘을 먹었다. 비싸다. 한 그릇에 8000원. 면은 쫄깃쫄깃, 국물은 진했다.

라멘을 먹고 슬슬 걸어다니며 오오도리 공원에 닿았다. 삿포로 시내 한 복판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큰



라멘 오코쵸

공원이며 겨울엔 눈축제, 여름엔 삿포로 맥주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TV탑, 시계탑 등을 둘러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

자꾸 졸립다는 아버지를 닥달해서 내가 마치 빡빡한 일정으로 강행군하는 단체 가이드 여행의 인솔자처럼 재촉했다. 그 다음으로 홋카이도 구청사라는 곳을 둘러보았다.

뭐 별 느낌이 없었다. 그냥 옛날 관청이겠지 했는데 당시로선 신식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북해도 대학을 들어섰다. 허리 굵은 나무와 우거진 숲. 역사도 오래된 듯했지만 학교가 거대한 공원처럼 느껴졌다. 'BOYS, BE AMBITIOUS.' 라는 말을 남겼다는 클라크 동상을 가보고 운치있다는 포플라 에비뉴를 찾아가 보았다.

대학을 빠져나와 대학주위를 일부러 빙 둘러서 호텔쪽으로 향했는데 인상적인 것은 대학주위에 술집, 당구장, 카페가 없다는 것이다.

컴퓨터관련 건물, 서점, 패스트 푸드점 등만 눈에 들어왔다.

확실하게 면학 분위기가 잡힌 셈이었다.

회전초밥 집 내부를 들여다 보면서 옹기종기 모여서 소근거리는 일본인들을 들여다보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가 응축되어 있다는 그런 차분한 느낌을 받았다.

북해도 게를 먹어봐야 하겠는데 책으로 공부한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날이 어두워져서 찾을 수가 없었다. 할수 없이 호텔로 돌아와 호텔식당에서 게요리와 삿포로맥주 2시간 무제한이라고 붙은 광고를 따라 자리를 잡았다. 음.....맥주가 두시간 동안 무제한이라 흐흐.

둘이서 10만원쯤 들었고, 왕게, 털게 등등 종류대로 나왔는데 아마 게를 큰 것으로 6마리 쯤 먹었고 맥주는 나혼자 2000 CC 쯤 마셨다. 아무래도 아버지 앞이라 퍼질러 놓고 마시지를 못하니 그저 반주로 마신 셈이다. 게가 흔한 모양이다. 높은 물가를 비교했을때 푸짐하게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게껍질을 벗기는데 필요한 연장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매우 샤프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쉽고 용이하게 게살을 파낸다는 것이고 또한 앞 가슴에 두르는 앞치마도 일회용으로 종이로 만들어져서 그걸 목에다 끼우도록 되어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구이 요리를 맥주와 마시는데 남자 셋이서 흥겹게 떠들더니 나갈때 일제히 한 쪽 구석에 걸린 양복케이스(?...양복사면 넣어주는 손에 드는 검은색 옷가방)를 열더니 일제히 그속에 보관해둔 자신들의 우아기(우리가 늘 쓰는 일어죠)를 입는 것이 아닌가. 고기집에서 고기를 굽고 나면 냄

새가 옷에 배인다는 고민을 우리도 늘 하는데 이네들은 희한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다.

배부르게 먹고 호텔 밖으로 산책을 나왔다. 정말 자판기의 천국이다. 각양각색의 자판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자판기로 생산되어 일회용으로 튀어 나올 것 같았다. 건물에, 슈퍼에, 거리에.... 그렇게 많은 자판기를 보았는데도 어느 것 하나 찌그러지거나 깨져서 거리의 흉물로 방치된것은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눈여겨 볼 것은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짓거나 보수공사를 해도 주로 밤에 하고 건물외벽을 뚜꺼운 천으로 감싸서 공사중임을 짐작만할 뿐 보행과 교통에 전혀 지장을 주질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호텔로비에서 내가 인터넷을 신청해서 마우스를 까닥거리고 있는데 금새 직원이 다가와서 30분 제한의 표시를 알리는 작은 팻말을 책상위에 얹어놓고 갔다.

차라리 30분 동안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뒷사람도 30분동안 다른 볼일을 보고 올 수있어서 좋은 것같다. 아닌게 아니라 컴퓨터 옆에는 노트가 하나 있는데 순서대로 이용자의 예약 명단을 적을수 있게 해 놓았다.

날씨가 좋다고 인터넷은 알렸다. 친한 친구에게 이메일 하나 보냈다.

객실로 돌아와서 욕실에 있는 일회용 인스턴트 커피종이 크기의 삼분의 일도 안되는 치약을 신기한 듯이 나는 자꾸 만져보았다. 빗도 너무 작아서 앙증맞기까지 했다.

역시 비치되어있는 유카타를 입어보고 뭐라고 지껄이는 일본 TV 뉴스를 시청했는데 자막에 보이는 한문으로 대충 이해했다.

역시 이곳도 교통사고 뉴스가 오래도록 보도가 되었다. 간혹 조총련 뉴스도 나왔다.

스모경기. 드라마....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잠이 들었던 것같다.

다음날은 운하의 도시, 영화 러브레타의 촬영지이며 조성모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하는 오타루 기행이 예정되어 있었다.

오타루기행

차창 밖으로 파도가 넘실된다. 배를 탄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달리는데도. 삿포로~오타루 구간은 기차로 40분 쯤 걸리는데 그 중 삼분의 이 정도의 구간을 기차 바로 옆을 달리는 바다를 구경하면서 갈 수있다. 이러다가 혹 기차레일이 파도속을 향하지는 않을까하는 상상도 하면서.

오타루는 작은 시골이었다. 관광안내소에 가니 한



바다옆을 달리는 기차

국어판 지도를 내어준다.

한 눈에 봐도 길찾기가 어렵지 않아 보였다. 일본 영화 러브레터를 보질 못해서 떠나기 전에 동네 비디오 가게를 뒤져서 보고왔었다. 첫 장면에 "오갱끼데스까"라고 주인공이 외치는 장면이 인상적이라는데 나는 별로 감흥을 받질 못했었다.

시간과 추억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편지라는 낭만적인 요소가 관객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나 할까.

오타루 역사를 나와서 똑바로 걸었다. 거리에 놓여진 긴 나무의자에서 삶은 게를 먹고있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역시 아이스크림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앓이를 하곤 했었는데 홋카이도산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이 있다. 하루에 몇개를 먹어도 배가 아프지도 않고. 많이 달지않고 고소하고 부드럽다. 큰 냉장고가 있고 아이스크림과 우유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였다. 역시 나이가 든 여자가 상세하게 영화 러브레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물론 아버지가 통역을 담당했다. 부자가 어린애처럼 소프또 아이스크리무를 하나씩 들고 즐거워했다.

나는 덤으로 우유 한잔 더 먹었다. 그냥 유리컵에 한 잔 내 주는데 2000원가량 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슈퍼에서 파는 우유나 아이스크림보다는 이런 전문점에서의 맛이 좋았다. 전문점이라고 해 봐야 서너평 남짓한 공간에 두사람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나무의자가 하나 놓여있을 뿐이다.

조금 더 걸어가니 영화에서 주인공이 서로 인연이 엇갈리고 비껴가는 장면이 연상되는 네거리가 나오고 이어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않은 오타루운하가 눈에 들어왔다.

그냥 통통배 정도가 다녔을까 싶었는데 운하 주변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많은 관광객이 있었고 어떤 다리 위에서 손님이없어 빈둥거리는 인력거군에게 여러가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장사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저 희희낙낙이었다. 운하를 따라 쭉 걸어 보았다.

유명한 오르골 매장을 찾아야겠는데 제법 거리가 되는 듯했다.

정말 비싸다는 택시를 타보았다. 늙은 운전사였으며 택시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운전사와 승객 자리 사이에 아크릴로 된 경계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승객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이겠지. 택시 강도도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분 정도 타고 만원 쯤 들었다.



오타루운하

오르골 매장이라는 곳을 들어서니 은은한 불빛속에서 온갖 종류의 오르골들이 빙빙 돌면서 음악소리를 내고있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처음에 오르골이 뭔지를 모르고 무슨 유리 세공품 매장인 줄 알고 찾아 왔었는데 점원과 얘기해본 결과 유리세공품 매장은 따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책에서 보긴 봤는데 헷갈렸던 모양이다.

딸아이를 위해서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오르골 하나를 샀다.

오타루에는 초밥을 전문으로 하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다.

물가가 비싼 곳이지만 메뉴판에 그림과 함께 보이는 초밥가격은 많이 비싼 것이었다.

한접시에 오만원. 아버진 결국 자기는 굳이 이만원짜리를 고집하셔서 둘이 같이 놓고 먹었는데 다양한 종류가 밥위에 얹어져서 나올 뿐, 대구에서 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초밥집이나 다를 바가 없는 듯했다.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둘이서 만오천원이면 되는데. 움직이고 먹는데 돈이 엄청 든다더니 물가가 진짜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싼 점심을 먹고 다시 기차를 타고 이번에도 신기한 듯이 바다를 바라보며 삿포로로 돌아왔다. 다시 삿포로에서 삿포로 비어가든을 마지막 여행지로 남겨둔 채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듯 밝은 모습인데 결국 여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고 현지적응에 성공하신 듯하니 벌써 귀국 전날이 되고 말았다.

귀국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관계로 독일의 뮨헨과 일본의 삿포로 등지의 맥주가 맛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같다. 온천장이든, 호텔이든, 거리의 상점이든 어디에서나 생맥주를 틀어서 팔고있었다. 한 잔에 얼마이며 안주도 필요없고.

깨끗하고 맑은 맛. 여자들도 특히 많이 먹는다고 한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뭐랄까 맥주의 그 특이한 일종의 지린내(?)가 나질않고 시원하다.

그런 삿포로 맥주 박물관과 비어가든이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갔다.

박물관에 도착해서 가이드 설명으로 둘러보고 시식코너에서 주는 맥주와 안주를 먹었다. 시식 코너인데도 시간 제한을 두고 마음껏 먹게해서 나는 몇잔을 더 얻어마셨다.

옆 건물이 유명한 비어가든이다. 단체 관광으로 누가 갔을때 맥주를 셀수도 없이 많이 먹었다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조금 이른 시각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가격은 양고기와 삿포로맥주를 무제한으로 먹는데 두시간에 일인당 3~4만원 정도인가로 기억된다.

그냥 구경만했다. 원래 아버지는 술을 전혀 안드시고 게다가 육식을 싫어하시니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언젠가 다시오면 퍼질러놓고 마셔야지 하고 속으로 다짐했다.

슬슬 걸어서 시내로 향했다. 밤이 되었다. 거창하게 얘기해서 삿포로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이번 여행에서 아버지와 크로스 컨택을 해서 느끼는건데 아버지는 기력이 많이 딸리시는 듯 동작도 많이 느려졌다.

차시간에 늦거나 거리에서 목표물을 찾을 때나 내가 닥달을 하면서도 답답한 나머지 짜증도 좀 났었고 비유하자면 밧데리가 많이 소진된 듯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걱정도 되었다.

부모를 신나게 들쳐업고 구경을 나섰다가 등에 업은 부모가 너무 가벼워 업고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흐려지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고 또 그런 만큼 이번 여행의 의미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부자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여권, 비행기표, 지갑, 핸드폰.....

귀국하는 날 아침이 밝았다. 호텔에서 주는 일식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기차를 타고 신치토세 공항으로 향했다. KAL 부스를 찾아 우리나라 말을 거의 완벽하게 하는 일본인 직원이 해주는 출국수속을 마치고도 두시간이나 남았다.

나 혼자 매장을 둘러보았다. 슈퍼마켓에서 그냥 호기심에 사왔던 홋카이도산 치즈와 버터 때문에 마눌에게서 간만에 점수를 좀 땄다. 빵순이인 마눌이 식빵에 버터를 조금씩 아껴가며 바르고 치즈도

얇게 회를 뜨듯이 조금씩 넣고 빵을 먹을 때마다 치즈와 버터 맛에 대한 칭찬을 반복하곤 했다.

요약하면, 홋카이도의 청정초지에서 생산된 유제품 즉 우유, 이이스크림, 버터, 치즈, 요쿠르트 등이 모두 맛이 있는 것은 원료가 좋기 때문인것이다.

"아들 며느리 덕분에 잘 놀았다.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일본은 늘 호기심의 대상이었는데 거의 70년만에 와보게 되었구나."

"아버지, 체력보강해서 다음엔 도꾜를 가봐야지요."

"아니다. 아이고 해외여행이 무리다. 이젠 너희들 세대이니 부모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부자(父子)는 이런 얘기를 비행기 안에서 주고받았다.

마찬가지로 가방찾는 번거로움없이 인천공항 청사를 빠져나왔다.

리무진을 기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계속 단체관광객을 한꺼번에 수송해야 하니 다른 구역으로 가라했다. 다른 곳에서 기다렸다. 도저히 배차가 안되니 이번엔 환불을 해줄테니 다른 회사 버스를 이용하라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간신히 참았다. 여행기분을 망치고 싶지않아서이다.

나도 이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인천공항 리무진버스들이 과다경쟁으로 덤핑, 승객 유치경쟁으로 돗떼기 시장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공항에 내려서 바로 지하로 가면 기차로 연결되는 관광 인프라를 우리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김포공항에서 다시 대기. 대구행 비행기가 내린 것은 오후 9시였다.

다시 택시를 탔다. 정신없다. 난폭운전, 합승행위, 운전자의 욕지꺼리.

아.....우리나라에, 내가 사는 이곳에 드디어 돌아왔구나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다.

집에 가니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해 놓으셨다.

시세이도 영양크림을 하나 내놓으니 비싼 것을 왜 사왔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싫지않은 표정이셨다.

아버지는 집에 오시니 거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듯.

일본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듯 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시설좋고 편안한 특급휴양지에 온 듯이, 아니 그보다 더 편안하고 여유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던가.

글을 마치며

철지난 여행기가 되어버렸다. 지난 여름의 이야기이니까.

쓰다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다. 여행기는 정보를 교환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장감있는 여행기는 어떤 여행 안내 책자보다도 사실적일 수 있다. 직접 발로 뛰고 좌충우돌 착오를 겪으며 느끼는 기대와 아쉬움이 혼재한 살아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여행기가 몇 안되지만 끝까지 읽어준 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70 노인을 모시고, 아니 중년의 아들을 데리고 각자가 서로 보호자임을 자임한 이번의 부자간의 배낭여행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고 그 아쉬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추억을 남기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세밀한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어서 기록해 두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고 나중에 혼자 들여다 볼 요량으로 일기처럼 써서 간직하려 했으나 막상 밖으로 내놓고 보니 문재가 없는 탓에 부끄러움이 하나 더 추가되어 버렸다.

더운 여름날 휴가도 없이 혼자꼬맹이 애기를 보며 수고했던 마눌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제18회 경북 · 전북의사회

자매결연 친선행사

영호남 친선행사는 이번에 경북의사회가 방문하는 순서에 따라 2003년 11월 1일~2일간 남원한국콘도에서 가졌다.



최유근
최유근안과의원 · 안동
TEL 054-854-5775
E-mail cyg4112@hanmail.net

영호남 친선행사에 경북의사회 임원진과 각지구 회장, 일반회원, 사무국장 및 직원 등으로 30명이 참가했다.

포항, 경주 회원들은 버스로 갔으며 일부는 합류하기도 하고 여타 지역은 승용차로 갔다.

저녁 7시경에 남원한국콘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자주 보는 낯익은 얼굴을 대할 때 벌써 우리는 친근감을 느꼈다.

친절한 안내에 따라 방을 배정받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식장에 모여서 식순에 따라 행사를 가졌다.

최환열 전북의사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김병주 명예회장의 의사윤리 낭독, 양 도 의사회장의 환영사, 김학경 전북회장은 김명웅 전임회장의 임기 후 새로 선임이 된 분으로 남원삼성병원장으로 남원에 오신데 대해서 열렬한 환영을 해 주셨다.

변영우 경북도 의사회장은 남원에는 춘향이 유명한데 변학도와 성이 같아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농을 했다.

최진영 남원시장님이 참석해서 환영사를 해 주셨는데 남원에는 변학도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변강쇠도 이 곳 출신이라서 변영우 회장님을 뵈오니 더욱더 친근감이 더 하다고 은근히 추켜 주었다.

영남지방의 음식 맛이 남원보다 못한 이유를 연구해 보았더니 칼 때문이라면서 식칼은 남원이 유명하다면서 남원목기와 더불어 기념품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돌아가실 때 사가지고 가라는 당부를 했다. 지방단체장으로 고향상품을 홍보했다. 의사단체와의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마침 이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하여 김재정 의협 회장님과 이채현 의협 대의원의장, 박희백 한국의정회장, 김완섭 의협 감사, 김세곤 상근부회장, 노만희 총무이사, 광역시도 의사회장으로 박한성(서울), 김대헌(부산), 정무달(대구), 박민원(광주), 신현우(울산), 정복희





(경기), 정종훈(강원), 김기선(충북), 김병기(충남), 위각환(전남), 이원보(경남)의 여러분이 동행을 해서 분위기를 더욱 알차게 되었다.

김재정 회장님은 정부의 의약분업 실패로 의사들만의 희생만 강요한다면서 감옥갈 각오로 투쟁하시겠다고 결단력을 보여주셨다.

우리 모든 의사회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다짐하게 되었다.

여흥으로 남원의사회에서 기획한 국악공연을 관람했고 이어서 직접 여성국악인의 선창으로 춘향가와 창을 배우기도 했다. 마침 국악 창이 유네스코 지정 유산으로 발표된 분위기에서 호남지방 특히 남원이 뜬 소리고장이 되어서 실감이 더 했다.

친선의 밤 노래자랑의 사회를 본 양형식 부회장은 전주시의사회장이기도 한데 반듯한 인상에 목소리도 좋고 깔끔한 진행에 감탄을 했는데 전주방송국 토론회 사회자로 출현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어서 우리들을 감동케 했다.

의사들도 다반사에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자긍심을 깨우쳐 주었다.

이튿날은 지리산 등반팀과 골프팀으로 나뉘어 참여를 했는데 최호섭 대한의사산악회 회장이 지리산 등반을 총괄해서 뜻이 가중되었고, 필자는 골프팀에 참여를 했는데 10개팀의 예약을 했다는데에 수고가 많았고 주최측 회원 10명은 취소를 하는 배려가 있었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섬진강을 끼고 위치한 광주CC는 자욱한 새벽안개가 해가 중천에 올때 10시쯤 되어서야 안개가 사라졌다.

같은 조인 유인상 원장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골프를 좋아하시고 스코어도 훌륭해서 건강의 과시와 더불어 후배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등산팀과 골프팀의 합류는 남원 새집이라는 식당에서 했다. 역사 긴 추어탕, 추어찜은 남원 새집이 원조라서 남원의 대명사가 된 집이란다.

미꾸라지 양식을 해서 공급되기도 하지만 중국산이 대부분이라면서 수입을 강조한다.

이 행사를 위해서 25개의 객실을 준비한 배려와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 경북에서 할 때를 염려해서 사전에 세심한 준비와 기획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양측 사무국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김병주 명예회장님, 신은식 직전 회장님들의 18년전 산파역할에 감사드리고 건승을 빕니다.

두홍서 남원시의사회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행/기

한라산(漢拏山) 산행기

(성판악-백록담-관음사)

- 2004년 경북산악연맹 한라산동계합동등반 -

• 성판악 (1′40″)→ 사라악대피소 (30″)→ 진달래밭대피소
(2.3km/1′)→ 백록담 (1.3km/25″)→ 왕관능 (0.6km/20″)→ 용진각대피소
(0.5km/15″)→ 삼각봉 (3.1km/40″)→ 탐라계곡대피소
(1.8km/30″)→ 구린굴 (1.4km/20″)→ 관음사매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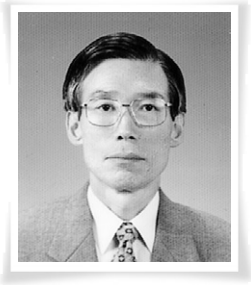
• 성판악 (5.2km)→ 사라악약수 (2.1km)→ 진달래밭대피소
(2.3km)→ 백록담 (8.7km)→ 관음사

올해 2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산악연맹이 주관한 2004년 한라산동계합동등반에 참가했다. 나는 이번 등반으로 한라산에 일곱 번 올랐으나 관음사 코스를 밟기는 1993년 4월 5일 관음사-백록담-성판악 산행 이후 처음이다.

산행코스는 성판악-백록담-관음사(18.3㎞)이고 항해(航海) 편을 이용할 계획이었는데 가는 날은 태풍으로 인하여 비행기로, 돌아 올 때는 계획대로 배를 탔다. 관음사 코스가 힘들다 하여 참가자 200명이 성판악으로 올라가 62명만이 관음사로 하산했다.

올 겨울 제주에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려 한라산에는 1m이상의 눈이 쌓여 있었다. 성판악 주차장에도 여기저기 눈덩이가 있었다. 새벽 6시 처음부터 스패츠와 아이젠을 찼다. 머리에는 헤드랜턴을 켜고 일렬로 올랐다. 눈이 깊게 다져져 러셀(눈길)이 오히려 걷기에는 수월했다. 음력으로 정월 25일 새벽이라 흰 대지(大地)위에 달빛이 비쳐 주위가 파랗게 밝았다. 문득 "지리산 벽소령 명월"이 연상됐다. 길게 장사진을 이루고 오르는 행렬이 수색작전에 임한 병사들의 행렬 같아 숙연했다. 3~4백m 간격으로 이정표가 세워져 산행거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성판악-백록담 9.6㎞>

오를수록 눈이 많이 쌓여 난간 표지시설이 잠길 정도다. 성판악 코스를 반정도 오를 무렵인 7시 반이 되어 날이 훤히 밝았다. 10분쯤 더 오르니 사라악대피소다. 등산객이 몰려 밝고 상기된 모습으로 얘기를 나눈다. 잠시 서서 신발 끈을 확인했다. 여기서부터 완만한 경사가 시작된다. 주위가 온통 눈이 쌓여 러셀은 깊은 골이 됐다.



반재돈
삼성정형외과연합의원 · 청도
TEL 054-373-2700
E-mail jdban33@hanmail.net

8시15분에 진달래밭대피소에 도착했다. 진달래밭대피소는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성판악 코스 마지막 대피소다. 수년 전 (1998년 연맹합동산행) 성판악-백록담 왕복산행시는 눈보라와 강풍으로 진달래밭대피소에서 통제되어 되돌아 내려왔다. 사방이 트인 평평한 산록에 눈이 쌓여 은빛 평원을 이루었다. 모두들 잠시 쉬었다가 바쁘게 오른다. 러셀이 나있어 쉽게 찾아 오르긴 해도 시야가 흐린 날이면 자칫 잘못 들어 헤매게 된다. 오늘은 날씨가 청명하여 백록담이 바로 위로 올려다 보였다. 안내판 <백록담-(2.3㎞)-진달래밭대피소-(2.1㎞)-샘터:사리악약수-(5.2㎞)-성판악>

진달래밭대피소에서부터는 고도를 더하며 숲 사이로 깊게 나있는 러셀을 숨차게 오른다. 한라산 적설기(積雪期) 산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고대나 설화는 눈에 뜨이지 않았다. 백록담을 1.0㎞ 남겨둔 지점에서 길은 왼쪽으로 비스듬히 굽어 오르다 숲 지대를 벗어나면서 급경사 화구벽(火口壁) 오름길이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널찍한 나무계단에 양옆을 통나무로 난간이 설치돼 있고 눈(雪)이 없어 아이젠을 하고서 오르기가 불편했다. 게다가 강풍이 몰아쳐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난간목을 잡고 오르는데도 몸이 기웃거렸다. 정상에 오를수록 바람이 더 거세고 추워서 틀 모자로 바꾸어 쓰고 그 위에 방한모를 뒤집어썼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오르니 9시 30분이다. 먼저 오른 등산객은 백록담을 확인하고 바람을 피해 낮은 곳을 찾아 움츠려 앉아 있다. 이전에는 백록담에 얼음이 깔려 있었는데 오늘은 메마른 바닥을 눈이 덮고있었다. 윗세오름에서 남벽으로 오르면 자연석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여기는 통나무기둥에 한라산 정상 1950m라 표기해 두었다. 한라산 정상은 등산로 일대가 그동안 심하게 훼손되어 지난 수년동안 휴식년제로 통제됐다가 등산로 정비와 보호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작년부터 개방됐다.

한라산에 오면 1992년 1월 1일 혼자서 백록담에 올랐던 기억이 새롭다.

전날부터 내린 눈이 새벽에야 그쳤다. 차량은 제주시에서 어리목까지만 통행이 가능했고, 9시가 되어 어리목 코스만 입산이 허용됐다. 경찰대와 산악구조대가 앞장서 러셀을 만들며 리드하고 그 뒤를 등산객이 한 줄로 따랐다. 나뭇가지에 붙은 시그널과 리본을 눈으로 감싸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를 방불케 했다. 사제비동산에서 만세동산(만수동산)에 이르는 긴 평원에 두 줄로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노란 깃발과 빨간 깃발 사이로 행렬이 끊일 줄 몰랐다.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었고 대지는 적막으로 고요했다.

윗세오름대피소에 오르니 비로소 등산객이 모여 떠들썩했다. 그 이상 오르는 것을 통제했고 체력과 장비를 확인하고서 선별 입산시켰다.

대피소에서 조금 오르니 작은 나무들이 눈으로 덮여 러셀이 깊은 광도처럼 나있고 약간 큰 나무 아래는 동굴이 되어 그 속으로 등산객이 기어 들어가 간식을 즐기고 있었다. 에스키모를 연상케 했다.

백록샘을 지나고서 행렬이 크게 호(弧)를 그리며 남벽(南壁)으로 백록담에 올랐다. 원색 차림으로 한 줄로 이어 오르는 행렬이 장관이었다. 지금 상상해도 황홀하다. 남벽은 그 해 무너져 지금껏 폐쇄돼있다.

백록담에 올라서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보라가 쳐 한발 앞이 보이지 않았다. 커다란 자연석에 백록담 등산개념도를 새긴 표지석과 한라산 백록담을 그린 대형 입간판을 찾아 남벽 정상임을 확인했으나 화구(火口)는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다. 동쪽으로 조심히 자국을 옮기니 바위를 얼음과 고드름이 감싸 수정으로 만든 장식품같이 찬란했고 어느 것은 사슴뿔처럼 혹은 산호처럼 영롱했다. 신비스러운 자연의 조화에 감탄했다. 카메라가 없어 그것을 담아두지 못한 것이 지금껏 아쉽다.

한라산 눈 산행을 여러 번 했으나 여태껏 그때처럼 아름다운 설경은 보지 못했다.



2004년 2월 15일. 한라산 백록담 산행
(뒷줄 맨오른쪽이 필자)

한라산 날씨는 예측을 못할 만큼 변덕이 심하다. 갑자기 눈보라가 치고 짙은 안개로 백록담을 확인 못하고 하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당장 우리보다 1주일 먼저 다녀온 1차 팀이 그랬다.

오늘은 제주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다. 여러 번 한라산에 올랐으나 이런 청명한 날씨는 처음이다. 등산객 모두가 맑은 날씨와 백록담을 확인했다는 성취감으로 흥분됐다. 백록담에 오르면 커다란 까마귀 떼가 몰려오는 것이 또 하나의 명물이다. 예외 없이 오늘도 모이를 얻으려 머리 위를 멤돌았다.

우리 팀 후미를 기다리는 동안 기념으로 사진 두 컷을 찍고 나무계단에 앉아 사라오름 성널오름 등 아래에 흩어져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기생화산과 제주시 그리고 그 앞 바다를 조망했다. 정상의 거센 바람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잔잔하여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10시에 우리 회원 6명과 함께 하산을 시작했다. 성판악과 관음사 갈림길에 화살표로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관음사 8.7㎞ 성판악 9.6㎞>

관음사로 내려가는 등산로 들머리도 널찍한 나무계단 길이다. 내려가는데 벌써 관음사에서 올라오는 등산객을 만났다. 관음사 매표소를 아침 6시 30분에 출발했다고 하니 3시간 30분 걸린 셈이다.

관음사로 내려가는 길은 잠시 오르막길로 오르다가 북쪽 협곡에 가까워지면서 아래쪽으로 돌아 구상나무 숲 사이 급경사로 내려간다. 성판악쪽과는 달리 관음사 코스는 북사면이라 적설량이 엄청 많았다. 내려가는데 러셀이 너무 깊어 발목을 다칠 뻔했다. 도중에 한번 쉴만한 넓은 공간에는 관음사에서 오른 등산객이 모여 쉬고 있었다. 눈길

에 쫓기듯 내려가니 앞이 확 트이면서 왕관능이다. 바람이 한풀 꺾여 추위가 덜해 틀모자를 벗었다.(10:25) 이정표 <백록담 1.3㎞ 관음사 7.4㎞>

왕관능에서 용진각대피소까지 0.6㎞ 내리막길이 관음사 코스 가운데 가장 급경사다. 용진각대피소는 폐쇄돼 있고 대피소 주위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배낭을 풀고 이곳저곳에서 취사를 하고 일부는 눈 쌓인 서쪽 거벽을 오르고 있었다. <10:45 백록담 1.9㎞>

1993년 4월 산행 때는 용진각대피소-왕관능-북벽이 빙판이었는데 2월인 지금은 눈이 쌓여 또 다른 모습이다. 용진각대피소에서 내려오다가 계곡에서 백록담을 올려다보니 마치 알프스 산록 같은 아름다운 정취가 풍겼다.

백록담을 중심으로 오른쪽 거봉과 왼쪽 화구벽이 알프스의 험봉으로 비쳤고 용진각대피소를 중심으로 흩어져있는 등산객이 알프스 산록에 스키어로 보였다. 우리나라 적설기 산행에서 처음 보는 정경(情景)이었다.

계곡을 건너 급경사 설벽(雪壁) 밑으로 올랐다. 눈사태사고가 자주 났던 삼각봉 중턱이다. 지금은 낙석방지 그물 망이, 그 아래 비탈길에는 난간 시설이 설치되어있다. 삼각봉 이정표<백록담 2.4㎞ 관음사 6.3㎞>에서 삼각봉(1,695m)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이름대로 날카롭게 치솟은 삼각봉이다. 조금 더 내려가니 비로소 제주시가 시야에 아담하게 들어왔다. 개미목을 지나 개미등능선에 올라 40분을 넘게 지루한 외길을 내려가니 탐라계곡대피소다. <11:50 관음사 3.2㎞> 개미등능선은 탐라계곡과 개미계곡 사이의 좁은 능선이 개미 등과 흡사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각봉이 개미의 머리이고 탐라계곡대피소가 꼬리인 셈이다. 탐라계곡대피소도 폐쇄되어 건물만 남아 있다. 그 안에 들어가 도시락을 먹었다.

탐라계곡대피소에서 아래로 12분 동안이 험로(險路)이다. 밧줄과 쇠사슬을 잡고 얼어붙은 급경사길을 내려가 계곡을 건너고 다시 언덕을 오른다. 그리고서 다시 평탄한 눈길을 내려간다. 관음사 1.4㎞를 앞두고 구린굴, 기온이 올라 여기서부터는 눈이 녹았다. 아이젠을 벗어들고 25분을 내려가니 관음사매표소다. (13:15)

공원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는 이미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비교적 선두 그룹으로 내려왔다. 출발 예정시간은 2시인데 앞당겨 출발하여 쇼핑센터에 들려 오후 4시에 성산포항에서 (주)대하선박 "만다린"호로 출항(出港), 오후 8시에 통영항(統營港)에 도착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우리 회원끼리 한자리를 잡아 소주를 나누는데 어느 회원이 양주를 내놓아 거나하게 취했다.

또 한번 기억에 남을 한라산등반을 했다. 그 많은 참가자가 질서를 지켜 행사에 차질이 없었고 날씨가 좋아 백록담(白鹿潭)을 유감 없이 보았다. 관음사 코스에서 알프스의 정취를 느꼈다. 관음사 코스는 관음사매표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힘이 들기는 해도 그게 제 코스다.

| 수도사 |

春江 賓南洙 博士 靈前에



신은식
신정형외과의원 · 포항
TEL 054-247-3397
E-mail seskwj@hitel.net

아무것도 모른체 즐거운 산행길에서 돌아와 곤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한통의 전화가 걸려와 春江 賓南洙선배님이 운명하셨다는 비보가 전해왔습니다. 몇일전까지만해도 숨결이 다소 불편하시다는 전화통화에서 곧 회복되면 산책이라도 해야겠다고 하시던 선배님이 이 어찌된 일로 서둘러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까.

얼마전 병문안갔을때 심장박동기를 삽입했노라며 한번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왼쪽가슴위에 저의 손을 잡아끌어 대면서 이제는 상당히 호전될것이니 걱정하지말라 하시던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 동안 심장상태가 좋지 못하여 몇 번 입원도 하시고 하시던 진료업무도 그만두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뜻밖입니다.

항상 진료실에는 의학서적보다는 수필집이나 각종 문학지가 쌓여서 헌책을 파는 고서점인지 착각 할정도로 책들이 넘쳐났습니다. 선배님은 의사로서 수필가로서 이 사회의 등불로서 아직도 우리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셔야 할 참인술의 봉사자로 계셔야 할분이신데 그렇게도 서둘러 떠나셔야만 합니까.

잠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1976년 2월 포항 동광병원 내과 과장으로 부임하셨을때 한창 활기넘치는 정력으로 진료활동은 물론 사회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당시 이미 수필문학의 대가로 문단에 등단하시어 많은 작품을 발표하시고 의사회를 위하여 회지 발간에 공이 많으신 훌륭한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 였습니다. 그후 동창회, 의사회, 바둑친목모임등으로 자주만나게 되니 10년 선배이면서도 친형처럼 소탈하고 노소가 없으시며 언제나 즐겁게 남에게 마음의 부담이 없도록 좌중을 리드하시는 힘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경북의대 총동창회 이사회 모임에서 장시간 예산 결산 토의와 각지역 동창회 지부보고사항등 지루한 발표에서 타지역 지부회장들은 회원수, 재정상태, 기타활동을 보고하는데 동해지부회장이신 賓선배님은 그 보고는 유인물에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하시면서 빈가지변(賓歌之辯)을 늘어 놓는데

중국에 가니 고급호텔이나 고급식당이 모두 빈(賓) 자로 ○○賓이라고 쓰여 있으니 빈씨라 기분이 좋았고 하얼빈, 오스트리아 수도 빈, 미국가수 빈그로스비 등등... 빈씨 자랑을



늘어 놓는데 전좌중이 갑자기 웃음바다가 된 기억이 납니다.

선배님은 언제나 진료실을 지키면서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하셨으며 문학인들을 모아 문학불모지인 이곳에서 포항문인협회를 발족하시고 초대회장을 맡으시면서 포항문학을 창간하셨으며, 예총 포항지부, 형산수필문학회, 영남수필문학회, 안행수필문학회등의 지역예술단체장으로 활동하셨으며 1988년부터 포항지역 문학인을 위하여 "춘강문예창작기금"을 자비로 마련하여 소설가 김문수, 손춘익, 이문구, 시인 신경림, 수필가 정목일, 유병인씨등 여러명에게 창작기금을 수여하여 소설가 이호철씨등으로부터 극찬과 작품의 심사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청하 기청산농원 잔디밭에서 춘강문학상을 수여하시던 그 모습 생생합니다. 한편 수필가 한흑구선생님의 추모비건립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 보경사 인근 내연산자락에 추모비도 건립하셨습니다. 경상북도 도민상을 받으시고 KBS방송국 특별제작프로에 출연하여, 영일만 바닷가 모래사장을 거닐며 그 특유의 은백색의 머리카락을 소솔바람에 날리면서 소탈한 미소로 이고장 자랑을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1996년 고희기념문집을 발간하시어 영일만 바닷가 어느 횟집에서 이 지역문학인과 의료계 여러분을 초청하여 성대한 회식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구성진 흘러간 노래를 열창하시던 모습이 벌써 7년이 지났건만 어제같습니다.

이제 그 많은 작품들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시고 우리들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선배님의 그 깊은 정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선배님은 정영고희문집에 발표하신 흑자인생(黑字人生)이란 제목처럼 흑자인생을 사신분입니다. 많은 책을 읽으시고 책을 발간도 하시면서 이지역 문학계를 반석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장례날 많은 문학인들과 우리 의료계후배들이 참배하여 선배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유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분이 있기에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떨쳐버리고 어릴때 뛰어놀던 고향 경남 사천(慶南泗川)에서 고이 잠드소서.

2003년 8월

申 殷 植(前 慶北道醫師會長) 哭



2004년 2월 12일(목) 오후 7시 / 경주 코오롱 호텔 금관홀

특집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

의사 가족들이 보는 의사상

경북 의사회지 편집 위원회에서는 매년 특집을 하나씩 실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부드럽고 재미있으면서도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재를 찾다가,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선택하여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가족들의 눈을 통하여 의사 자신을 투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역과 직역 그리고 연령과 남녀까지 고려하여 선발한 참석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진솔하고 재미있고, 의사들의 폐부를 찌르는 정금일침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읽으시고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담회 참석자



정만진(사회 및 기록 정리)

경북의사회지 편집위원장으로 좌담회의 사회와 정리를 맡았다. 대한의사협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미 수필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수필과 비평 신인상을 받고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윤위분(경주, 80세)

본회 변영우 경북의사회장의 어머니로서 아들, 며느리, 사위, 손자 등 7명의 의료인을 만들어 내신 원로 교육자로서, 경주여고 교장을 끝으로 교육 현장을 떠났으며, 경상북도 초대 교육위원 이었다. 현재도 불국사 자원봉사단 부단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 민(포항, 54세)

포항 김안나신경정신과의원 김안나 원장의 부군으로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원예조경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이혜숙(포항, 47세)

포항 전민신경정신과의원 전민원장의 부인으로 MBC PD를 거쳐 현재는 대구교통방송에서 일하는 전문 방송인으로 두 딸을 가진 어머니이다.



남윤희(포항, 49세)

포항성모병원 장석범 의무원장의 부인으로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있는 어머니이다. 봉직 의사 부인을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다.



안익효(안동, 41세)

안동 혜성소아과의원 이기혁 원장의 부인으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초등 6학년의 아들과 초등 3학년의 딸을 두고 있다.



김효정(구미, 39세)

구미 박정돈산부인과의원 박정돈 원장의 부인으로 음악을 전공하였으나 현재는 전업 주부이다. 경북의학제에서 2회에 걸쳐 3행시에 입상한 경력으로 좌담회에 추천되었다.



이효진(경주, 28세)

동국대경주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하준영 선생의 부인으로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지난해 3월 결혼하여 현재 임신 7개월의 새내기 의료가족이다.

경북의사회 참석자



변영우(경주)

경북의사회 회장이며, 의협 부회장이다.
의협의 대외 협력 기획단장으로 17대 총선의 의료계 대책위원의 선봉에 서있다.



이경수(구미)

본회 보험이사이며, 경북의사회지 편집위원으로 구미 이경수내과의원 원장이다.
본 좌담회의 기록을 맡았다.



김광만(포항)

본회 공보이사이며, 경북의사회지 편집위원으로 포항 김소아과 권방사선과의원 원장이다.
본 좌담회의 기록을 맡았다.

정만진 사회자(좌담회를 시작하면서)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
우수한 인재들은 "묻지마"라며 의과대학을 지원하고, 의사들을 욕하면서도 악착같이 자기 자식은 의사를 시키려고 하는 나라. 그런데 그 영광스런 의사면허증을 손에 쥐고 있는 의사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투쟁의 구호를 외치면서 장외로 뛰쳐나가야 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나라.

이런 이율배반의 사회에서 의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의사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의사 가족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진면목을 파헤치고, 그들과 함께한 애환과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되새겨 봄으로써 오늘의 의사상은 어떠하며, 내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가까운 사람끼리 수다를 떨 듯이, 아니면 소주 한 잔 마셔가며 포장마차에서 개똥철학을 논하듯이 의사들을 안주삼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변영우 회장님의 인사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우 회장(인사말)

의사를 사랑하고, 의사를 제일 잘 알며, 의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의사가족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의사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낀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저의 어머니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어머님께서 모자를 쓰고 나오셨는데 이것은 미장원에서 파마를 잘못하여 머리 모양이 영 이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일동 웃음)

사회자(정만진) • 본격적인 좌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지역과 직역(職域) 그리고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호칭에 대하여 "여사"나 "교수" 또는 "선생님"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으나 참석자 여러분, 특히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가장 어른이신 윤위분씨의 의견에 따라 모두 "씨"자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길다 싶으면 사회자가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상적이고 고상한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의사들의 모임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비밀스럽고 흉보는 이야기를 직설적이고, 촌스럽고, 상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좌담회는 hot issue를 다루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중에 반론이나 첨가의 발언을 할 수 있으나, 발언자의 발언권을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특별한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좀 곤란한 질문도 드릴까 합니다. 정 곤란하면 어쩔 수 없으나 가능하면 사회자의 질문에 호응하시어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말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경북의사회지에 실리는 것은 곤란한 경우에는 "off the record"를 걸어주십시오.

참석하신 회장님과 편집 위원님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신청 하십시오. 가능하면 허락하겠습니다.

좌우명, 가훈 또는 본인이 즐겨쓰는 이야기는 ?

앞에서 각자 소개는 하셨으니 지금부터 패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좌우명이나 가훈 또는 본인이 즐겨 쓰시는 이야기 등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인사 및 본인 소개는 좌에서 우로 돌아가며 하였으니 이번에는 우에서 좌로 돌아가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윤위분씨부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人必自侮之然後 人而侮之 (인필자모지연후에 인이모지)

윤위분 • 사회자께서 교훈적인 이야기를 요구하시니 저의 정리된 좌우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님 말씀에 "인필자모지연후(人必自侮之然後)에 인이모지(人而侮之)"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업신여긴 뒤에야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못난 짓을 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질 않는다."라는 인간관계의 철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중(自重), 자존(自尊), 자강(自彊)하여 자기 책임을 다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누가 감히 그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세로 교육에 임해왔습니다.



윤위분씨 가족들

제가 학교에 나갔던 관계로 요즘 어머니들처럼 애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는데도 모두들 잘 커 줬습니다. 우리 회장(변영우 회장을 이렇게 불렀다)에게는 "정치계에 나가지 마라"했으나 아버지를 닮아서 상당히 정치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은퇴하고 곧 바로 경상북도 초대 교육위원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회장이 나가라고 권하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줬기에 당선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의원이 교육위원을 선출했는데 87명이나 되는 도의원들을 회장과 제가 나누어서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당선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 회장 부친께서도 정치적이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변영우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들 칭찬만 하시는데, 사실 퇴임 후에도 젊게 살기 위해서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교육위원을 권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경성법전을 나왔는데 김천시장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거가 완전히 돈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다 쓰고 낙선하여 집안이 완전히 거지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집안에 "정치는 없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김민씨께서는 교수님이시니까 신학기 첫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의사들에게는 사랑보다 자비가 더 필요하다."

김 민 •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랑보다는 불교의 자비가 더 저의 좌우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활은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니 대인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생활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이 대단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자 • 자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불교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여기 변회장은 불국사 신도회장이고, 저도 은해사 불교 교양대학에서 3개월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김효정 • 저 또한 천주교 신자이며, 애들이 세 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훌륭한 엄마가 되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

습니다. 아빠는 항상 바빠서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신랑은 고등학교 때 문과반 이었는데, 그때는 교차지원이 가능하여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방황하면서 의대를 다녔답니다.
지금은 당시 어머님의 선택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애들에게도 의대에 가기를 바라는 듯한 말을 하여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시어머니처럼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뿐만아니라 올바른 인성이 따라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이는 이제 중3, 중1에 올라가고 막내가 여섯 살 입니다.

사회자 • 이효정씨께서도 선생님 특히 사회 선생님이니 수업 첫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자.

이효진 • 저는 좌우명을 말 하라고 하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납니다. 특히 아기를 가진 후부터 남편과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시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되며, 작은사랑에서 점점 큰사랑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훈을 정한다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 사랑, 그 이상의 단어는 없습니다.
남윤희씨께서는 애들을 모두 미국에 유학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기러기 아빠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남윤희 • 저의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저는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포항공대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아버지 환갑에 미국 여행을 다녀온 후로 하도 미국 보내달라고 조르고,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특히 시간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아예 하지 말고, 일단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저의 남편은 약속을 철저히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날 지각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큰아들이 미국에서 잠깐 나와 모처럼 함께 찍은 모습, 강아지도 함께.

모든 시댁식구들이 미국에 있기에 아이들 걱정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총각인 삼촌이 거의 키워주고 있고, 1년에 한번 정도 만납니다. 옆에서 잘 보살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른스럽게 스스로 해결하고 자립심도 강해져서 다행스럽고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의대에 가기를 바랐는데, 둘 다 business 쪽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언론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천수만 명을 상대로 이야기 하니까 말입니다. 이혜숙씨께서는 언론인으로서 특별한 신념이나 행동철학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이 많을 때는 일의 순서를 정하여 처리한다.

이혜숙 •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MBC에 출근하기 시작하여 20년 이상 방송인으로서 시간과의 싸움, 특히 초단위의 싸움을 하는 급박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를 정하여 처리한다는 생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째 가족의 건강, 둘째 아이들의 교육, 셋째가 저의 직장일이라는 순서를 정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직장을 후 순위에 두다보니 다른 동료보다 승진이 늦기도 했으나, 이를 감수하고 지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남편과 저는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기회를 많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모래면 50인데, 60이 될 때까지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 주고 싶습니다. 30대에는 나이 들어 여유가 생기면 크루즈 여행을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웃과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더 많이 봉사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와 명예보다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11층까지 걸어 다니는 남자.

사회자 • 건강에 대하여 말할 때 흔히들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고 하지요. 저는 만보걷기를 하고, 저희 아파트가 11층인데 거기까지 걸어 다니다보니 "11층 까지 걸어 다니는 남자"라고 불리고, 그것에 대하여 수필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저의 집 사람도 11층까지 걸어 다니는데, 처음에도 한꺼번에 올라가지 못하더니 이제는 잘 올라갑니다. 운동이라면 먼저 헬스클럽부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필요 없이 자투리 시간만 잘 이용해도 얼마든지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빨리 걷습니다. 1분에 140보, 10분에 약 1.2㎞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역 플랫폼(platform)에서 8분 동안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1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혜숙 • 우리 남편은 살이 좀 찐 편입니다.

사회자 • 그래서 그 집 남편이 "살과의 전쟁"이라는 수필을 우리 경북의사회지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갈갈이 여사가 개발한 신비의 diet 음식은?

이혜숙 • 저는 diet에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을 만들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달리기와 등산으로 건강을 다지고 있으나 제가 특별히 영양학자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Diet 음식 비법이 있습니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생 다시마, 현미 햅쌀, 녹두, 흑태(검은콩), 녹차(세작 정도의 질 좋은 녹차), 연근 등 여섯 가지를 갈아서 생식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별명이 "갈갈이 여사"랍니다.

(비법의 자세한 설명은 부록으로 이 글의 끝에 실었으니 참고 하십시오)

사회자 • 안익효씨께서는 직접 유아교육도 하십니까? 강의 시작 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식 교육은 책대로 안 되더라.

안익효 • 저는 아동 복지학을 전공하고 아동상담에 대해서 강의만 하지 직접 유아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이 되면 고해 성사를 하는 심정이 됩니다. 과연 내가 좋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유아 교육은 자율적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의 하면서도 막상 내 아이를 대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위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13년차가 되었는데, 아이들 키우는 일은 책대로 되지 않고 정말 힘듭니다. 때로는 거친 엄마가 되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밤

늦게 교재 연구를 하면서 순 악질(?) 여사가 된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교사의 길과 부모의 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념이나 철학만으로는 안 됩니다. 책에서는 청유형 개방형 대화를 하라고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부모의 욕심이 앞서서 권위적인 부모가 되어 자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되는 10계명 같은 것을 읽고 흉내 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요.

사회자 • 원래 책대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단에 섰을 때만 선생님이지 집에 오면 부모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단에 선 선생님의 모습만 보고, 식당에 가면 주방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도 그들의 앞면만 봐야지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전혀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익효 • 오늘 많은 용기를 얻고 갑니다.



2003. 8. 15. "경주 불국사"
경주 불국사에서 여름휴가때 한장 겨우 찍었습니다.
초등6년 아들, 초등3년 딸과 함께

사회자 • 다음은 예상문제에 없는 재미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시사만화를 보니까 설에 제사상을 받고 후손들의 염원을 듣고 온 공동묘지 귀신들이 한결같이 "로또가 뭐야?"라고 서로 서로 물었다고 합니다. 제사 지내는 자손들이 하나같이 로또에 당첨되길 빌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 국민이 로또 열풍에 휘말려 있다는 것이지요.

로또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여러분은 로또 복권을 사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로또에 당첨되어 갑자기 50억 정도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또복권으로 갑자기 50억이 생긴다면?

안익효 • 저는 형제가 여섯입니다. 제 남편은 옛날에 손위 동서들에게 "저는 200억을 모으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런 말을 하나, 의사들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설에



2002. 8. 16.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정말 아이들 체험학습 잘 했어요. 더운 날씨라, 긴 줄을 서야 했던 어려움, 질서공부 잘 했답니다.

모여서는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요즘에는 20억 10억도 말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사오라고 해서 추운 날씨에 안동 시청 앞에 줄을 서서 3만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지 않고 하나하나 남편이 적어주는 번호를 찍어가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자 • 815만 번 정도 사면 한번은 됩니다. 저도 700억인가,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만원어치 샀는데, 저것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크게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혜숙 • 저는 50억 생기면 장롱 속에 넣어두고 놀면서 쓸랍니다.

남윤희 • 한번 사 봤는데 꽝했습니다. 50억이 생긴다면 개업자금으로 좀 남겨두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쓰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 것이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사회자 • 로또에 당첨되면 불행해 진다는데도, 그 불행을 맛보기 위하여 야단들입니다.

이효진 • 로또를 사면 주말이 기다려지지만 떨어지고 나면 허탈해 집니다. 저는 의사가 월급을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전공의 월급이 선생인 저의 월급보다 적은달이 많았어요. 제가 돈돈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로또를 사는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게 50억이 생긴다면 남편과 조용히 여행 갔으면 합니다.

로또 되면 여행, 그때는 일등석 타고 가야지!

사회자 • 그 때는 비행기 1등석 타고 가십시오. 로또 안 됐다고 허탈해 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로또는 항상 다음이 있으니까요. 나의 희망을 오직 로또라고 하며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 많습니다.

김효정 • 로또복권을 사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행복과 불행은 따라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만큼 희생이 있어야하고 그래서 저는 전혀 로또복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김 민 • 76년부터 86년까지 일본유학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달 복권을 샀습니다. 그러나 크게 당첨된 적은 없습니다. 귀국하기 전에도 샀는데 확인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당첨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50억이 생긴다면 빚부터 갚겠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저보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의사 부인의 수입과 교수 월급, 그 돈 다 어디에 다 쓰나?"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럭을 타고 다니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구두는 E마트에서 사 신으니 돈 쓸데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도 저는 빚도 있고, 집은 모두 담보 대출 받았습니다.

의사 부인 수입에 교수 월급, 그 돈 다 어디에 씁니까?

사회자 • 그 돈 다 어디 썼습니까?

김 민 • 우리는 완전히 부부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돈 쓸 일에는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하자고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돈을 냅니다. 어떤 때는 서로 돈 내지 않으려고 먼저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복권 당첨되면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습니다.



한라산 중턱에서 가족과 함께...

사회자 • 부부 독립채산제라 하지 않고 요즘 말로는 부부유별이라고 합니다.

윤위분 • 횡재, 요행, 불로소득은 복을 깎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복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을 받았을 때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습니다. 50억 생기면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겠습니다. 우리 회장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변회장 • 저도 어머님 생각과 같습니다. 복권은 사본 적이 없고, 만일 당첨 된다고 해도 나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만이 확실히 제것이 된다고 봅니다. 살아가는데 불로소득은 교육에도 좋지않습니다. 50억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겠습니다.

사회자 • 이제부터 참석자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위분씨께서는 40년 이상 교직에 계셨으니 기억에 남는 제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

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교직 생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윤위분 • 제자들 중에서 판검사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지난번 포교대상을 받았을 때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를 하는 제자가 축하의 선물로 도자기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46세에 김천여고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학생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자는 아니지만 오래오래 기억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김천여고 학생과장(훈육주임)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차로 통학하는 우리 학교 여학생을 놀리고 희롱하였던 남학생을 훈계하려고 그 남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항의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만 그 학생을 퇴학까지 시키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항의 차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이런 저런 경과를 설명하니, 잘 수긍하고 두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학생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어떻게 보면 지나친 처벌이자, 교육적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라서 괜찮았지 지금 같으면 어떤 행패를 부릴지도 모릅니다.
김민씨께 묻겠습니다. 신경정신과 선생님은 정신분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와 같이 사시면서 행동을 분석당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그렇다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가지고 계신지요?

정신과 의사의 남편은 정신분석 당하며 사나요?

김 민 •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불행하며 벌벌 떨고 사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의사지만 집에 돌아오면 100% 가정주부로 돌아갑니다. 정신분석 당하지 않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합니다. 집에 와서는 환자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정신과를 전공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정신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다시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기에 정신과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 • 그렇겠네요. 코메디안들도 집에서는 웃기지 않고, 아이들이 웃기면 오히려 화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김효정씨께 묻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과 연관된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얼굴을 보고서는 잘 몰라도 거시기를 보면 잘 안다든가, 시골 아주머니를 내진하려고 침대에 올라가라고 하니 계속 머뭇거리다가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부터 올라가세요." 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자기 친구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냅니다. 김효정씨께서는 친구들을 남편에게 진료하러 보내십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선생님부터 올라가세요."

김효정 • 저는 보내고 싶은데 친구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과나 소아과는 아는 사람들이 추천하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산부인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은 제가 산부인과 의사 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산부인과가 잘 하는지 묻기에 제 남편이라 하지 않고 저희 병원을 추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내진 시, 마치 은행원이 돈을 보듯이 무관심하게 직업적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산부인과 의사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환자를 만나도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좀 특이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수련의 시절에는 당직을 비롯하여 할 일도 많고 정말 힘든 세월입니다.
이효진씨께서는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이효진 • 연애를 5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레지던트보다 인턴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과 자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불만 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레지던트는 고생스런 시기입니다. 수련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신랑 얼굴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연애5년하고 결혼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집은 경주입니다. 지금은 많이 적응되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호주에서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사회자 • 요즘 조류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축산 농가를 위하여 의사들이 닭고기 오리고기 판매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윤희씨께서는 요즘도 닭고기 오리고기 드십니까?

남윤희 • 전혀 개의치 않고 먹습니다. 며칠 전 에도 닭도리탕을 해먹었습니다.

사회자 • 이혜숙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니 언론인, 은행원, 교장 선생님들의 연봉이 상당하던데요. 정신과 의사인 남편의 수입과 고위급 방송PD인 이혜숙씨 중에 누가 실속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부유별 합니까? 부부유별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부부간에 주머니 따로 차는 것을 그렇게 말한답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자성어로 복지안동(엎드려 눈만 굴림), 사고무친(사십대는 외롭고 친구가 없음), 부자유친(부자 친구를 가까이 하라)등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지요?

의사와 PD, 누구 수입이 많을까?

이혜숙 • 병원 시작할 때 투자비 생각하면 실속은 비슷합니다. 특별히 부부유별 하는 것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제가 쓰고, 10만 원 단위의 작은 돈은 남편이 씁니다. 통장은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저도 소아과 전공입니다. 소아과 의사는 체중이 3kg도 안 되는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데 대단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평소의 생활도 소심하고 쪼잔 합니다. 귀댁의 소아과 남편은 어떻습니까?

안익효 • No comment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 안익효씨께서 더 화통하실 것 같은데요?

안익효 • 부창부수라 저도 많이 쪼잔 해 졌습니다.

사회자 • 지금부터 의사라는 직업의 장 · 단점에 해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안익효 • 다른 소아과 의사들같이 저의 남편도 매우 꼼꼼하고 자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많지만 상당히 피곤하고 신경 쓰일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비행기티켓 예약도 해주고, 아이들 대리고 체험학습 갈 때 약도 한 가방씩 준비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화장실에 있는 스킨을 다 쓴 줄 알고 버렸는데, 조금 남아 있는 것을 버렸다고 혼이 났어요. 물건 하나라도 제자리에 없으면 화를 냅니다. 당연히 옳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싫어서 싱크대에 물 크게 틀어놓고 못들은 척 지나갑니다. 친정오빠 둘과 올케가 의사라서 그들이 그렇게 꼼꼼하고 철두철미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점이자 때로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의사들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수의사들은 개나 돼지 치료하다 잘못되면 물어주면 그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꼼꼼하고 철두철미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길들여지게 되지요.

이혜숙 • 우리 남편은 의사답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애들도 잘 돌봅니다. 애들이 일기장에 "아빠가 만들어준 비빔밥이 너무 맛있었다."라고 썼어요. 지금도 딸 아이 들이 시집가기 전에 아빠에게 요리 강습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 머리도 땋아주다 보니 머리 땋아주는 아빠로 소문이 났습니다. 도시락도 싸주고, 행여 잊어버리고 가면 그것을 학교까지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너무 좋아합니다. 큰 딸이 서울로 유학가기 위하여 이삿짐을 싸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도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습니다.

사회자 • 오늘은 자랑하고 홍보는 날입니다만, 남편자랑 딸 자랑하는 것도 팔불출에 해당되지요?

머리 땋아주는 아빠,
비빔밥 만들어 주는 아빠!

남윤희 • 저는 연애에는 자신이 없어서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중매결혼을 했는데, 부모님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과 성격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과 친구를 좋아 하는데, 한번은 술을 많이 마셔 쓰러져서 링거 주사까지 맞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결혼 후에 밥순이로 전락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나, 생각을 바꾸니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애기 보고 밥하는 일도 직장일이라 생각하고 출근하는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도 편해지고 생활의 활기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단점으로는 밤에도 수술 때문에 불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밤늦게 응급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신호등에서 음주운전 트럭에 추돌 당하는 사고까지 당한 적이 있었는데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효진 • 남편이 의사라서 우쭐하고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으로 여행 갈 때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생겼다며 의사를 찾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큰 병이 아니었지만 신랑이 도움을 주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받고, 와인도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쁜 점은 의사들이라 꾀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부부싸움 끝에 화해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신한 제가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서 태동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는 법석을 떨고,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말입니다.



호미곶등대가 있는 해맞이공원의 「상생의 손」 앞에서

사회자 • 의사들은 이웃집에서 밤에 긴급하게 찾아오는 경우를 종종 당하게 됩니다.

김효정 • 아빠가 산부인과 의사지만 8개월이 될 때까지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않았어요. 왜 병원에도 한번 데려가지 않느냐고 불평하면 "옆에서 보고 있잖아"했습니다. 책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을 텐데, 자기 가족에게는 너무 무관심하여 섭섭했으나 병원에 가니 병원 가족이라고 간호사를 비롯하여 병원 직원들이 잘 대접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주도 Teddy Bear 박물관에서

김 민 •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안요소 중의 하나가 아픈 것인데, 의사 가족이라서 그런 불안이 없고, 또한 어느 병원에 가도 병원 가족으로써 친절하게 대접받고 진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제 강의 시간에 여담으로 집사람에게 얻어들은 정신과 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고, 제가 다방면에 아주 유식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의사라는 이야기의 source는 절대로 밝히지 않는 답니다. 단점이라면 퇴근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게 되므로 항상 환자들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퇴근하면 직장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데 말입니다.

윤위분 • 주변에 급한 환자가 생겨서 아들 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나서 결과가 좋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흐뭇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밤까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 애처롭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의사의 숫자가 너무 많아 노력하는 만큼의 대우와 수입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갖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단점이지만 가족으로서는 병원에 가서 대우 받을 수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의권 투쟁과 2 · 22 여의도 결의대회에 대한 가족들의 생각은?

정만진 • 의사들의 10년 전 모습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자존심의 문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9년부터 의권 투쟁을 시작하였고, 다가오는 2월 22일에는 서울 63빌딩 앞 고수부지에서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의사 결의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의사상의 변화와 의권 투쟁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분 • 의사 숫자가 많으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특권층으로서의 생활을 지양하고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무턱대고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해도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웃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는 데모보다 의사들이 단결하여 정치 세력화를 하여 우호 정치세력을 만들거나 직접 정치계에도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입니다.

변영우 • 2월 22일 여의도, 뭐 때문에 집회를 하는지 의사 가족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자신들의 열기만 뜨거워서는 안 됩니다. 의사와 의사 가족 그리고 직원들도 왜 집회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집회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의사들이 교과서대로 정당하게 행한 진료를 부정 진료로 매도하고,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약의 처방과 진료행위를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하여 지나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료 사회주의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정부의 노예가 되고 의료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런 의료의 사회주의화를 막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약사도 국민도 의약분업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만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처방전 없어도 약 다 팝니다. 그리고 정부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약분업입니까? 이번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4 · 15총선에 적극 개입하여 의료 사회주의를 막아야만 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의료민주화는 영원히 불가능 할지 모릅니다.

사회자 • 가족 여러분이 집에 가서 물어보고 잘 모르거든 교육 좀 시키십시오.
의사가 그것도 모르느냐고 말입니다.

의료 사회주의는 반드시 막아야.

김 민 • 저의 어머님도 병원을 하셨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의료인 가족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수입도 좋고 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생 수입모아도 제 집사람이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여건은 이렇게 변했는데도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관념은 옛날 그대로

입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 의료가족이면서도 투쟁의 당위성과 투쟁 내용에 대하여 잘 몰랐는데 오늘 변회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수긍이 갑니다.
의사들이 노동자처럼 집회나 하면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회자 • 지금도 언론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 3대 신문을 통한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영우 • 조 · 중 · 동 1면 하단에 광고 한번 내려면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자 • 우리도 이제 3~4년 투쟁을 하다보니 요령이 생기고, 의료 정책연구소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는?

변영우 • 제가 의협 부회장으로서 대외기획특별위원장과 이번 총선을 대비한 총선 의료정책 평가단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의협의 정치세력화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가질 만큼 가진 의사들이 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의사들의 정치세력화가 적절 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인 의사와 변호사들의 정치세력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협에서는 대외사업추진본부와 의료 정책연구소를 만들었고, 여기서 의사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준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적 능력이 있는 의사들을 골라 국회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국회로 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직원을 통한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고전하고 있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우리의 이러한 정치적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윤위분 • 의료 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좌담회도 하고 의사들을 통한 홍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알려야 합니다. 의사 가족인 우리조차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위분씨 가족들

이혜숙 • 의사들이 비례대표라도 진출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서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당에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영우 • 의사들은 현재 약사들보다 정치세력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자체적으로 순서를 정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국회의원 되면 의사를 대변하는 보건복지 분과에 들어가기 보다는 다른 분과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도 20여 명의 의사들이 정치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협의하여 순서도 정하지만, 의사들은 혼자 똑똑하여 서로 의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변호사들도 그렇습니다.

이혜숙 • 왜 의사들은 그렇게 단결되고 체계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의사들이 개밥에 도토리가 된 이유는?
너무 똑똑하고, 돈만 밝히고, 사회를 위한 일에 인색했다.

안익효 • 2월 22일 강변에서 뭐합니까? 국회 의사당 앞에서 해야지요. 의사 가족으로써 쓴 소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의사들은 너무 똑똑하고 돈만 밝혔지 사회를 위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것 없이 살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의사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참여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번 의협이 주축이 되어 벌인 닭고기 오리고기 먹기 촉진 대회 같은 것은 아주 잘 한 일입니다.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2월 22일 결의대회에도 개원의만 간다고 들었습니다. 개원의와 봉직의를 구별할 때가 아닙니다. 봉직의가 개원의 되고 개원의가 봉직의 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세대차도 없애야 합니다. 50대 이상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젊은 의사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직역과 지역 그리고 세대를 뛰어 넘어 모든 의사들이 합심 단결해야만 합니다.

사회자 • 폐부를 찌르는 쓰디 쓴 질타의 소리를 달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변영우 • 이번 2 · 22집회는 외부를 향한 투쟁의 뜻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쳤다는 것은 스스로 확인하고 4 · 15 총선에서 정치권에 우리의 단결력을 보여 주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 대회의 슬로건을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안익효 • 회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 · 22 행사 사진을 크게 만들어 각 병원마다 하나씩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결의 대회 때 팜플렛을 가지고 와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변영우 • 의협은 이번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당일 날 쓰여 지는 인쇄물이나 시설물의 색깔까지 깊이 토의하였습니다.

안익효씨기 말씀하신 포스터 문제 꼭 의협에 전달하겠습니다.



변영우 회장부부

사회자 • 대화를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간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고 고뇌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둑 1급이 되려면 10급 5급의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나 운동, 또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함께하는 취미나 운동, 또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윤위분씨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80인데도 7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으신 특별한 비결이나 건강 관리법이 있으십니까?

윤위분 • 바쁘게 그리고 집착하지 않고 삽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이보다 젊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건강을 위한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하지는 못하지

만 집에서 요가를 한 20분 정도 합니다. 경주에 요가를 하는 데가 없어서 스님이 주신 요가 그림을 보고 혼자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요가가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의 집 사람도 요가를 하고 나서 11층까지 걸어서 잘 올라갑니다.

김 민 •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나 골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산을 주로하며, 집사람은 요가와 에어로빅도 좀 합디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면 학생 상담하듯이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출퇴근 하면 1석 3조 운동되고, 주차비와 기름값 아끼고.

김효정 • 남편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미 남성 합창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하였기에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온 가족이 다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가끔 숯가마에 가서 땀을 흘리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주말마다 등산도 갑니다.



2004년 3월 1일 문경새재에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요즘에 와서 남편은 양복에 배낭을 멘 특이한 모습으로 병원까지 걸어 다닙니다.
30분에서 40분간 걸어서 출퇴근하니 자연적으로 운동이 되고, 기름값과 주차비가 들지 않으니 1석 3조라고 좋아합니다.

사회자 • 저도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시내에서는 걸어 다닙니다. 저의 보행 속도는 시속 7.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빨리 걷는 것을 속보 또는 Power Walking이라 하여 권장할 만한 운동 종목의 하나입니다. 이런 속도로 걸으면 2㎞이내의 어지간한 약속은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운동이 되는 것이지요.

이효진 • 저희들은 작년부터 반신욕을 하고 있습니다. 반신욕을 하고나서 손발 찬 것이 없어졌고, 남편은 6개월에 체중이 4kg이나 줄었습니다. 반신욕은 38도에서 42도 사이의 물에 배꼽 아래 부분만 욕조에 담그고 20~30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이때 손은 반드시 물 바깥에 두어야 합니다. TV의 생로병사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습니다.

TV 없이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윤위분 • 우리는 TV 없이 삽니다.

사회자 • 대단하십니다. TV 없이 살아도 특별히 불편한 것 없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대장금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남윤희 • 저는 결혼 전에는 운동의 "운"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이 운동을 좋아하다보니 Ski, 볼링, 등산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항에 내려와서 볼링에 취미를 들여 13년 동안이나 볼링을 하였는데, 작년에 척추 디스크가 생겨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영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시작해 봤는데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다보니 요즘은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지구력도 생기고, 경제적이며, 가까운 산은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영화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먹기도 좋아합니다.

사회자 • 볼링 에버레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저도 옛날에는 에버가 170정도 되었습니다.

남윤희 • 잘 나올 때는 6게임 에버가 200을 넘

을 때도 있었으며,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잠깐 선수 생활도 했습니다.

사회자 • 대단하십니다. 완전히 선수급 수준이군요.
이혜숙씨는 어떻습니까?

이혜숙 • 저희들은 이야기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말을 많이 하고 저는 낮에 말을 많이 하기에 집에서는 조용히 들어줍니다. 저는 수영을 25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발 5500m의 키나발루 산에 갔을 때도 고산증 증세 같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북 의사회 등산회의 임원을 맡고 있지만 저는 산에 잘 가지 않습니다. 골프는 해 봤는데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산책을 하면서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이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004년 3월 28일. 팔공산 등반시 이혜숙부부

사회자 • 골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훌륭한 골프 선생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훌륭한 골프 선생이 한 사람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보시지요. (일동 웃음)

자전거 타고 점심시간에 수영장 가는 "안동의 백상어"

안익효 • 저의 남편은 좀 특이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벙거지 쓰고, 자전거 타고 수영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40분 동안 레인을 10번이나 왕복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옵니다. 안동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에서 저의 남편 별명이 백상어로 통합니다. 하루라도 안 나가면 자전거 타는 의사 백상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아줌마들이 궁금해 한답니다. 점심은 제가 싸주는 과일과 샐러드 도시락으로 때우면서 체중조절을 합니다.



2003. 5. 25. 전국 의사 등반대회 소백산 초암사에서.
"비에 젖어 춥고 허기진 모습" 극기훈련 했지요.
비옷 입은 모습 어때요?

변영우 •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지 3~4년 됩니다. TV 보는데 빼앗겼던 시간을 다른 곳에 쓰니까 좋습니다. 저는 전국체전에 대학 대표 야구선수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매일 회의와 폭탄주 때문에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은 정신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일에 너무 집착하면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단순하게 차려놓고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사회자 •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을 맡으신 편집 위원님들도 한 마디씩 하시지요.

이경수 • 좌담회를 기록해 보니 어렵습니다. 이것을 글로 잘 표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TV 9시 뉴스 끝나면 대구 신천에 나갑니다. 1주에 3회 정도6km를 40분 내외에 뜁니다. 일이 있어 늦게 집에 오면 한 밤중에라도 나가서 뜁니다. 요즘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광만 • 저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골프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계처럼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도 6:30분에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요쿠르트 아줌마를 만납니다. 저도 정확히 나가고 요쿠르트 아줌마도 정확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과 규칙적인 생활로 체중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書不盡言이요 言不盡意
(서부진언 언부진의)"

사회자 • 벌써 밤 12시가 다 되었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재미 있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언제 시간이 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말을 다 담아낼 수 없고, 아무리 말을 잘 해도 마음속에 있는 뜻을 다 담아낼 수 없다.(書不盡言이요 言不盡意)"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3시간 넘게 이야기 해주신 좋은 말들을 어떻게 글로 담아 낼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의 능력이 닫는 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우 • 모두들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 이야기가 잘 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주 재미있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대단히 유익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위원장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좋은 글로 표현하셔서 훌륭한 경북 의사회지가 탄생될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늦어서 돌아가시는데 걱정이 됩니다.

사회자 • 오늘의 좌담회는 특별한 논제를 두고 결론을 내는 토론의 장이 아니고,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두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자리였습니다. 의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오신 의료인 가족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의 의사상을 재조명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경북 의사회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갈갈이 아줌마의 Diet를 위한 음식 비법

2인 기준 준비물

1. 생다시마 소금기 완전히 빠진 것 10cm(가로), 30cm(세로)
2. 검은콩(속청) 50g
3. 녹차(세작 정도) : 물(0.6리터)을 끓인 후 70~80℃ 정도로 식혀 밥 수저로 2스푼 정도의 찻잎으 넣고 우려낸 다음 찻잎 찌꺼기를 준비함
4. 연근 50g정도 5. 찹살현미 25g 6. 녹두 25g

[요리법]
현미 찹살과 콩 녹두를 씻어 녹차물(다려놓은 물)로 물을 잡은 다음 압력솥에 익힌다. 김이 다 빠진 다음 내용물을 믹서기에 넣고 남은 내용물(생다시마, 연근, 녹차잎)과 섞어간다. 이때 물은 녹차 다른 물을 적당량 넣고 간다.

[먹는법]
완성요리가 걸쭉하므로 먹을 때 우유를 섞어 약간 희석해 머그잔에 한잔정도 마시면 고소하고 맛이 좋고 배도 부른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피부도 한결 매끄럽고(특히 얼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다이어트는 물론이고...점심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Humor유머 is best medicine

각 나라별 교통사고??

미국 : 제일 먼저 교통경찰이 달려와 사고 경위와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일본 :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와서 보험 약관과 보험금 지급 내용을 알려준다.

한국 : 온 동네를 진동시키며 레커차가 온다. 갓길도 무시한 채 오고 또 온다. -_-

차 막히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미국 : 교통경찰이 달려와 신호기를 무시하고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한다.

일본 : 기술자가 신호기를 조작, 유효적절하게 신호체계를 작동한다.

한국 : 뻥튀기 파는 아줌마가 제일 먼저 달려온다. "뻥튀기가 이처넌~~ 옥수수가 삼처넌~~~~~" -_-;;;

전라도 훈민정음 "-_-"

시방 나라말쌈지가 떼놈들 말하고 솔찬히 거시기혀서 글씨로는 이녁들끼리 통헐 수가 없응께로 요로코롬 혀갖고는 느그 거시기들이 씨부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거시기헐 수 없은께 허벌나게 깝깝허지 않것어? 그렇고롬혀서 나가 새로 스물여덟자를 거시기했응께 느그들은 수월허니 거시기혀부러갖고 날마동 씀시롱 편하게 살어부러라 -_-;;;

ps : 웃자구여... ^^;;;

순진한 남자 & 밝히는 남자

첫만남 순진한 남자는 처음 여자를 만나서 인사를 할때 간단히 목인사만 하지만 밝히는 남자는 반드시 악수라는 형식으로 손부터 잡아보고 시작한다.

• 데이트

순진한 남자는 데이트를 할 때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지만 밝히는 남자는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다...1차..2차..3차..?

• 이야기

순진한 남자는 상대방 여자의 눈을 보면서 혹은 입을 보면서 이야기 하지만 밝히는 남자는 여자의 가슴 아래를 보면서 이야기한다.-_-;;;

• 영화

순진한 남자는 여자가 영화를 보고싶다고 말하면 예약을 해서라도 개봉관으로 데리고 가지만 밝히는 남자는 일부러 매진되는 곳만 골라서 다니다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비됴방으로 데리고 간다...-_-;;;

• 멘스[마법&그날&ing]

순진한 남자는 여자가 별 이유도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힘들어 하면 걱정이 되어서 빨리 병원으로 가자고 하지만 밝히는 남자는 그저 빙그레 미소만 지을 뿐이다...

• 술

순진한 남자는 여자가 술에 취하면 술이 깰때까지 기다려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만 밝히는 남자는 일단 술이 깰때까지(?) 여관으로 데리고 간다 ...-_-;;;

• 구두

순진한 남자는 여자와 같이 걸어가다가 여자의 구두굽이 부러지면 구두를 들고 뛰어가서 얼른 구두굽을 고쳐가지고 오지만 밝히는 남자는 암말없이 여자를 등에 업고 구두를 고치러 천천히 걸어간다...

• 생일

순진한 남자는 여자의 생일에 향수나 인형을 사주려고 하지만 밝히는 남자는 속옷과 함께 키스를 해주려고 한다..

• 눈

순진한 남자는 여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도 오직 여자의 얼굴만 바라보며 한눈을 팔지 않지만 밝히는 남자는 좀 예쁘다 싶은 여자만 지나가면 눈과 함께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간다...-_-;;;

• 소나기

순진한 남자는 데이트 도중에 소나기가 내리면 얼른 우산을 두개 사지만 밝히는 남자는 절대로 우산을 하나만 사서 이 기회에 옆에 꼭 붙여서 간다...-_-;;;

• 포옹

순진한 남자는 여자와 포옹을 할때 손으로 가만히 여자의 등을 감싸 안지만 밝히는 남자는 여자를 안고 있으면서 손이 계속 엉덩이 쪽으로 내려간다...-_-;;;

• 키스

순진한 남자는 여자와 키스를 할때 여자 입술의 루즈가 지워질까봐 조심스럽게 하지만...

밝히는 남자는 아무리 빨간 루즈라도 다 먹어버린다...-_-;;;

• 첫관계

순진한 남자는 사귀는 여자와 첫관계를 하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만 밝히는 남자는 여러가지(?)를 계속 요구한다...-_-;;;

• 이별

순진한 남자는 여자와 인연이 다되어 이별을 하는데 그냥 잘 살라고 악수만 하고 헤어지지만 밝히는 남자는 끝까지 한번더 안아보고 헤어진다....-_-;;;

제일 맛있는거 -0ㅠ

1. 소개팅 때 내숭 떠느라 조금 먹고 집에 와서 밥통째 끌어안고 먹는 비빔밥
2. 오빠 소풍날 아침에 얻어먹는 김밥 꽁다리.
3. MT 가서 아무 것이나 넣고 끓여 코펠 뚜껑에 비벼 먹는 잡탕찌개.
4. 체육시간에 교실 지킨다고 남아서 훔쳐 먹는 친구 도시락.
5. 수학여행 가서 밤중에 선생님 몰래 마시는 소주 한잔.

6. 군대에서 보초서다가 와서 먹는 컵라면.
7. 제사 때 엄마한테 맞아가며 집어먹는 동그랑땡.
8. 1주일 동안 병원밥만 먹다가 퇴원,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수, 우, 미, 양, 가의 뜻.

'수, 우, 미, 양, 가'에 대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秀)'는 빼어날 '수'자로 '우수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優)' '우등생' 할 때의 '우' 자로, 넉넉하다,도탑다는 말입니다.
역시 '우수하다' 는 의미겠지요.
'수' 와 '우' 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美)' 는 아시다시피, 아름다울 '미'이며 '좋다'는 뜻도 있습니다. 역시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양(良)'은 '양호하다'의 양으로, 역시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의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괜찮다'는 뜻이죠.
성적의 다섯 등급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는 '양'마저 좋은 뜻입니다.
놀랍게도 '가(可)'는 '가능하다'고 할 때의 '가'로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 선생님들의 성적표 작성법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뜻이 담겨있었습니다.

거꾸로 읽으세요...

다시 합창 합시다 / 소주 만병만 주소
색갈은 짙은 갈색 / 다 같은것은 같다
바로크는 크로바 / 다 이뿐이 뿐이다
여보 안경 안보여 / 자 빨리 빨리 빨자
짐 사이에 이사짐 / 홀아비집 옆집 비아홀
나가다 오나 나오다 가나
다리 그리고 저고리 그리다
소 있고 지게지고 있소
다시 올 이월이 윤이월이올시다.

어느 학원의 시험..

이건 실화입니다..
이게 잘못 퍼트려졌다간 죽을수도 -_-;;;
저는 외국에살고요...
이번에 제가 아는 누나가 대학을 위해서 한국에 갔답니다
학원 〈특내 입학 하시는 학생들만 다니는〉에서 국어 시험을 봤다던데요
어느 학생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군요 -_-;;
문제: 낙엽을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
바스락-_-;;

넌센스 퀴즈~

성인(聖人)과 성인(成人)의 차이는?
- 석가모니가 집을 나가면 출가라 하고 내가 집을 나가면 가출이라고 한다.

파도가 춤을 추는 이유는?
- 갈매기가 노래하기 때문에.

보신탕 집으로 끌려가는 개의 가장 큰 소망은?
- 후세에 식인종으로 태어나는 것.

질문을 할 때 한 손만 드는 이유는?
- 두 손 다 들면 만세가 되니까.

일일생활권이란?
- 차가 막혀서 어디를 가나 하루 걸린다는 뜻.

콜라와 마요네즈를 섞으면?
- 버려야 한다

곤충의 몸을 3등분하면?
- 죽는다.

낯선 여자에게서 그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를 5자로 줄이면..
- 혹시 이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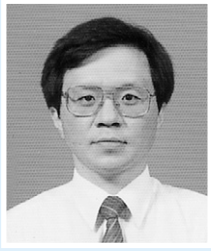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이 "쇼트트랙"에 강한 이유?
- 새치기를 잘한다

황당한 의사

어떤 한 남자가 병에 걸렸다.
집과 병원사이가 너무 멀어서 할 수 없이 의사가 집으로 와서 남자의 병을 봐주기로 했다...
의사가 집에 왔따...
그리고서는 문을 잠그더니 치료에 드러가는듯 했따...
먼저 의사가 부인에게 ?칼있으면 칼좀 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은 의사에게 칼을 갖다 주었다.
잠시후 의사가 또 부인에게 ?펜치좀 갖다 주시죠?라고 말하였다.
부인은 의사에게 팬치를 갖다 주었따...
또 잠시후... 의사가 ?드라이버좀 갖다 주십시오?
이러자 부인은 초조한 마음을 뒤루 한채 드라이버를 갖다 주었다..
다음에 의사가 나오자 이번에는 ?전기톱 있습니까??
이러자 부인은 울면서 의사에게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이러느냐구 물었다..
그러자 의사의 엄청난 한마디..
...
"아 저~~ 죄송합니다.. 진료가방이 안 열려서...?

중국집의 거짓말

점심을 먹으려고 중국집에다 짜장면을 시켰다..
시킨뒤에 탕수육을 추가 할까 해서 다시 전화를 했다..
나 : 중국집이죠? 아까 짜장면 시켰는데요..xx아파트요..
중국집 : 네 출발했습니다~
나 : 그래요? 아직 출발안했으면 탕수육 하나 더 시키려고 했거든요..
중국집 : 아 출발한줄 알았는데 아직 안했네요!
나 : 네.. -_-



이경수 (발췌 · 편집)
이경수내과의원 · 구미
TEL 054-471-1674
E-mail k1342s@hanmail.net

의학제 삼행시

편집자주

2003년 6월 8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25회 경북의학제 "의학제 삼행시" 「의쟁투, 재가동, 정성된, 참진료」의 시제에 6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장원

의 쟁 투

의롭고 외로운 히포크라테스 후예여
쟁쟁한 화랑의 소리가 메아리치는 경주벌에서
투철한 화랑의 기개받아 멋진 의사가 되자

(이기혁/혜성소아과의원 · 안동)

차상

의 쟁 투

의로운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에
쟁쟁한 권력을 물리치고
투지와 소신으로 우뚝솟은이
바로 우리 의사들입니다.

(김효정/박정돈산부인과의원 가족 · 구미)

정 성 된

정성어린 진료에 고마움은 태산같고
성의없는 정부에 눈물만 가득하니
된소리 막무가내 국민만 답답하네

(이석균/청십자의원 · 경산)



차하

재 가 동

재치있고 다정한 의사선생님이시고
가정에서는 엄마의 멋진 남편이시고
동심의 세계도 이해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아빠

(이재근/동국대경주병원 이경섭회원 자녀)

정 성 된

정의와 진리를 앞세우고
성의있는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건만
된서리 맞은 의료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경섭/동국대경주병원)

의 쟁 투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의료현실을
쟁취하자 모두 일어나 투사의 정신으로
투쟁만이 살길이다 현실을 직시하자

(이경수/이경수내과의원 · 구미)

참방

재 가 동

재기 넘치는 의사들이 모여
가슴을 터놓고 정을 나누며
동동주 한잔에 시름 달래네

(이봉구/이피부과의원 · 경주)

재 가 동

재주 많은 우리 의사들 잔치
가족들도 모두 모인 즐거운 날
동동주 권해가며 우의 다지세

(김남주/하상호 · 김남주산부인과의원 · 포항)

정 성 된

정성이 가득찬 처방전엔
성실과 믿음이 어우러져
된소리 쓴소리 없구나

(장유석/장유석외과의원 · 경산)










제52차 정기 대의원총회

1 이원기의장의 개회사
2 변영우회장의 인사
3 신상진의협회장의 격려사
4 이의근경북도지사의 축사
5 박길수의협의장의 축사
6 정능수감사의 감사보고
7 모범회원에게 표창장 수여
8 전형위원회에서의 새임원진 선출





제25회 경북의학제

1 우승기를 흔들며(동부지구)
2 하나도 안 들어가네!(투호경기)
3 두몸이 한마음(2인3각)
4 나도 옛날에는.....
5 줄당기다 엉덩이 떠질라

















춘추종합 학술대회

1 변영우회장 인사말
2 열심히 듣는 진지한 표정들
3 학술대회 참석 내빈들
4 춘계학술대회 광경
5 의협회장의 시상







의료봉사활동

1 정능수감사의 진료장면(의성 비안)
2 다양한 진료 광경(의성 비안)
3 링거를 맞는 주민(의성 비안)
4 진료현장 모습(영천 화북)
5 의료봉사 후 기념촬영(영천 화북)















제18회 영·호남 친선행사

1 경북에서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며...
2 지리산 노고단 등정 기념촬영
3 지리산도 식후경
4 우정의 손을 맞잡고 케익절단
5 신나게 한곡조







12·20 대구·경북 의사결의대회

1 대구 김난희회원의 투쟁노래 선창
2 투쟁을 독려하며(배창환, 백승인회원)
3 우리의 투쟁의지도 저 불꽃처럼
4 원칙없는 심사삭감 동네의원 다 망한다!!
5 다함께 투쟁가를(아침이슬)
6 궐기대회 경과보고 장면















2 · 22 전국 의사결의대회

1 보건의료정책평가단 발대식 선언
2 휘날리는 만장기
3 구호를 외치는 시·도 의사회장
4 투쟁의지를 불태우며



2 · 22 전국 의사결의대회

5 추운날씨에도 5만명이...
6 우의를 입고 있는 포항시 회원들
7 정치세력화 로켓
8 국민의사 다 죽이는 의약분업 철폐하라!







The KBMA News

회무소식

HEADLINE

- 회원 단합과 지역사회에 봉사할 새 의장단 · 회장단 선출
- 의학발전과 자질향상을 위한 춘 · 추학술대회 개최
-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의 대축제 '경북의학제'
- 영 · 호남 친선행사서 의료현안 협의
-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 경북의사 궐기대회 대성황
-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의사 · 가족 힘찬 함성
- 2003 무료개안수술, 60명에게 새빛 안겨
- 수해지역에 사랑의 의료봉사활동 펼쳐
- 회원들의 유익한 정보 마당 본회 홈페이지 개설
- 의사가 주체되는 의료환경 조성



회원 단합과 지역사회에 봉사할 새 의장단 · 회장단 선출

제12대 의장 이원기 · 제39대 회장 변영우 회원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서 재선출





본회에서는 2003년 3월 27일(목) 오후 4시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의장에 현 이원기의장(좌)을, 제39대 회장에 현 변영우회장(우)을 재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신상진 의협회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 박길수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박희백 한국의정회장등 내빈 다수와 대의원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2003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안 심의에서는 회비를 인상하지 않고 2003년보다 2천4백만원이 많은 3억 2천만의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확정짓고 회칙개정에 있어서는 회칙 개정시 필요한 의결 정족수 조정과 회장 및 의장 입후보자에 대한 사전등록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의안토의에서는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건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개선 건의 △유사 의료행위 근절 대책 건의 △의료기관 조세대책 건의 △보건소 및 지소 일반진료 지양건의 △의협 홍보실 기능 강화 건의 △정부기관에 전자우편 홍보강화 건의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 완화 건의 △의료보험 진료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건의 △사회복지법인 환자유치행위 근절 건의 △공제회 활성화 및 배상공제 가입 건의 △회비 미납회원 회원명부 미등재 여부의 건등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비롯한 11개 안건과 의협회장 선거시기조정등에 대해서는 중앙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였다.

〈임원 명단〉

■ 회장단
- 회　장 : 변영우(경주, 선린의원)
- 부회장 : 정만진(영천, 정만진소아과의원)
- 〃　: 이석균(경산, 청십자의원)
- 〃　: 김옥배(구미, 김옥배정형외과의원)
- 〃　: 이영현(경주, 동국대경주병원)
- 〃　: 이미숙(안동, 이화산부인과의원)



■ 의장단
- 의　장 : 이원기(포항, 이원기외과의원)
- 부의장 : 김홍조(구미, 김홍조외과의원)
- 〃　: 김교성(영주, 김내과의원)

■ 감　사 : 하상호(포항, 하상호 · 김남주산부인과의원)
- 〃　: 유성호(문경, 평화산부인과의원)
- 〃　: 정능수(의성, 동산연합의원)

■ 의협 대의원
- 중앙대의원 : 변영우, 이원기, 오세진, 안길룡, 정만진, 권세홍
- 교체대의원 : 전　민, 장의현, 송재영, 조영호

〈시상자 명단〉

■ 의협회장 표창(2명)
- 이석균(경산, 청십자의원)
- 문신길(포항, 포항세명기독병원)

■ 경북지사 표창(3명)
- 유동명(안동, 유동명정형외과의원)
- 허　석(김천, 김천방사선과의원)
- 송재영(청도, 송재영외과의원)

■ 대 외 시 상(3명)
- 석수만(의협 공제회 국장)
- 김범동(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 이희만(경주소방서)

■ 회 원 표 창(5명)
- 오세진(포항, 오세진비뇨기과의원)
- 서보완(경주, 한우리연합의원)
- 석제홍(김천, 석제홍제통의원)
- 조충래(구미, 한일산부인과의원)
- 조영호(영주, 조정형외과의원)

의학발전과 자질향상을 위한 춘·추학술대회 개최

춘계학술대회 6월 코오롱호텔서
추계학술대회 11월 경북대병원서





본회에서는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생애교육차원의 보수교육을 2003년 6월 7 · 8일(토 · 일)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춘계종합학술대회를 열었으며, 추계학술대회는 11월 30일(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의료현안과 관련한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춘계학술대회는 변영우회장의 주요회무보고와 「의사윤리」교육이 있었으며 의료현안과 관련해서는 김재정 의협회장의 "특강"과 학술강연에는 소아혈액 질환 중에서 빈혈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빈혈의 분류, 진단등을 강의로 경북의대 소아과 이건수교수의 「소아빈혈」등 3개 학술연제가 발표되었고, 둘째날에는 동국의대 정신과 이광헌교수의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약물치료」등 3개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등을 실시하여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연수교육 11평점이 주어졌다.

또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전 ·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김종대 실장(현 · 계명대학교 초빙교수)으로부터 「의약분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의료의 왜곡 통제」에 대한 특강과 동국의대 피부과 서무규교수의 「노인 피부질환」강연에 이어 계명의대 신경과 임정근교수, 경북의대 내과 하승우교수등 학술연제 3편이 발표되어 6평점이 주어졌다.

〈춘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 6월 7일(토) 14:00

△당뇨병=비디오 △의사의 윤리=변영우 경북의사회장 △소아빈혈=이건수 경북의대 소아과 △고혈압의 새로운 분류와 치료방침=장성국 대구가톨릭의대 내과 △전염병 신고 및 관리=박옥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과 연구관 △의료현안=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 6월 8일(일) 09:00

△심장 및 호흡기 내과=비디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약물치료=이광헌 동국의대 정신과 △전립선 질환=김천일 계명의대 비뇨기과 △산부인과 질환 일반=고민환 영남의대 산부인과 △임신과 불임=비디오

〈추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의사윤리 및 회무보고=변영우 경북의사회장 △노인 피부질환=서무규 동국의대 피부과 △손발 저림증=임정근 계명의대 신경과 △비만 치료의 실제=하승우 경북의대 내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의료의 왜곡 통제에 대하여=김종대 전.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의료현안(회원과의 대화)=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김재정 의협회장과의 대화의 시간 가져

중앙회의 의료정책 및 회무전반에 대한 논의와 회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한 「김재정 의협회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2003년 11월 30일 추계학술대회시에 가졌다.

이날 김재정 의협회장은 "건강보험 수가 2.65% 인상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입장과 향후 투쟁방안", "의약분업재평가", "의료법 개정"등 의료계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현안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회원과의 대화의 시간에 앞서 김옥배(구미, 김옥배정형외과의원), 백승인(경주, 백승인소아과의원), 전민(포항, 전민신경정신과의원), 김병곤(군위, 김병곤내과의원)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의 대축제 '경북의학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펼쳐져 제25회 의학제 종합우승에 「동부지구」



회원상호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열리고 있는 제25회 경북의학제가 2003년 6월 8일(일) 오후 2시 경주 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야외경기로 펼쳐진 이번 의학제에는 변영우회장을 비롯하여 이병채, 신은식, 최종두 원로회원등 25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지구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였다.

이날 의학제에는 테니스, 바둑, 윷놀이, 골프, 2인3각, 족구, 줄다리기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종합우승에는 테니스, 바둑, 줄다리기에서 우승한 동부지구가, 준우승에는 서부지구, 3위 남부지구, 4위 북부지구가 차지하였고 많은 회원들의 참석으로 열띤 경기와 응원을 해준 동부지구가 응원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의쟁투 재가동, 정성된 참진료」의 시제로 진행된 시사삼행시에는 6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의 출품작중에서 이기혁회원(안동, 혜성소아과의원)이 장원에 입선하였다.

또한 자전거 15대등 푸짐한 상품이 걸린 행운권 추첨에는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참석자 전원의 희비를 가리기도 하였다.

〈경기종목별 성적〉

경 기 종 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비고
제25회 테니스대회		50	40	20	20	
제23회 바둑대회		50	40	30	20	
제17회 윷놀이	선수조	40	30	50	20	
	임원조	20	40	30	50	
제2회 골프대회		40	20	30	50	
제2회 2인3각릴레이		20	40	30	50	
제2회 족구대회		20	40	50	30	
제2회 줄다리기대회		50	40	30	20	
종 합 점 수		290	290	270	260	

- 종합우승 : 동부지구, 준우승 : 서부지구
  3위 : 남부지구, 4위 : 북부지구
- 응 원 상 : 동부지구

〈행운상 당첨자 명단(자전거)〉

- 원로 : 신은식(포항)
- 부부 : 박경욱(김천), 정만진(영천), 김원태(포항)
- 회원 : 이강욱(영주), 손위익(포항), 이채경(포항), 류효충(경주), 박정돈(구미), 박재호(구미), 허 석(김천), 송희남(포항), 남수현(영주), 김지홍(포항), 송지남(김천)



영 · 호남 친선행사서 의료현안 협의

11월 1일 전북 남원서 개최 의료현안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



본회와 전북도의사회는 2003년 11월 1일(토) 오후 7시 전북 남원 한국콘도에서 제18회 영호남(경북 · 전북) 의료인 친선행사를 개최하고 준비안된 의약분업의 강제시행으로 의료보험 재정은 파탄나고 국민의 부담과 불편은 극도로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향후 의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키로 하는 등 5개항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친선행사에는 많은 내빈과 양도의사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및 회원소개에 이어 전북도의사회 김학경회장, 남원시의사회 두홍서회장의 환영사와 본회 변영우회장의 답사가 있은 후 김재정 의협회장, 이채현 의협의장 및 최진영 남원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국악의 본향답게 남원시립국악원에서 준비한 민요와 국악공연으로 한층 분위기를 드높이고, 즉석에서 국악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을 보낸 후 양도의사회 회원들의 친선의 밤 행사가 이어졌다.

의료현안과 관련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제로 시행하여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국민의 부담과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보험재정파탄의 주범을 의사들인양 잘못 호도하고 매도하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본회와 전북도의사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데 앞장 설 것임을 엄숙히 밝히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영호남 의료인 친선행사는 1987년 경북 · 전북도의사회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상호 격년 초청행사로 개최해 오고 있다.

지리산 노고단 등반으로 우의다져

이튿날인 11월 2일(일)에는 양도의사회 회원들의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신선이 내려와 살았다는 전설 속의 삼신산(三神山)이라 일컫는 지리산 노고단 산행과 광주CC에서는 친선골프로 우의를 다졌다.

남원의 명가인 남원새집에서 추어탕과 찜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는 여흥의 시간을 보낸후 경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오후 5시경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 경북의사 궐기대회 대성황

2003년 12월 20일(토) 오후 5시 경북대 의과대학 학생회관서 개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자존심과 의권을 되찾기 위한 시도의사회 궐기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재평가와 보험공단 즉각해체를 위한 대구 · 경북의사회 궐기대회가 2003년 12월 20일(토) 오후 5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관에서 개최되어 대성황을 이뤘다.

대구 · 경북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궐기대회는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회원 1,200여명이 집결하여 정부의 기만적인 의료정책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의료현실속에서 의약분업 재평가와 건강보험공단 즉각 해체, 의료사회주의화 성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월에 있을 전국의사결의대회 개최를 앞두고 의권확립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투쟁의 열기를 고조시켰으며, 벼랑끝에 몰려 더이상 물러설 곳 없는 처절한 의료현실을 성토하는 함성이 대회 내내 끊이지 않아 이번 투쟁의 절박함을 실감케 하였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조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식전행사로는 메디컬사운드와 사물패의 공연에 이어 유영구 대구 동구의사회장의 경과보고, 정무달 · 변영우 양시도의사회장의 대회사, 김재정 의협회장의 격려사(박효길 부회장 대독)에 이어 대구 김원섭 회원의 구호제창과 김난희 회원의 아침이슬 노래로 1부가 진행되었다.

정무달 대구시의사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건정심을 통해 알맹이가 빠진 수가인상을 내놓고 의사들의 굴복을 강요하고 심평원을 통해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며 진료의 대가를 사정없이 칼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언론플레이를 통해 의사집단을 마치 악의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짓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으며, 더러워진 의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라고 역설하였다.

변영우 본회 회장도 대회사에서 "의료 정책의 핵심부 요소 요소에 의료사회주의자들을 포진시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공공의료 확충등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뿌리까지 흔들며 의료환경을 더 망치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또한, 김재정 의협회장은 격려사(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 대독)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고 있는 우리 8만 의사의 의권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 의권투쟁 승리의 그날까지 한점 흐트러짐 없이 전진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신현우(울산시의사회장) 회장의 격려사, 구호제창, 아침이슬 노래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어 2부에는 배덕수(대구 개원의 대표, 달서구의사회장), 안길룡(경북 개원의 대표, 김천 안외과의원), 전석길(교수협의회 회장, 계명의대 핵의학과), 사공정규(병원의사협의회 대표, 동국대 포항병원 정신과), 김성훈(대한전공의협의회 대구지역대표, 대구가톨릭병원 비뇨기과)회원의 연대사가 있은 다음 이원기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투쟁시 낭송과 김재왕(안동, 김재왕내과의원) 박손원(구미, 건우산부인과의원)회원의 구호제창과 선구자 노래제창에 이어 조현숙(경주, 계림내과의원) 회원의 성명서 낭독으로 공식행사를 마쳤다.

대구 · 경북의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 ▲의협의 건정심 탈퇴를 적극 지지하며 올해 의료수가 인상 전면거부 ▲의사를 사회주의화 하는 경향에 대해 강력히 경고 ▲건강보험공단 즉각 해체 ▲의사들을 압박하는 유치한 성적표 작성 즉각 중단등을 촉구하였다.

한편 1,200여명의 회원들은 대회를 마치고 행사장 밖에 집결하여, 투쟁 불꽃 점화식을 갖고 의권쟁취의 각오를 다졌으며, 이날 궐기대회에는 경북 각 지역에서 총 11대의 버스가 동원되어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열기로 지난 2000년도 의권투쟁이 다시한번 재현되는 듯한 분위기로 의권쟁취의 각오를 다졌다.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의사·가족 힘찬 함성

2004년 2월 22일(일) 오후 2시 여의도 뻘밭에서 강력한 투쟁 결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가 지난 2월 22일(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2,300여명의 본회 회원 및 의료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민주화를 위한 사회주의 건강보험 개혁, 선택분업(국민조제선택제도) 전환, 건강보험공단의 해체 및 분리 운영, 경쟁적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가 끝날때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전국 5만여 의사회원들과 함께 경북의사회의 뜨거운 투쟁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본회 시군의사회서는 여의도 상경을 위해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하여 52대의 전세버스를 대절하여 삼삼오오 가족과 직원들을 동반하여 출발하였으며, 여의도 63빌딩앞 한강둔치의 매서운 비바람과 맞서 싸우며 뻘밭에서 의료 민주화를 위해 동참하였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시작하자'는 박한성 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한강 둔치는 연호와 함성속에 휩싸였으며, 투쟁시 낭독, 투쟁의 노래 '상록수'가 제창되었으며,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의 결의대회 경과 및 현황보고에 이어 김재정 의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의료보험 전면개혁 투쟁과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사이비 불법진료와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4월 15일 총선에서 의협의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합법적으로 지지할 것을 밝혔다.

이채현 의장의 '오늘을 잊지 말자'라는 내용의 격려사가 있은후, 류기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신현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전석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장동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장, 임동권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연대사가 있은후, 윤석완 의협 정책이사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15 총선 보건의료정책평가단 출범식에서는 본회 변영우 회장이 단장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하자'고 결의하였으며,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주 괄 민주의사회장은 결의대회 투쟁 결의문을 통해 '죽기를 각오하고 사회주의로 망해가는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구하자'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으며, 폐회사에 나선 김재정 의협회장은 정부는 3월말까지 조제위임제도의 재평가 계획과 참여복지 5개년계획 가운데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 투쟁은 시작됐다'며 이번 집회가 폐회가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밝혔다.

여의도 63빌딩앞 행사장에는 전국 의사회원 및 가족, 직원등 5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에서 올라온 전세버스 400여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상 확립을 위해 헌혈행사를 실시하여 본회에서는 6명이 동참하였고, 애드벌룬 올리기, 풍선 날리기, 정치세력화 로켓발사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본회에서는 머플러 및 고급장갑, 우의 2,000장을 준비하여 행사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행사 기념품으로 각시군의사회를 통해 사전 배부했었다.

〈헌혈자 명단〉

하종곤 : 하종곤의원(포항)
배창환 : 연세내과의원(안동)
권성철 : 금호외과의원(영천)
손병진(직원) : 금호외과의원(영천)
김흥규 : 예지인의원(포항)
이보람(직원) : 김동근가정의학과의원(영주)

2003 무료개안수술, 60명에게 새빛 안겨

대구 · 경북 132명 접수, 44개 의원서 시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개안수술 사업은 백내장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실천사업으로 대구 · 경북의사회가 함께하는 2003 TBC 무료개안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무료개안수술은 대구 ·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저소득층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개안수술에 참가하는 안과의원 및 내과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청구분까지 전액 무료로 봉사하게 된다.

특히 2003년도에는 더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나이 제한없이 신청을 받아 대구지역 61명과 경북지역 71명등 모두 132명을 접수해 술전검사후 60명(대구 40명, 경북 20명)에게 무료개안수술을 실시하였다.

TBC 대구방송은 무료개안수술의 중요도를 감안, 2003년 11월 7일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집생방송으로 제작 보도 하였으며, 이날 생방송에는 대구, 경북지역 안과 의료기관 4곳을 선정하여 환자들의 개안수술 장면을 전하고, 고령화 사회의 현주소와 건강한 눈관리 방안등에 대한 VCR 상영으로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특집방송 출연 패널〉

정만진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김한곤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
방성수 경북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순옥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사무관

〈무료개안수술 참여 의료기관〉

지 역	안 과		
	성 명	의 료 기 관	수술인원
포 항	김원권	분도안과의원	4
	이우석1	영동안과의원	2
	이재백	이재백안과의원	2
	성경림	성경림안과의원	1
경 주	김형일	성모안과의원	•
김 천	안태욱	안태욱안과의원	•
	민성기	민안과의원	1
안 동	이종관	연합성모안과의원	•
	서의태	안동제일안과의원	1
구 미	이동은	이동은안과의원	•
	진익도	진안과의원	3
	송효철	밝은안과의원	•
영 주	이용우	성모안과의원	•
영 천	박남규1	박안과의원	1
	김헌수	김헌수안과의원	1
상 주	이언경	영남안과의원	1
문 경	강용호	성모안과의원	•
경 산	우경호	우경호안과의원	3
칠 곡	김성열	삼성안과의원	3
계			20명

지 역	내 과		비 고
	성 명	의 료 기 관	
포 항	이효식	이효식내과의원	
	송영성	송영성내과의원	
	최창필	최창필내과의원	
	윤융삼	윤내과의원	
경 주	조현숙	계림내과의원	
김 천	정세주	정세주내과의원	
	정세주	정세주내과의원	
안 동	배창환	연세내과의원	
	박무영	박무영내과의원	
구 미	한재호	한재호내과의원	
	이용원	이용원내과의원	
	박성진	한민내과의원	
영 주	손현석	손현석내과의원	
영 천	이지욱	이내과의원	
	이지욱	이내과의원	
상 주	김홍태	김홍태내과의원	
문 경	강찬규	강찬규내과의원	
경 산	김병훈	김병훈내과의원	
칠 곡	박창근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수해지역에 사랑의 의료봉사활동 펼쳐

본회 긴급 재해진료반 편성 운영 태풍 "매미" 수해지역에 무료진료





집중호우와 태풍내습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시 구급진료와 대국민 봉사활동으로 전문직능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회에서는 재해진료반 5개반(진료반, 의약품 수급반, 행정지원반, 장비지원반, 공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시름에 잠겨있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긴급 무료진료반을 구성하여 2003년 9월 19일(금) 의성군 비안면과 9월 27일(토) 영천시 화북면 수해지역에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의성군 비안면 의료봉사에서는 본회 변영우 회장을 비롯한 의사 6명, 간호사 5명, 행정요원 4명등이 비안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무료진료소를 마련하고 내과, 안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피부과로 구성하여 수해로 멍든 수재민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15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된 영천시 화북면 화북초등학교 운동장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신경외과, 내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안과, 신경과, 한방과등 30명(의사 8명, 간호사 12명, 행정요원 10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인근 수재민들 212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의료봉사 활동〉

일 시	지 역	진료인원	의료봉사단	기 타
9. 19(금)	의성 비안	156명	변영우, 이석균 정능수, 이승우 임상혁, 송인욱	간호사 5명 행 정 4명
9. 27(토)	영천 화북	212명	변영우, 정만진 박종원, 임상혁 최석진, 박정원 박종율, 임성환	간호사 12명 행 정 10명
계		368명	14명	31명

본회 및 의협 태풍(매미) 수재의연금 모금

본회와 의협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수재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였다.

본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개원회원 2만원, 근무회원 1만원씩 모금하여 2003년 10월 1일(수)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방문하여 수재의연품(쌀10kg) 1,112포 2,500만원 상당을 기탁하였다.



http://www.kbkma.org
http://www.kbkma.org
http://www.kbkma.org

회원들의 유익한 정보 마당 본회 홈페이지 개설

우리홈페이지 이렇게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 홈페이지 소개

클릭

경상북도의사회 홈페이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전산화와 온라인의 장점인 정보 전달의 신속성, 정보화 사업이 결실을 맺어 어느 곳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정보교환, 의견수렴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비록 사이버 공간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찾아서 생동감 넘치는 정보의 장이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격렬한 토론과 인정미 넘치는 이야기로 메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의 참여가 없다면 살아 있는 공간이 될 수 없으므로 여러 회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면 앞으로 활발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회 홈페이지는 대웅제약 후원과 P@ge1의 제작지원으로 2003년 10월 문을 열었다.



1. 접속 및 로그인 방법

(1) Internet Explorer를 실행 후 주소창에 http://www.kbkma.org를 입력한 후 enter를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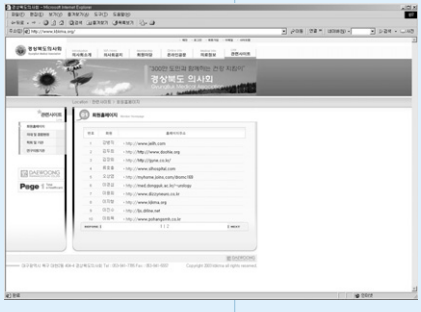
(2) 접속이 이루어진 후 왼쪽 중간부위에 있는 로그인을 누른 후 기존 가입 회원은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단추를 누른다.
(비가입 회원께서는 회원가입 하고 승인 후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된다.)

2. 홈페이지 내용 안내

본회 홈페이지는 크게 6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인 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각 페이지로 이동







❶ **의사회 소개** – 회장인사, 의사회 연혁, 의사회 회칙, 주요사업, 기구조직도, 역대회장 · 의장, 임원진소개, 사무국소개, 찾아오시는길

❷ **의사회 공지**
- 공지사항 : 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지사항을 알리는 공간
- 회원동정 : 회원들의 회무나 동정관계를 알리는 공간
- 자 료 실 : 본회 회무에 대해 알리고 자료를 올리는 공간
- 행사앨범 : 모든 행사들에 대한 사진 소개 코너
- 행사일정 : 본회 및 분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볼 수 있는 공간
- 상임이사게시판

❸ **회원마당**
- 자유게시판 : 회원님들 상호간의 의견 토론 및 다양한 소식등으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
- 경조사게시판 : 회원간의 대 소사를 공유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수 있는 공간
- 회원동영상, 회원자료실, 설문조사

❹ **온라인공문**

❺ **의료정보** : 진료와 밀접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 의료 이외의 다양한 자료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❻ **관련사이트** : 유용한 다른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장소로써 회원들 및 학회, 기관의 홈페이지도 소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공간

글로써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회원님들의 많은 방문으로 다양한 즐거움과 유용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많은 접속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사가 주체되는 의료환경 조성

2004 시군의사회 정기총회

2004년도 시군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분명한 입장과 국가 통제식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한 의료민주화 투쟁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의권확립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촉구했다.

[포항] 새회장에 오세진 회원 선출



포항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27일(금) 귀빈예식장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오세진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원기 포항시의사회장과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이병채, 신은식 원로회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기회장의 개회인사와 변영우도의사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주요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135,180,000원의 예산안을 원안통과시켰다.

의안토의에서는 국회의원 낙선운동 건의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 간소화, 의원급 의료기관 판독소견서 작성 비치 면제등에 대해서는 도의사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 회원 동호인 모임 지원등에 대해서서는 자체 처리안으로 채택하였다.

〈임원명단〉

■ 회 장 : 오세진(오세진비뇨기과의원)

■ 전민 · 장석범 · 최경자(부회장), 권영철(기획), 정현식(학술), 성승모(재무), 서보균(법제), 김광만(의무) 김익(보험), 사공정규(공보), 안길영(정보), 문신길(정책), 김창규 · 최영관(감사)

[경주] 새회장에 김장희 회원 선출



경주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24일(화) 경주힐튼호텔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김장희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백승인 경주시의사회장과 회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승인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의 격려사와 의료현안과 관련한 주요회무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으며, 백상승경주시장의 축사가 있은후, 회무에 공로가 큰 대내 · 외 인사들에게 감사장과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감사보고와 주요회무 및 결산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04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61,330,550원의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데로 받아들였으며, 의안토의에서는 심평원의 부당삭감 중단과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고시 철폐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였다.

〈임원명단〉

■ 상임고문 : 백승인(백승인소아과의원)
■ 회　　장 : 김장희(김장희산부인과의원)
■ 서보완 · 박춘근 · 이봉구 · 송재섭 · 이규춘(부회장),
황병욱(기획) · 마도훈(재무), 이진표(법제),
박형근(보험), 이길호(의무), 이국형(정보),
이홍우(홍보), 도황(환경), 양회생(학술),
천종욱 · 이경섭(감사)

[안동] 새회장에 김재왕회원 선출



안동시의사회서는 2003년 12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안동파크호텔 3층 대연회실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김재왕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과 원로회원인 최종두, 최유근회원등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일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변영우 도의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소상히 보고했다.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3천 7백여여만원 결산보고와 2004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데로 통과시키고, 회칙개정 및 회비조정, 임원 선출등이 있었다.

또한, 의사회서는 정부의 기만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의료현실에 절박한 심정으로 2월 전국의사결의대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임원명단〉

■ 회　장 : 김재왕(김재왕내과의원)
■ 이기혁 · 김경목(부회장), 김도형(기획),
배창환(재무), 배선근(홍보), 안형우(보험),
안수홍(법제), 권성경(학술), 김영석(감사)

[구미] 새회장에 장의현 회원 선출



구미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26일(목) 산타페레스토랑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장의현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종국 구미시의사회장과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김관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국회장의 개회인사와 변영우 도의사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감사보고 및 주요회무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79,219,503원의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회무에 공이 큰 구미보건소 강옥련외 3명에게는 감사패를, 홍순걸 회원외 3명에게는 공로패를 시상하였다.

의안토의에서는 진료비 심사기준 개정 건의와 진찰료와 처방료의 분리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회장에 장의현 회원을 선출하고 회무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임원명단〉

■ 회　장 : 장의현(장의현비뇨기과의원)
■ 김동욱 · 이상식 · 임한혁 · 김덕실(부회장),
류성훈(기획), 김철기(재무), 홍순걸(학술),
윤승렬(법제), 박정돈(의무), 장경화(보험),
지성구(공보), 박손원(정보), 조건희 · 김계욱(감사)

[영주]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전회원 참가 독려

영주시의사회서는 지난 1월 27일(화) 오후 6시 30분 영주 민속식당에서 개최된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는 전국의사 결의대회 참여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박시균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주)과

권영창 영주시장,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훈 영주회장의 인사말과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박시균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주요회무보고와 200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2월 22일 개최되는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전 회원이 참가해 투쟁의 열기를 높이기로 하는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하기로 하였다.



[영천] 새회장에 이지욱 회원 선출



영천시의사회서는 지난 3월 4일(목) 홍회타운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이지욱 회원을 선출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대환 영천시의사회장과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 김용진 영대영천병원장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환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변영우 도의사회장의 격려사와 김용진 병원장의 축사가 있은후, 2003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신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데로 가결하고 의안토의에서는 회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과 회비 징수방안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임원명단〉

■ 회 장 : 이지욱(이내과의원)
■ 최영하(부회장), 권영수(총무), 권오양(재무)

[상주] 새회장에 김범진 회원 선출

상주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17일(화) 오후 7시 노악산장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김범진 회원(인제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종술 상주시의사회장외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술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2003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데로 가결하였으며, 2 · 22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 전 회원이 참석키로 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임원명단〉

■ 회 장 : 김범진(인제의원)
■ 총 무 : 정선희(정소아과의원)

[문경] 제17대 총선대비 의견 개진

문경시의사회서는 지난 3월 26일(금) 오후 7시 영흥반점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회원들과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승구 문경시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박승구회장은 개회인사에서 이번 4 · 15총선은 여느때와는 달리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꼭 명심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는 이사말에 이어 2003년도 주요회무보고와 200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데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안 토의에서는 제17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관계법 해설과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세력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총선에 참여키로 하는 등,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경산] 회비 징수방식 개선



경산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17일(화) 오후 7시 한국관에서 장기호 경산시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장기호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의료현안과 관련한 주요회무에 대해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마련한 2004년도 중점사업으로는 회비 징수방식을 개선키로 하는 한편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원안데로 통과시켰다.

의안토의에서는 회비 납부율이 갈수록 저조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징수방법을 은행 온라인 입금방식으로 개선하고, 국가 통제식 사회주의 의료사회를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의료민주화 투쟁에 전 회원이 합심하여 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영덕] 새회장에 강래균회원 선출

영덕군의사회는 2003년 12월 26일(금) 오후 7시 별미식당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강래균회원(강구외과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서창수 영덕군의사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2003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받고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04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데로 가결하였으며, 의안토의에서는 의권확립과 국민건강권 확보등을 위해 일선 의사회에서 최선을 다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임원명단〉

■ 회 장 : 강래균(강구외과의원)
■ 총 무 : 권영대(권외과의원)

[성주]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성주군의사회서는 지난 2월 17일(화) 오후 7시 나고야식당에서 방종경 성주군의사회장과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방종경 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2003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데로 통과시켰다.

또한, 오는 2월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리는 조제위임제도와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 전회원과 의료인 가족들이 참여키로 결의하였으며, 의안토의에서는 현행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전면 재검토와 국민 선택제도로 바꿀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울진]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등 논의



울진군의사회서는 지난 1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대어초밥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료계를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김신일 울진군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김신일 회장의 인사말과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의 격려사가 있은다음 김용수 울진군수의 축사가 있은후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주요회무보고와 2004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과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의협 제55차 정기총회 개최



현행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모델개발등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기치로 내건 대한의사협회가 2003년도 새해 사업시행에 본격 나섰다.

의협은 2003년 4월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권신장'과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의협 대의원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에 이채현(부산, 한국정형외과의원)회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인상과 동결' 두가지 안을 놓고 논쟁을 거듭하다 현 집행부가 편성한 회비 15% 인상안이 통과되지 못해 회비동결을 전제로 한 긴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정관개정과 의협회장 직선제 폐지, 집행부 상근직 5명 이내 임명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의협 임총서 정관개정 및 의료계 현안 논의

의협은 2003년 5월 31일(토)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의권투쟁등 의협의 회무와 연관된 일로 의사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의협 회원이면 누구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수 있는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사항과, 상근이사를 5명 둘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과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03년도 회비가 동결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새로 편성한 긴축예산안 총 97억 5,149억원의 2003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 1월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총에서는 의료계 투쟁과 관련된 의약분업 거부, 의권투쟁 기금 모금 및 활용, 결의문 채택등의 안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의권투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금키로 하였다.

대구 · 경북 중앙대의원 간담회



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2003년 4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동대구호텔 자미정에서 대구 · 경북의사회 중앙대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시의사회 이창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대구 · 경북의사회장의 인사와 분과별 의안 및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의협 전체이사회, 본회 이원기의장과 대구시의사회 조영호 부회장의 예 · 결산소위원회 참석 경과보고, 의협 신은식 감사의 감사보고와 각 분과별 토의사항으로 진행되었다.

의협 임총 관련 본회 중앙대의원 간담회 개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5. 31)와 관련해 포항지역 중앙대의원 간담회가 2003년 5월 27일(화) 오후 7시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협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의사면허가 취소된자의 회원자격 유지 문제와 종전 3명이내의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를 상근부회장 1인과 4인이내의 상근이사를 임명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또 최근 의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익신고포상금제도, 처방전 발행매수와 조제 및 판매내역서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간담회에는 본회 변영우회장과 이원기의장, 신은식 전 의협감사, 전민의 무이사(중앙대의원)가 참석하였다.

대구 · 경북의사회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2003년 12월 9일(화) 오후 7시 동대구호텔에서 열린 대구 · 경북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는 작금의 의료현실에 참담한 심정으로 회원 결의대회를 12월 20일(토) 오후 5시 경북의대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의사들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의료정책에 항거하기 위하여 대구 · 경북의사회 회원 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위해 지역의사회서는 반회의와 송년모임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하였으며, 행사진행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키로 하였다.

새 집행부 상견례 및 간담회



2003년 4월 1일 출범한 경상북도의사회 새 집행부 임원간담회 및 제1차 상임이사 연석회의가 2003년 4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경주 코오롱호텔 화랑C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은식 명예회장과 최유근 임시의장등 내빈다수와 임원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유근 임시의장으로부터 의장단, 회장단, 감사, 중앙대의원, 중앙이사에게 선임장을 전달한 후 본회 변영우회장은 집행부 상임이사와 정책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였으며, 새 집행부의 구성에 따른 상견례를 가졌다.

또한 백승인 기획이사로부터 제52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총회 경과보고등에 대한 회무보고와 토의사항의 순서로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본회 임원 워크샵서 현안 관련 결의문 채택



2003년 8월 9일(토)~10일(일) 양일간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 및 임원워크샵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기 전산심사 등 의료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임원워크샵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광고의 범위=백승인 기획이사 ▲의쟁투 부활에 대한 논의=이봉구 기획이사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이경수 보험이사 ▲감염성폐기물 처리=전민 의무이사 ▲포괄수가제(DRG)=류효충 정보이사의 주제 발표가 있은 후 이에 대해 자유토론이 있었다.

또한, 경상북도의사회 임원일동은 ▲모든 의료 정책은 경제 논리보다 국민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왜곡된 언론 플레이를 중단 ▲규격진료를 조장하는 전산심사를 철회 ▲포괄수가제 강제 실시와 총액 계약제 도입 논의 즉각 중단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 ▲임의조제, 불법 대체 조제를 막을 수 있는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즉각 실시등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다면 언제든지 의쟁투 조직을 재건하여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밝혔다.

병원 및 시군의사회 방문 2 · 22 행사 독려



본회 변영우회장은 지난 2월 22일(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경북도내 병원을 직접 방문하였다.

2월 10일 포항지역 병원장 간담회를 필두로 구미, 경산, 안동, 문경, 상주, 김천의 각급 병원장과 진료부장을 만나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 개최



2004년도 의료계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2 · 22 전국 집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집회 준비와 관련한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경북도의사회관 3층 강당에서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 전회원이 동참하는데 뜻을 모으고 직원 및 가족 2명이상이 참가토록 독려하여 차량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하였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1/31)와 본회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2/5)에서 의결한 특별회비 모금에 대해서는 향후 의권투쟁과 4 · 15 총선을 대비함은 물론 성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비와 달리 회원의 회비면제 여부를 막론하고 전 회원이 동참하여 투쟁기금을 전원 모금키로 의결 하였다.

또한, 2월 반모임 행사를 2월 17일(화) 점심시간에 관계 유관단체장 및 축산관계자를 초청하여 닭 또는 오리를 재료로 하는 메뉴로 정하여 식사를 하면서 조류독감 감염의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정책이사회의서 의료현안 논의



2003년 9월 2일(화) 오후 7시 대구 파크호텔에서 정책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정책분야와 건강보험분야, 포괄수가제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제1차 전국의사 반모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주제로 선정된 포괄수가제도에 대해 중점논의한 후 의료발전과 양질의 진료를 저해하는 DRG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올바른 건강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으며, 앞으로 정책이사회의를 활성화하여 지역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회무에 기본 자료로 활용키로 하는 한편 의료정책개발에 모토가 되는 기구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

2003년 10월 11일(토)~12일(일) 경기도 오산 롯데연수원에서 400여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만의사의 생존 · 자유 · 희망'을 슬로건으로 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수가문제, 분업재평가등 산재한 의료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1월 31일(토)~2월 1일(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의료민주화투쟁을 위하여 2월 22일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전회원과 가족이 모두 동참키로 결의하였다.



전국의사 반모임 행사 및 주제내용

전국 회원의 단결과 의료계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 및 회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전국의사 반모임을 개최키로 하고 현재까지 9차에 걸쳐 실시되었음.
또한, 전국 반모임행사에서 그 동안 실천활동이 우수한 경산시의사회 제1반회(반장 정용태)가 전국 최우수 반으로 선정되어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 석상(1월 31일)에서 의협회장의 표창패와 부상을 수상하였음.

구 분	일 시	주 제
제1차	2003년 8월 29일(금)	DRG제도 전면 시행에 대한 대책
제2차	2003년 9월 26일(금)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 방안
제3차	2003년 10월 31일(금)	불법진료조제 및 약 바꿔치기조제의 실태와 대책
제4차	2003년 11월 28일(금)	수가 2.65% 인상에 따른 향후 투쟁방안
제5차	2003년 12월	국민과 의사와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복지시설 돕기 방문행사
제6차	2004년 1월 30일(금)	2 · 22 전국집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원동원방안
제7차	2004년 2월 17일(화)	조류(닭 · 오리고기)시식 행사
제8차	2004년 3월 26일(금)	개정선거법에 따른 불법선거운동 사례 숙지
제9차	2004년 4월 9일(금)	총선참여 방안





전국 시도의사회 직원 워크샵 개최

2003년 10월 11일(토)~12일(일) 양일간 경기도 오산 롯데연수원에서 전국 시도의사회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의협 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중앙회 및 시도의사회 사무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중앙회 및 시도의사회 사무조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룹토의가 있었으며, 공제회 가입안내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에서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사업과 의협 포탈 활용도 제고, 회무관리 프로그램의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국 시 · 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석

2003년 6월 17일(화) 오후 7시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제1차 시 · 도 보험이사 연석회의에 본회에서는 조성범 보험이사가 참석하여 재정경제부의 '의료비 영수증 특정서식 사용 강제화' 방침에 대해 의사 사회의 여론을 수렴,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발생 시점에서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당금을 산정하면 1~3개월후 실제 의료기관이 지급받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영수증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각시도 보험이사들은 특정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용지 및 시스템 교체에 따른 요양기관의 기회비용 상실은 물론 행정적, 경제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 경북 및 시군구 보험이사 간담회 개최

2003년 11월 26일(수) 오후 7시 30분 대구 · 경북의사회 시군구 보험이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간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의 조속한 정착 등 심평원 대구지원의 심사업무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통하여 향후 원활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본회 이경수, 조성범 보험이사와 대구시의사회 김종서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시군구의사회 보험이사 15명이 참석했다.

의협, 심평원대구지원 심사위원과 간담회

의협에서는 지난 2월 6일(금) 오후 7시 호텔 제이스에서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비상근 심사위원 및 대구 · 경북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심사제도(PRO) 도입에 따른 설명과 기타 의료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을 비롯하여 대구시의사회와 본회 회장단과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서는 이원락 상근 심사위원장과 대구 · 경북 비상근심사위원 18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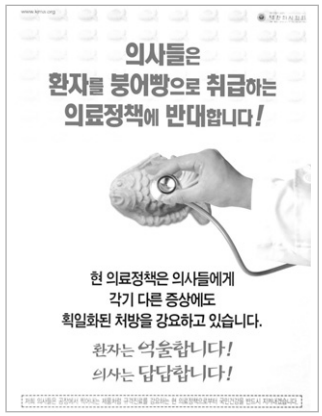


'붕어빵식 진료' 반대운동 전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 홍보용포스터를 제작 배포하였다.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에는 "의사들은 환자를 붕어빵으로 취급하는 의료정책에 반대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의료정책을 붕어빵식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 의료정책은 의사들에게 각기 다른 증상에도 획일화된 처방을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언론의 편파성 보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일부 언론에서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한 편파성 보도에 대해 의료계의 경우 연간 6억여건의 청구 중 부정확 비율은 0.08%로, 타 직종에 비해 매우 정화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의 공공화 · 사회보험화'를 좌시하지 않고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온 잉여인력을 의료기관 실사권과 연계해 해결하려는 발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본회와 대구시의사회서는 2003년 7월 15일(화)자 매일신문 · 영남일보에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대국민 광고를 즉각 게제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과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003년 5월 16일(금) 의사회관 3층 강당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2년도 귀속 소득별 정기신고와 개정된 소득세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이원우과장을 초청하여 의료계의 입장과 국세청의 세정안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회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세청의 2003년도 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은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유도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문제점 분석 강화, 세무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치밀하게 대비한다는 내용이었다.

제2회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개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2002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가 대한의사산악회와 함께 2003년 5월 25일(일) 소백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등반대회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 전국 의사회원 및 가족 400여명과 본회에서는 2003년에 이어 더 많은 71명의 등산 애호가들이 참석하여 죽계구곡을 옆에두고 오르는 4시간여의 산행은 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국 의사회원과 가족들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해 알찬행사로 진행되었다.

본회에서는 이날 등반대회에 쓰여진 모든 경비 및 관광버스비를 지원했으며, 안동시 · 영주시의사회에서 치약을, 포항시의사회에서 회와 타올을, 경주시의사회에서 황남빵을 기증했고, 대한의사산악회에서 판쵸우의, 나침반, 손수건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닭고기 소비촉진행사 개최

조류독감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의 고통을 함께하고 조리된 음식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각시군의사회서는 유관단체장을 초청하여 소비촉진행사 및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지역	일 시	장 소	지역	일 시	장 소
포항	2. 12(목) 13:00	은정삼계탕	문경	2. 17(화) 19:00	부산삼계탕
경주	2. 16(월) 12:00	물방아삼계탕	경산	2. 17(화) 12:30	정박사냉면
김천	2. 17(화) 12:30	주왕산삼계탕	군위	2. 17(화) 12:30	뒷발이삼계탕
안동	2. 17(화) 18:30	안동병원 식당	청도	2. 17(화) 19:00	장수식당
구미	2. 17(화) 13:00	가리산삼계탕	고령	3. 2(화) 12:00	청솔약수삼계탕
영주	2. 12(목) 18:30	청솔식당	성주	2. 18(수) 12:00	약수골삼계탕
영천	2. 17(화) 19:00	배밭골황토오리	칠곡	2. 17(화) 13:00	장수삼계탕
상주	2. 17(화) 19:00	노악산장	예천	2. 17(화) 12:00	삼정식당





울진군의사회 회원 친선행사



2003년 7월 19일(토) 오후 4시부터 울진군 후포읍 요트경기장에서 회원 및 가족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행사를 개최하여 요트를 타면서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청송횟집에서 열린 단합대회는 이진홍 총무의 사회로 김신일 울진군의사회장의 인사가 있은 다음 변영우 경북도의사회장으로부터 의료현안 설명과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제7회 포항시 의사의날 행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위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포항시 의사의날 행사가 2003년 4월 27일(일) 오전 10시 포항 동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변영우 회장을 비롯한 이원기 포항시의사회장, 신은식, 이병채, 이경수 원로회원등 회원 및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경기인 축구, 족구, 피구, 줄다리기, 윷놀이와 개인전인 바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번외 경기로 5km 단축 마라톤대회를 열었다.
4개팀으로 구성된 이번 의사의날 행사에는 모든 선수들과 가족들의 열띤 응원과 참여로 모든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A팀(동국대포항병원, 사랑병원, 4반, 5반, 6반, 7반)이 제7회 포항시의사의날 행사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마지막 복권 추첨에서는 광마우스, 스캐너, 선풍기, TV등 다양한 경품으로 회원 및 가족들의 희비를 가렸다.

제1회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참가



「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건강을 걸읍시다」라는 테마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걷기를 통해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2003년 8월 3일(일) 오전 10시 경주시 보문단지 엑스포 정문 건너편 잔디광장에서 제1회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건강걷기대회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광장을 출발하여 보문호수를 돌아오는 6km 구간의 걷기대회가 펼쳐졌으며, 1만여명의 가족단위 도민이 참가하여 가족간 세대간의 가족문화 정립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축제한마당을 연출하였다.
본회에서는 이날 참여한 내빈과 행사진행요원들을 위해 모자 500개를 제작하여 후원하였다.

2003년판 회원명부 발간, 배포



신규 회원의 증가와 소재지 이동, 전화번호 등의 변경으로 회원 상호간의 연락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목도모를 위하여 도내 전체회원의 사진 및 인적사항이 수록된 2003년판 경북의사회 회원명부가 발간되어 지난 2003년 12월 1일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총 310여쪽 4×6배판으로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별 회원들의 사진과 함께 성명, 생년월일, 의료기관명, 주소, 병원전화, 팩스, 자택전화, 이메일, 면허번호, 휴대전화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회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맑고 화창한 가을하늘 아래 열린 제2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가 회원상호간의 친선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2003년 10월 19일(일) 오전 11시 경주현대호텔 테니스코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테니스대회에 참석한 선수는 훌륭한 기량을 과시하며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제1회 대회보다 훨씬 많은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하여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경기성적(복식조)
- 우 승 : 김지홍(김지홍정형외과의원), 김신일(경북의원)
- 준우승 : 전 민(전민신경정신과의원), 이태우(포항성모병원)

대구, 경북의사회 직원 등반대회



2003년 11월 15일(토) 경상북도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 사무직원

들은 친목도모와 의사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 형성을 위해 전남 순천 승보사찰의 산실인 조계산 송광사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무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본회 직원과 대구시의사회 직원등 20명이 참가했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의무지원

2003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린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구 · 경북지역 25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선수촌과 경기장등 대회 관련 시설의 의무실 및 약물검사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진료와 후송으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인력과 의무지원을 실시하였다.
본회 변영우 회장은 대구하계U대회 의무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라크 민간 의료봉사단 파견 지원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의료봉사단(단장 정만진, 경북의사회 부회장)이 2003년 5월 21일(수) 발대식을 갖고 5월 23일(금) 이라크 현지로 출발하여 10여일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6월 1일 귀국하였다.
의료봉사단은 이라크 보건성을 비롯하여 UAE 의료캠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 이태리 적십자 의료캠프, 이라크내 보건소, 소아병원, 국제NGO기구 운영 임시 진료소 등을 방문 조사하고 현지에서 진료활동도 펼쳤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입장권 배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의근)는 2003년 4월 17일(목) 11시 대구은행 본점 광장에서 이의근 도지사, 본회 변영우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구매행사를 가졌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서는 관람객 편의 및 사전 예매제 정착을 위해 사전예매 고객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줌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엑스포 입장권을 공동으로 일괄구입해 시군의사회에 배부하여 많은 회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다.

사랑나눔 자선음악회에 사랑의 성금 기탁

2003년 12월 15일(월) 오후 3시 경산시민회관에서는 제6회 사랑나눔 자선음악회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TBC 대구방송 주최로 열렸다.
이날 열린 자선음악회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어 초청가수의 공연과, 경산시여성합창단의 합창순으로 열렸으며, 본회에서는 이날 변영우 회장이 참석하여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랑의 성금으로 3백만원을 기탁하였다.

SMS 문자메시지 발신기 설치 운영

본회에서는 최단시간내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일선 회원들에게 공지할 내용을 신속 · 정확하게 전달하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2시간내 비상연락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SMS 문자메세지 발신기를 지난 1월 2일(금)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2 · 22 전국의사 결의대회와 학술대회등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사항에 대해 수시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개최

의료법 제54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경상북도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2003년 6월 20일(금) 오후 3시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의료분쟁조정은 치아치료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건과 척추디스크 수술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2건이 있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남효채 위원장(경북 행정부지사)을 비롯해 변영우 부위원장(본회 회장)등 14명의 의료심사조정위원이 참석하였다.

의협회장단과 복지부장관 방문

변영우 본회 회장(의협 부회장)은 김재정 의협회장등과 2003년 5월 2일(금)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방문하여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

을 비롯해 처방전 발행문제, 사스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의협 회장단과 복지부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는 정부의 고시 남발 문제, 심사평가원의 급성호흡기 감염증 심사원칙,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서도 2매 발행의 문제점 및 부작용등을 설명하는 등 의료계의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상견례는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해 박한성, 정덕희, 변영우, 김세곤(상근) 부회장 등이 배석하였다.

제5차 평양의학과학 토론회 참석

의협 방북대표단(단장 신상진 前 의협회장)은 2003년 10월 16일 북한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는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13일 방북하였다.
이번 방북에는 신상진 전 의협 회장을 포함해 김세곤 의협 상근부회장, 본회 변영우회장 등 27명이 참여하였으며 10월 14일(화)~18일(토) 5일간 북한(평양)에 머물렀다.

제31회 보건의날 기념행사 참석



2003년 4월 7일(월) 오전 11시 포항시 청소년회관에서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본회 변영우회장과 지역 보건 의료관계자, 자원봉사자, 주민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건강실천 운동을 확산시켜 도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사와 줄넘기 시범과 스포츠 댄스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지역보건사업 및 건강실천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기관과 도민에게 표창 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제7기 출범식 참석

'국민과 함께 하는 대전협'을 모토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7기 출범식이 2003년 6월 29일(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임동권 7기 대전협회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대전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낡은 수련제도 청산과 전공의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는데 7기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신임 7기 집행부 명단을 발표하고 후원금 전달식과 '이달의 전공의' 시상식을 거행했으며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전의협회장, 김세곤 의협상근부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권영호 인천시의사회장, 변영우 본회회장등이 참석하여 7기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경북도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서 특강

2003년 11월 14일(금) 오전 9시 경주 현대호텔에서 본회 변영우 회장은 "21C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료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의료계의 현안과 공중보건의사들의 자세 등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날 보수교육은 의료법 및 공중보건의사운영제도지침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경북도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500여명(1년~3년차)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업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11월 14~15일(금·토) 양일간 실시되었다.



본회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 회무안내와 회원들의 문예지 역활을 하고 있는 경북의사회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고 편집방향등을 설정하였으며, 2004년 특집에는 '의사 그들은 누구인가?(의사가족이 보는 의사상)'라는 주제로 의사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2일(목) 오후 7시 경주 코오롱호텔 금관홀에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도 회무감사 수검



2003년도 회무감사가 지난 3월 12일(금) 오후 7시부터 본회 사무국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는 본회 회계와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며, 하상호·유성호·정능수 감사와 집행부에서는 변영우 회장, 정만진 부회장, 백승인·이봉구 기획이사, 천종욱 재무이사가 배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평가단 회의 주재

4 · 15 총선을 대비한 의협의 정치참여 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난 2월 25일(수) 의협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평가단회의에 본회 변영우회장(평가단 단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평가단 및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의협의 정치참여계획으로는 정당 및 후보의 성향 및 정책분석과 총선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을 점검, 총선후보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총선에 임하는 회원들의 행동지침을 마련해 의협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지역평가단을 중심으로 대회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변영우 단장은 이번 총선이 의료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회원이 임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평가단 활동은 공개적,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될것이라 덧붙였다.

윤리위원회 구성 및 규정 제정

의협에서는 기존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정관 제57조 제1항 및 개정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에 의해 시도지부 윤리위원회 규정도 전면 개정토록 하였다.

본회에서는 의협에서 마련한 시도 윤리위원회 규정을 토대로 전면 개정하는 한편 신은식 회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윤리위원회 위원명단

- 위 원 장 : 신은식(포항, 신정형외과의원)
- 부위원장 : 유동명(안동, 유동명정형외과의원)
- 위　　원 : 정만진(영천), 안길룡(김천), 김지홍(포항), 김종국(구미), 손병욱(경산), 권세홍(안동)
- 간　　사 : 김장희(경주, 본회 법제이사)

본회 회원경조규정 제정

회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이 하기 위하여 본회에서는 경조규정을 제정하였다.

특히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회원조의금 지급기준

회원구분	조의금(회비납부기준)		비　고
	10년 이상	10년 이하	
개원회원	500,000	300,000	조화별도
근무회원	300,000	200,000	
전공의회원		200,000	

■ 일반경조비 지급기준

구　　분	기준 및 내용	금액	비고
회원직계 존비속 조의금	조화대	100,000	
회원본인 결혼시 축의금	화환 또는 축의금	100,000	
기타 유관기관 등 행사	화환 · 축 · 조의금	100,000	

해외에 심은 의료봉사의 혼

포항지역 병원들이 활발한 해외 무료진료를 벌이면서 현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포항성모병원과 한동대선린병원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필리핀에 각각 의료봉사단을 파견, 무료진료활동을 펴고 돌아왔다.

포항성모병원 의료봉사단은 필리핀 빠라나께 지역 및 따가이따이 지역에서 현지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의료진은 또 2003년 실시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수익금 750여만원을 빈민구제에 사용하도록 전달하였다.

한동대선린병원도 같은 시기에 필리핀 민도로섬 주민들을 위해 일반외과, 정형외과등 10여명의 의료봉사단을 파견, 현지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2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한동대선린병원 이라크에 의료봉사단 파견

한동대선린병원(병원장 이건오)이 전쟁의 상처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라크에 2003년 4월 28일 의료봉사팀을 파견하였다.

선린병원측은 전쟁으로 인해 부상과 전염병에 신음하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이건오 병원장을 비롯한 8명의 의료진이 2주동안 바그다드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건오 병원장을 팀장으로 김문규 소아과장, 김현태 외과과장, 서이아 간호부장등 8명으로 구성

하여 진료, 구호활동등을 펼쳤으며, 한동대선린병원에서는 2003년 5차례에 걸친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포항 지역민 대상 성인병 무료진료 실시

2003년 9월 25일 포항세명기독병원과 한동대선린병원이 각각 성인병강좌 및 무료진료,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심장병 무료검진을 실시하였다.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는 성인병 클리닉센터인 생활습관개선연구소 주관으로 26일 '비만 치료를 위한 운동 및 식사요법' 강의와 참가자들에 대한 무료혈당, 체지방, 혈압체크를 실시하였다.

한동대선린병원도 지난 9월 25일 심혈관센터에서 지역내 택시기사를 상대로 심장병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심장병에 대한 강의와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있는 경우 심초음파 검사와 운동부하검사도 병행해 실시하였다.

포항성모병원 남녀고용평등 우수상 수상

포항성모병원(병원장 이종녀, 의무원장 장석범)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3회 남녀고용평등 기업 평가에서 대구 · 경북지방 병원 중 유일하게 노동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에서 박길상 노동부차관은 '적절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전 직원 능력개발의 아낌없는 투자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병원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에 병원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노사문화 창달로 지역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미차병원 무료진료활동 펼쳐

포천중문의대구미차병원에서는 김천시 지역 농민들에게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2003년 8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1차 무을면 무이리, 2차 구성면에 이어 3차에 걸쳐 무료 진료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진료는 농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내과적 질환, 외과적 질환 등을 중심으로 의료진 15명(의사 5명, 약사 1명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파견하였다.

순천향대구미병원 사랑의 의료봉사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의료봉사단(단장 방사선과 임한혁)은 2003년 9월 27일, 김천시 대덕면 덕산2리를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덕산2리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곳으로 수해복구가 한창이었다.

단장인 임한혁 교수(방사선과)를 주축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덕산2리 마을회관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수인성 질환을 진료하고 노인,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였다.

안동성소병원 태풍피해지역 의료봉사 실시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영양 지역에 의사 및 간호사등 48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2003년 9월 27일(토) 봉사 활동을 펼쳤다.

무료 이동 의료봉사에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응급의학과 등 4개과목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라면 및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하였다.

이날 봉사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리, 감천리 지역을 이동하면서 진료를 하여 200여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잦은 비로 인한 흉작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 마저 입게되어 심적, 물적 피해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까지 겹쳐있던 지역민들에게 실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세계오지서 18년간 의료선교 펼친 강원희 회원



18년간 세계 오지를 찾아 의료선교 활동을 벌여 아시아의 슈바이쳐로 불리는 명성의료재단 강원희 전 안동 성소병원장이 2003 MBC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강 원장은 1982년 네팔 의료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본격적인 오지 의료봉사활동에 나섰으며, 1999년 해외봉사를 마치고 명성의료재단 안동성소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무의촌 진료 활동과 캄보디아 단기의료 선교에 힘써 왔으며 2002년 5월 에티오피아 의료선교활동을 위해 또 다시 출국하였다.

현재 아프리카의 최고 오지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명성의료재단이 건립 중인 명성메디컬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 부족한 의약품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 현실을 박애주의적 인류애를 통해 극복해오고 있다.

동국대의료원장에 고복현 교수
동국대의대학장에 심재철 교수




동국대 의료원장에 고복현 교수(해부학,좌)가, 의대학장에 심재철 교수(산부인과학,우)가 각각 임명되었다.

동국대는 2003년 8월 7일(목) 홍기삼 총장이 겸임하고 있던 의료원장 후임으로 고복현 교수를, 또한 2004년 3월 5일(금) 심재철 교수를 의대학장에 임명하였다.

고복현 의료원장은 197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89년 동국의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동국대 의학연구소 소장(1997~1998)과 의대학장등을 역임하였다.

심재철 신임 학장은 198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7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산부인과 교수 및 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3년 진료부장을 역임후 현 의대학장에 선임되었다.

동국대포항병원장에 박용석 교수
동국대경주병원장에 이규춘 교수




동국학원은 2003년 10월 1일 동국대포항병원장에 신임 박용석 교수(신경외과,좌)를, 동국대경주병원장에 이규춘 교수(신경외과,우)를 각각 임명하였다.

박용석 병원장은 1981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동국대포항병원 신경외과교수 및 과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이규춘 병원장은 1982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동국대경주병원 신경외과 교수 및 과장으로 재임하던중 2003년 10월 1일부터 각각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상주성모병원장에 황정한 회원 취임



상주성모병원 병원장에 황정한 회원이 취임하였다.

신임 황정한병원장은 1986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경남 거창서경병원 이사, 부원장, 병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로 상주성모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안동성소병원장에 박승국 회원 취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과 교수인 박승국 회원이 2003년 9월 1일부로 안동성소병원 제17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신임 박승국병원장은 1963년 경북의대을 졸업하고, 1990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및 경주동산병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96년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 및 동산의료원장 역임후, 2003년 9월 1일 안동성소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영양병원장에 김득수 회원 취임



영양병원 병원장에 김득수 회원이 취임하였다.

신임 김득수병원장은 197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김득수외과의원을 개원하다 2003년 7월 1일부로 영양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원락 회원 대구지역 심평원 위원장 취임



이원락 회원(대구, 소망정형외과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역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공채에 합격하여 2003년 9월 1일 취임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 있다.

이원락위원장은 1969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방환경청금호강환경관리위원회위원,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전국의사산악회 회장에 최호섭회원 피선



국내 최대규모의 의사산악인 동호회인 대한의사산악회가 2003년 5월 25일 영주 소백산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최호섭회원(구미, 한국전자부속의원)을 산악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001년 3월 서울시의사산악회가 확대 발전해 창립한 대한의사산악회는 현재 300여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중이다.

최호섭회원은 1990년부터 포항등산학교 교장과 포항시의사산악회 회장직을 맡아 오고 있다.

의협, 대외기획특별위원장에 변영우 회장 임명



의협 대외사업추진본부(본부장 · 김재정 의협회장)에서는 2003년 7월 26일(토)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대외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변영우 본회 회장을 임명하였다.

의협 대외사업추진본부 산하에는 대외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전태준)와 대외기획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사업추진본부는 의협 회장 직속 특별위원회로서,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 입안 · 결정과정에 의협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생산을 선도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경상북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5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본회 변영우회장이 위촉되었다.

동위원회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남효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으며, 위원에는 의료관련단체 4명, 대학교수 4명, 도의원 1명, 변호사 1명, 소비자단체 1명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2년간(2003. 5. 27~2005. 5. 26)이며 앞으로 경상북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성기태회원 로타리 3630지구 총재



성기태회원(구미, 성기태정형외과의원)이 2003년 7월 1일 국제로타리 3630지구 총재(2003~2004년도)에 취임하였다.

구미 센츄리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3630지구 총재 이 · 취임식에는 엄이용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 구미시장, 변영우 경북도의사회장, 김종국 구미시의사회장등 많은 내빈과 200여명의 로타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국제로타리 3630지구는 사랑의 씨앗을 뿌려온 2002~2003년도 한해를 마감하고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이라는 인도테마로 인도주의와 교육적인 사업의 프로그램을 갖고 연구단 교환, 친선사절 장학금, 청소년을 위한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게 된다.

의협고문에 이병채 회원



2003년 7월 3일(목) 의협에서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본회 이병채(포항, 이병채산부인과의원)회원등 43명을 고문으로 추천하였다.

이병채 회원은 1959년 3월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64년 8월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 포항시의사회장, 1991년 경상북도의사회 35대 회장, 1997년 대한의사협회 감사를 역임했다.

현재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이병채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해오고 있으며 지역의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해오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인사소위원장에 정만진 회원



의료정책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의 사전검토와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에 본회 정만진회원(영천, 정만진소아과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인사소위원에 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정만진회원 수필가로 등단

정만진 회원(본회 부회장)은 「수필과 비평」 2004년 3/4월호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정만진회원은 이미 한미수필문학상 제1회와 제3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지 편집위원과 본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창근회원 특별대상 수상



정창근회원(안동.정창근이비인후과의원)이 9월 4일 수원 유신학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9회 유집상 시상식에서 자원봉사부문 특별대상을 수상하였다.

유집상은 학교법인 유신학원 설립자인 박창원선생의 추모사업회에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봉사자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정창근회원은 59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66년 안동성소병원 이비인후과장, 69년 정창근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오면서 97년 국제로타리3630지구 총재, 2001년 안동시온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길노 병원장 산업평화대상 금상 수상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이길노 병원장이 지난 1월 14일 경북도청에서 실시된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에서 노사화합과 근로자 복지증진 기여의 공로로 산업평화상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길노 병원장은 IMF 시절인 1998년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노사 신뢰와 화합으로 무분규를 실현하며 경영위기를 극복하였고, 이후에도 구미지역 사업장 중 가장 먼저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개원의협의회 평의원 선출





개원의협의회 회칙 제12조(평의원의 선출 및 임기)에 따라 2003년부터 활동할 본회의 개원의협의회 평의원을 유동명회원(안동, 유동명정형외과의원)과 전민(포항, 전민신경정신과의원)회원을 선출하였다.

평의원의 임기는 2003년 6월 21일부터 2006년 정기평의원회 전일까지이다.

대 · 경소아과의사회장에 장기호회원 피선



2003년 6월 3일 프린스호텔 별관에서 개최된 대 · 경소아과개원의협의회 총회에서 장기호회원(경산, 현대연합의원)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의 명칭을 대 · 경소아과개원의협의회에서 대 · 경소아과의사회로 바꾸기로 하는등 회칙개정도 있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이석균 회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해 마약류의 오 · 남용 방지와 홍보 · 계몽 활동을 통하여 마약류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마약류명예지도원에 이석균회원(경산, 청십자의원)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년이다.

의협, 학술위원회 위원에 김용탁회원



의협에서는 학술상 심사 및 전반적인 학술진흥 업무의 증진을 위한 학술위원회(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는 김용탁회원(경주, 김용탁산부인과의원)을 추천하였다.

의협, 홍보위원회 위원에 김광만회원



의협에서는 합리적인 홍보정책의 수립과 홍보방법의 연구개발 및 회원과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는 김광만(포항, 김소아과권방사선과의원)회원을 추천하였다.

의료사고분쟁의 해결책, 분쟁조정, 합의, 보상의 모든 것 **의료배상공제**

＊보상한도액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면책금(자기부담금) : 2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특별약관 : 경호비용담보, 벌금담보, 형사방어비용담보, 관습상비용담보, 초빙/마취의담보

가입문의처 :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Tel.02-794-2480, 6587, 2474(ARS 8) Fax. 02-792-1361
[702-82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경상북도의사회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강인주회원 별세

강인주회원(안동, 강인주신경외과의원)이 2003년 5월 21일 향년 6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강인주회원은 1964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1968년 제주보건소장을 거쳐 1977년 안동성소병원 신경외과과장을 역임하였으며, 1995년 7월 28일 안동시 운흥동 187-40번지 소재에 강인주신경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오면서 지역 시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정경택회원 별세

정경택회원(성주, 성주병원)이 2003년 5월 26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정경택회원은 1951년 경북의대를 졸업하였으며, 1984년 성주군의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



최치상회원 별세

최치상회원(상주, 호산나의원)이 2003년 7월 30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최치상회원은 1944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상주적십자병원 병원장과 일본오키나와이강진료소장을 역임후 1985년 호산나의원을 개업후 지역의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빈남수회원 별세

의료계와 수필계의 원로인 빈남수회원(포항, 빈내과의원)이 2003년 8월 23일 향년 77세 숙환으로 별세했다.

故 빈남수회원은 1952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59년 내과전문의와 1966년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69년「상처후유증」을 발표하면서 수필계에 등단하여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왔었다.



김천수회원 별세

김천수회원(상주, 김천수의원)이 2003년 10월 10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김천수회원은 194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도립대구병원 · 마산병원 외과과장 역임후 김천수외과병원을 개원해 오던중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986년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상주시지부장으로 피선되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영빈회원 별세

한영빈회원(포항, 포항세명기독병원)이 2003년 12월 9일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한영빈회원은 1941년 중국에서 학위 취득후, 1945년부터 함남도립함흥병원 · 포항기독병원 병원장을 역임하고, 1996년 포항기독병원 이사장(내과과장)을 지내면서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해 왔었다.



신조균회원 별세

신조균회원(경주, 신외과의원)이 2004년 1월 22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신조균회원은 1940년 의사 면허를 취득후, 1959년 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경주 신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지역 의료계 발전과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었다.



고정완회원 별세

고정완회원(포항, 고정완비뇨기과의원)이 2004년 1월 23일 향년 5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고정완회원은 1975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포항기독병원 비뇨기과 과장을 역임후 1985년 고정완비뇨기과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었다.



김선복회원 별세

김선복회원(경산, 중앙의원)이 2004년 2월 25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김선복회원은 1949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부산시립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1957년 9월 경산시 자인면에서 중앙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시민보건향상 향상과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

변영우회장동정

[관외활동]

1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3. 30
2	남북 의료인 학술대회교육	2003. 4. 22
3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5. 1
4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방문	2003. 5. 2
5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5. 7
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5. 9
7	33대 의협회장 취임식 참석	2003. 5. 13
8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5. 15
9	의협 제1차 전체이사회의 참석	2003. 5. 17
10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5. 20
11	의협 이라크 의료봉사단 출정식	2003. 5. 21
12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5. 22
13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5. 24
14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5. 29
15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6. 5
16	박시균국회의원 후원회 참석	2003. 6. 5
17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6. 12
18	이원형국회의원 후원회 행사	2003. 6. 17
19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6. 19
20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6. 26
21	금연선포식 참석	2003. 6. 26
22	의협 임직원 워크샵 참석	2003. 6. 28
23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7. 3
24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7. 5
25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7. 10
2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7. 16
27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7. 24
28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7. 26
29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7. 31
30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8. 7
31	의협 대외협력위원회의 참석	2003. 8. 13
32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8. 14
33	영호남 지역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8. 16
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방문	2003. 8. 18
35	의협 핵폐기장관련 공청회 참석	2003. 8. 20
3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8. 21
37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8. 28
38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2003. 9. 1
39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9. 4
40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9. 6
41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9. 18
42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9. 25
43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9. 26
44	의협 대외협력위원회의 참석	2003. 10. 8
45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0. 9
4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0. 23
47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0. 30
48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11. 1
49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1. 6
50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1. 13
51	고신의대 파업관련 현지조사	2003. 11. 18
52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11. 19
53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11. 20
54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1. 20
55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1. 27
56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11. 29
57	한국의학100주년 기념행사	2003. 12. 2
58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2. 4
59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2. 11
60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3. 12. 24
61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2. 24
62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3. 12. 31
63	2004 신년교례회 참석	2004. 1. 3
64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 8
65	의협 대외협력위원회의 참석	2004. 1. 7
6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 15
67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1. 10
68	의협 대외협력위원회의 참석	2004. 1. 28
69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1. 29
70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2. 5
71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2. 7
72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2. 12
73	의.변협 공동세미나 참석	2004. 2. 14
74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2. 19
75	의협 총선기획단회의 참석	2004. 2. 25
76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2. 26
77	영호남 지역회장회의 참석	2004. 2. 28
78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3. 4
79	시도의사회장회의 참석	2004. 3. 6
80	의협 상임이사회 참석	2004. 3. 11

[관내활동]

1	신은식의협감사와 회무협의	2003. 3. 20	포항
2	이원기의장과 회무협의	2003. 3. 24	포항
3	의무사관후보생 위문	2003. 3. 27	영천
4	송재영이사 회무관계 방문	2003. 4. 2	청도
5	제31회 보건의날 행사	2003. 4. 7	포항
6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2003. 4. 8	대구
7	임원구성협의차 방문	2003. 4. 16	포항
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3. 4. 17	대구
9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3. 4. 18	대구
10	중앙대의원 간담회	2003. 4. 24	대구
11	포항시의사의날 행사	2003. 4. 27	대구
12	식약청 본부청장 간담회	2003. 3. 21	대구
13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3. 5. 12	대구
14	국세청 간담회	2003. 5. 16	대구
15	경북도민 체전	2003. 5. 20	영주
16	안동 강인주회원 문상	2003. 5. 23	안동
17	회무관계 협의회	2003. 5. 27	포항
18	경주엑스포 음악회	2003. 6. 3	대구
19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3. 6. 12	대구
20	대구시자선음악회	2003. 6. 13	대구
21	포항 이종학회원 문상	2003. 6. 14	포항
22	의료분쟁조정위원회	2003. 6. 20	대구
23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3. 6. 27	대구
24	성기태회원 총재취임	2003. 7. 1	구미
25	구미시회원 친선행사	2003. 7. 6	구미
26	의료분쟁관계 현지방문	2003. 7. 8	성주
27	TBC 대구방송회의	2003. 7. 10	대구
28	안동시회원 친선행사	2003. 7. 13	안동
29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3. 7. 18	대구
30	울진군회원 친선행사	2003. 7. 19	울진
31	대구 영호남행사	2003. 7. 27	대구
32	경북지사 초청회의	2003. 7. 29	경산
33	경북지방경찰청	2003. 8. 1	대구
34	심평원대구지원 간담회	2003. 8. 5	대구
35	포항.오세진회원 문상	2003. 8. 15	대구
36	대구U대회 참석	2003. 8. 21	대구
37	포항.빈남수회원 문상	2003. 8. 25	포항
38	국제여자오픈대회	2003. 8. 30	경주
39	정책이사회의 개최	2003. 9. 2	대구
40	대구지검장회의	2003. 9. 3	대구
41	의성의료봉사	2003. 9. 19	의성
42	상근부회장 전송	2003. 9. 22	울산
43	명부광고 요청 방문	2003. 9. 24	대구
44	수재의연품 기탁	2003. 10. 1	대구
45	회원명부 광고관련 방문	2003. 10. 2	대구
46	매일신문 인터뷰	2003. 10. 20	대구
47	상주.김천수회원 문상	2003. 10. 21	상주
48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3. 10. 22	대구
49	의협신보 인터뷰	2003. 11. 3	대구
50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3. 11. 13	대구
51	구급대책 회의참석	2003. 11. 14	구미
52	추계학술대회 참석	2003. 11. 30	대구
53	TBC 출연 정만진부회장	2003. 11. 7	대구
54	대구시 학술대회	2003. 12. 4	대구
55	포항.한영빈회원 문상	2003. 12. 9	포항
56	궐기대회 실무회의	2003. 12. 9	대구
57	의사회지 편집회의	2003. 12. 10	대구
58	공동모금회 행사	2003. 12. 15	경산
59	안동시 정기총회	2003. 12. 19	안동
60	궐기대회 행사참석	2003. 12. 20	대구
61	경산시 송년행사	2003. 12. 26	대구
62	교육공동체 회의참석	2003. 12. 29	대구
63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3. 12. 1	대구
64	대구신년교례회	2004. 1. 4	대구
65	포항신년교례회	2004. 1. 5	포항
66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4. 1. 8	대구
67	궐기대회 평가회의 참석	2004. 1. 12	대구
68	대구세무간담회	2004. 1. 15	대구
69	영주시 정기총회	2004. 1. 27	영주
70	울진군 정기총회	2004. 1. 29	울진
71	포항시 임원간담회	2004. 1. 30	포항
72	경북체육회 이사회	2004. 2. 3	경산
73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	2004. 2. 5	대구
74	포항지역병원장회의 참석	2004. 2. 10	포항
75	회무관계 회관방문	2004. 2. 11	대구
76	신언항 심평원장회의	2004. 2. 12	대구
77	김승래교수 퇴임식	2004. 2. 21	대구
78	경북체육회 정기총회	2004. 2. 24	경산
79	구미시의사회 정기총회	2004. 2. 26	구미
80	포항시의사회 정기총회	2004. 2. 27	포항
81	영천시의사회 정기총회	2004. 3. 4	영천
82	전체이사회	2004. 3. 6	대구
83	회지편집위	2004. 3. 11	대구
84	회무감사	2004. 3. 12	대구

결의문

- 본회 임원 워크샵서 의료현안관련 결의문 채택(2003. 8. 9)
- 영·호남 의료인 친선행사 공동 결의문(2003. 11. 2)
- 경상북도의사회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 결의문(2003. 11. 30)
- 의료제도개혁을 위한 대구·경북의사 궐기대회 결의문(2003. 12. 20)





결 의 문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 전개에 앞장설 것 결의]

정부는 의료정책을 세울 때 의료의 핵심인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의사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그렇게도 반대했던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제로 시행한지 3년이 지났다. 그 결과 보험재정은 파탄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임의조제 · 불법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다. 이제 의약분업은 변질 훼손되어 의사들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또한 정부의 의료정책은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의료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 국민 건강을 제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의 본질을 망각하고, 오직 보험 재정 확충에만 혈안이 되어 의보 수가를 마음대로 인하하고, 지키기 힘든 각종 규제를 남발하며, 언론을 동원하여 의사들을 부정청구나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진료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으며, 의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으로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의 의료계를 바라보며 우리 경상북도의사회 임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모든 의료 정책은 경제 논리보다 국민건강에 초점을 맞추라.
1.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왜곡된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
1.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치 않고 규격진료를 조장하는 전산심사를 철회하라.
1.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포괄수가제 강제 실시와 총액 계약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동네의원 문턱을 높이려는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임의조제, 불법 대체 조제를 막을 수 있는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을 즉각 실시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의쟁투 조직을 재건하여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2003년 8월 9일

경상북도의사회 임원일동



결 의 문

정부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제로 시행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의료보험 재정은 파탄나고 국민의 부담과 불편은 극도로 가중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보험재정파탄의 주범이 의사들인양 악랄한 방법으로 매도하여 왔다.

그러나 2003년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한 지난 3년간 추가 지출된 보험재정의 80% 이상이 조제료임이 지적되었다. 진실은 서서히 밝혀지고 있고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밝혀라.
1.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보험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부담도 줄어든다며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밀어부친 정책입안자들을 엄중문책하라.
1. 정부는 포괄수가제, 총액 계약제등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규격진료등과 무작위한 삭감을 중단하라.
1.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을 만회하기 위한 경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 음모를 즉각 철회하라.

이에 경상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데 앞장 설 것임을 엄숙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3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사회 · 경상북도의사회



1999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 2003년 11월 30일 우리의 현실은?

[경상북도의사회 성명서]

1999년 11월 30일 우리는 장충체육관에서 뜨거운 열기로 의권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2003년 11월 30일,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모든 원인은 의사에게 있고, 모든 정책은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욕은 의사가 먹도록 만들어 버리는 의료 현실을 바라볼 때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자"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라는 분노의 규탄소리가 전국적으로 메아리치고 있다. 의협 회장은 "차라리 죽어도 이렇게 살수는 없다"고 절규하였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의료 투쟁 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오늘, 3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의협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도,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서있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일동은 생존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정책에 항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2003년 11월 29일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채택한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 결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20일(토) 경주에서 경상북도의사회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실패한 의약분업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과 의사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의보 재정 파탄을 비롯한 실패한 의약분업의 근본 원인과 개선책을 찾기 위하여 정부가 아닌 국회 내에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1.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조제, 투약 행위는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제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의사에게 투약권을 돌려줄 수 있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조속히 전환하라.
1. 정부는 과다한 인건비, 관리비 등 방만한 운영으로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는 보험공단을 즉각 해체하라.
1. 우리는 의료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집단들에 의한 비현실적인 수가 인상의 만행을 규탄하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 아울러 의협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일삼는 건정심을 즉각 탈퇴하여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약분업 자체를 거부할 것이며,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03년 11월 30일

경상북도의사회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일동



서서히 고사 당하며 무릎 꿇고 살던지, 아니면…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 경북 의사 궐기대회 결의문]

오늘 대구,경북의 의사들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곳에 모였다.

왜? 왜? 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존심을 짓밟힐 수 없고, 더 이상 의사를 볼모로 한 경박한 의료정책에 농락 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생존을 위하여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9년 11월 30일 장충 체육관에서부터 잃어버린 자존심과 의권을 되찾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의 의료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간교한 언론 플레이로 모든 실패한 의료정책의 원인을 의사에게 돌리고,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편하게 될 의료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고사 당하며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잃어버린 의권을 찾다가 이대로 죽을 것인지 결정할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 대구 · 경북 의사 일동을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 경북 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정부는 국회를 포함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제위임제도를 냉철하게 재평가하라.
1. 우리는 의협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적극 지지하며, 어용(御用)화 된 건정심의 폭거(暴擧)에 의하여 결정된 금년도 의료수가 인상을 전면 거부한다.
1. 정부의 의료 정책 핵심에는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농간으로 우리의 의료가 사회주의화하는 경향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
1. 정부는 방만한 운영으로 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즉각 해체하라.
1. 정부는 주사제, 항생제 등 약제급여평가라는 미명하에 단순 줄 세우기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유치한 성적표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구 · 경북 의사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03년 12월 20일

대구 · 경북의사회 회원일동

편집후기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하여 봄부터 글을 모으고, 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역사와 문학이 수놓인 경북의사회지 28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능력의 부족인지 의욕의 부족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로서는 알차고 감칠맛 나는 회지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 의사회 1년의 역사를 생생히 보존하기 위하여 사진과 자료를 모으고, 원고를 청탁하고, 특집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사람을 섭외하고 밤늦게까지 좌담회를 개최하여 그것을 다시 문자화 시키는 작업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2,000여 경북의사회원들의 성원은 물론, 직접 투고를 해주신 분들을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좌담회에 참석하시어 밤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어 주신 패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량의 기록들을 정리하여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출판을 맡아주신 선진애드 여러분의 역할 또한 지대하였습니다.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편집위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회지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에서 발행되는 많은 다른 지역의 회지와 사보들을 구하여 그 장점을 참고하였으며, 사진 한 장의 위치, 소제목 하나의 선정은 물론 오탈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편집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한 적지 않은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여 그러한 잘못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 3.

편집위원(정만진, 김재왕, 김광만, 이경수, 이덕영) 일동


제2회경상북도 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2003. 10. 19 (일) 11:00 경주현대호텔


의권
지킴이
.5
200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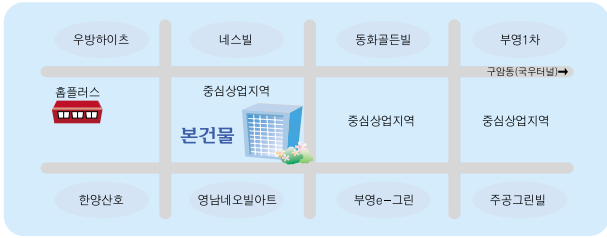
동천골든프라자 병·의원 임대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08-4
(3지구 중심상업지구내)

■ 규 모 : 연건평 1,124평(지하1층, 지상7층)
각층 145평(분할가)

■ 특 징 :
1. 칠곡3지구 4,000세대의 중심에 위치함
2. 병, 의원 용도에 적합한 건물구조
3. 편리한 주차시설 - 주차타워(25대)
4. 대형 엘리베이터(20인승)



문의 (053) 322-0054
011-530-6633
영남부동산(대표 장명익)



기 획
팜플렛디자인
광고홍보물
책 자
서 식

선진애드 SUNJINAD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서평초등학교앞)
TEL : (053)555-3336 / 556-3272
FAX : (053)556-3273
E-mail : sjp3336@hanmail.net
Webhard(ID:sjp3336, PW:sj3272)

다양한 유형의 환자를 목표 혈압치로 조절해 주는 고혈압·협심증 치료제[1-4]

"나에겐 아직 목표가 있다"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힘이 솟는다. 계속되는 운동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긴다. 옆 동네와의 시합에서 젊은애들을 제치고 주전으로 뛰는것! – 「나에겐 아직 목표가 있다.」

GET-TO-GOAL
노바스크® 정
(베실산 암로디핀) 5mg



● 암로디핀 또는 다른 디히드로피리딘계 약물에 과민증 병력이 있는 환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중증의 간기능장애 환자, 중증의 대동맥판협착증 환자, 쇽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중증의 저혈압 환자, 투석을 해야 하는 신부전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임상시험에서 위약과 비교해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부종(8.3% vs 2.4%), 두통(4.5% vs 2.8%) 및 어지러움(3.2% vs 3.4%)이었습니다.

REFERENCE : 1. Velasco M, Urbina A, Silva H, et al. A double-blind, parallel, comparative evaluation of amlodipine vs. captopril in the monotherapeutic treatment of mild and moderate essential hypertension. J Cardiovasc Pharmacol. 1991 ; 17(suppl 1) : S19-S21 2. Kloner RA, Sowers JR, DiBona GF, Gaffney M, Wein M, for the Amlodipine Cardiovascular Community Trial Study Group. Sex-and age-related antihypertensive effects of amlodipine. Am J Cardiol. 1996;77:713-722 3. Hayduk K, Adamczak M, Nowitzki G. Is initial dose titration of amlodipine worthwhile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hypertension? Curr Med Res Opin, 1999; 15:39-45 4. Deanfield JE, Detry J-MRG, Lichtlen PR, Magnani B, Sellier P, Thaulow E, for the CAPE Study Group. Amlodipine reduces transient myocardial ischemia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 double-blind Circadian Anti-ischemia Program in Europe (CAPE Trial). J Am Coll Cardiol. 1994; 24:1460-1467

본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427 TEL : 080-022-1400 Pfizer 한국화이자제약주식회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